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내면서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홍성현 의원입니다.

그동안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이나 사회에서 ‘정상화’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장관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상화’란 말을 관행적으로 써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 말을 들을 때 마다 다시 한 번 우리의 교육현실을 돌아보게 되고 과연 무엇이 우리의 교육을 ‘정상’이 아닌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교의 교육력이 약화되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학교는 학력을 채우기 위한 곳으로 인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공교육을 살리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전반적 사항에 고르게 힘을 안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교육을 정상화하여 교육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게끔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 학교 교육 전문가 및 지역사회 등과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주요 쟁점사항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습부진(난독증) 개선, 인성교육, 수업개선,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등 교육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고 제도 개선을 통하여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을 통하여 중앙정부 위주의 학교교육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여 하며, 학교교육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을 통하여 충청남도 학교교육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모임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현행 학교와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는 뜻 깊은 보고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 차

I .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사업계획	1
II .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활동 보고	7
1.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충청남도의회 등록	7
2.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발족	7
3.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워크숍 개최	17
4.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현장방문	29
5.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토론회 개최	56
6.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최종 협의회 개최	65
7.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활동보고서 발간	85
III . 정책대안 제시	85
IV . 결론	87
[부록1]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워크숍 자료집	
[부록2] 학습부진(난독증) 개선 운영(훈련)경과 종합보고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운영 결과 보고서

I.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사업계획

-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 학교 교육 전문가 및 지역사회 등과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주요 쟁점사항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방안 마련
-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성교육, 수업개선, 진로교육 강화, 인프라 구축 등 교육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고 제도 개선을 통하여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 제시
- 회원 상호간 연구 및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가 매칭 및 연구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

1. 추진방향

- 현재 학교 교육의 주요 쟁점사항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 조사
- 학교 교육 관련 각종 사업 및 제도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한 사례 분석 및 주안점 파악
-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일선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수업개선, 진로교육 등 맞춤형 교육 방안 마련
-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제도적 인프라, 법적 인프라 등 각종 인프라 구축 방안 모색
- 학교교육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및 학교 교육의 정상화 저변 확대 방안 마련
- 연구 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보고서 발간을 통한 정보 공유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1월(9개월)
- 사업내용
 -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 연구 및 과제 수행
 - 학교 교육 관련 각종 사업 및 제도 등에 대한 사례 분석 및 주안점 파악
 - 학교 교육 관련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방안 마련
 -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 학교 교육의 정상화 관련 정책 및 사례 분석 등 연구과제 수행
 -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배포(정보 공유)
- 사업비 : 5,000천원

3. 세부 사업계획

【1】 연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의 전문가 연구 및 다양한 활동 지원
- 사업내용 : 연구모임 및 활동비 지원
 - 연구회 구성 발족 모임 및 정기모임 등
- 사업비 : 1,000천원

【2】 전문가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 사업개요 : 관련기관 및 전문가 워크숍·토론회 개최
- 사업내용 : 전문가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연 2회)
(발표자, 토론자 비용, 식비, 유인물 등)
- 사업비 : 2,000천원

【3】 관련기관 및 학교현장 등 현장방문 추진

- 사업개요 : 관련기관 및 학교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와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사업내용

- 관련기관 및 각종 연구·시범·중심학교 운영학교 방문 실시
- 학교 교육의 주요 쟁점사항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방문 기관 및 학교 선정 후 실시)

○ 사업비 : 1,000천원

【4】 연구결과 보고서·배포

○ 사업개요 :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배포하여 연구 성과 공유

○ 사업내용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연 1회)
(인쇄비 등)

○ 사업비 : 1,000천원

4. 사업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2015년 3월중)
- 연구모임 제1차 정기모임 개최(2015년 4월중)
- 관련기관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2015년 5~6월중)
- 관련기관 및 학교현장 방문 실시(2015년 7월~9월중)
- 연구모임 제2차 모임 개최(2015년 8월중)
-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2015년 10월중)
- 연구모임 제3차 모임 개최(2015년 11월중)
- 연구결과 보고서 발간·배포(2015년 11월중)

5. 기대효과

- 지방의회 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을 통하여 중앙정부 위주의 학교교육을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

- 학교교육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을 통하여 충청남도 학교교육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회 마련
- 연구모임을 통하여 연구회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 토대 마련
-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고 토론하여 결과를 피드백 (feed back)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
- 도의회 연구모임 활성화로 연구하는 도의회상 정립

6.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구 분	소요액 (천원)	산 출 기 초
계	5,000	
연구모임 활동비	1,000	○ 연구모임 발족 및 간담회 - 250,000원×4회 = 1,000,000원
워크숍 개최	1,000	○ 워크숍 개최 - 1,000,000원×1회 = 1,000,000원
토론회 개최	1,000	○ 토론회 개최 - 1,000,000원×1회 = 1,000,000원
현장방문	1,000	○ 관련기관 및 학교현장 방문 - 1,000,000×1회 = 1,000,000원
보고서 인쇄	1,000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 1,000,000원×1회 = 1,000,000원

[별지 제1호 서식]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1. 연구모임명 :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2. 대 표 자 : 홍성현 의원
3. 연구목적 :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성교육, 수업 개선, 진로교육 강화, 인프라 구축 등 교육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4. 구성원(19 명)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고
대 표	홍성현	교육위원회		
간 사	조상호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교수)		
회 원	김문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송덕빈	교육위원회		
"	이공휘	문화복지위원회		
"	윤지상	행정자치위원회		
"	맹상복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	김재겸	충남학원연합회(회장)		
"	송규행	前충청남도교육위원회(부위원장)		
"	정순평	前충청남도의회(의장)		
"	현상태	글로벌영재교육학회(부회장)		
"	송홍준	건양대학교 기초교양교육학부(교수)		
"	이병관	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부(교수)		
"	성인제	前성남초등학교(교장)		
"	현경숙	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장학사)		
"	장동목	충남교육청 공보담당관실(주무관)		
"	윤광희	충남신문(대표)		
"	이재범	천안가온초등학교(운영위원장)		
"	최혜영	천안동중학교(운영위원장)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5년 3월 3일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대표의원 홍 성 현 (인)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연구 활동 계획서

연구모임명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대 표 자		홍성현 의원
연구 내용	과 제	학교 교육의 주요 쟁점사항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방안 마련
	목 적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성교육, 수업개선, 진로교육 강화, 인프라 구축 등 교육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활동기간		2015년 3월 ~ 11월(9개월)
연구방법·연구활동 내용 및 세부계획		「붙임」
연구 활동비	소요액	5,000천원
	산출내역	「붙임」
기타사항		

※ 붙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각 1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3월 3일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대표의원 홍 성 현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II.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활동 보고

1.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충청남도의회 등록

1) 연구회 등록

2015년 3월 18일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충청남도의회에 등록됨으로써 2015년 11월까지 활동을 전개함.

2) 연구회 사업계획

- 학교 교육의 전문가 및 지역사회 등과 학교 교육의 현 주소 파악
- 학교 교육의 쟁점사항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 활동 추진
- 학교 교육 관련 각종 사업 및 제도 등에 대한 사례 분석 및 주안점 파악
-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방안 마련
-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인성교육, 수업개선, 진로교육 강화, 인프라 구축 등 교육여건과 문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 학교 교육의 정상화 관련 정책 및 사례 분석 등 연구과제 수행

2.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가. 일 시 : 2015. 4. 16(목) 10:30

나. 장 소 :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108호)

다. 참석인원 : 21명(도의원 5명, 외부전문가 14명, 관계자 2명)

라. 안 건

- 연구모임 회원 상호간 상견례 및 구성 안내
-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협의

마. 회의결과

-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정기회(창립총회) 개최
- 파트별 연구모임 발표주제 선정 및 구성 협의

- 파트별 연구모임 협의 결과

연구모임 발표주제	연구모임 구성	비고
충청남도 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 개선 사업안	현상태, 이공희, 송홍준, 이병관, 최혜영	
충청남도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 방안	송규행, 김문규, 윤광희, 현경숙	
충청남도 유아교육 발전 방안	맹상복, 윤지상, 김재겸, 장동묵	
충청남도 인지인성교육안	성인제, 송덕빈, 정순평, 이재범	

○ 연구모임 워크숍 개최 시 파트별 주제 발표

- 개최시기 : 2015. 6월 중
- 장 소 :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회의실
- 워 크 쉵 :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워크숍
- 회의진행 : 주제 발표, 토의 및 자유토론 등

○ 종합평가

- 정기모임에서는 연구모임의 연구과제, 연구목적, 추진방향, 사업내용, 사업추진일정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안내하여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여 학교교육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으로 발전시키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 충청남도 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 개선 사업안, 충청남도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 방안, 충청남도 유아교육 발전 방안, 충청남도 인지인성 교육안 등 파트별 연구모임 발표주제를 선정하고 파트별 연구모임을 구성하는 등 향후 활동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붙임 1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창립대회(정기회) 사진



〈사진1〉 의원연구모임 창립대회



〈사진2〉 의원연구모임 창립대회



〈사진3〉 의원연구모임 창립대회



〈사진4〉 의원연구모임 창립대회

중도일보

2015년 04월 17일 (금)

지역 08A면

도의회 학교교육 정상화 연구 시동

제도개선 등 방안마련 중점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 모임'〈사진〉이 16일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대표를 맡은 이 모임은 이날 도의회에서 첫 모임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과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다.

이 모임은 이날 중 학교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분석해 5~6월 중 학교 교육 전문가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또 7~9월 중에는 관련 기관 및 학교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집약하고서 10월 토론회를 거쳐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간기로 했다.

홍 대표는 “도의회 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체계적



이고 다차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교육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어렵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 충남교육의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은 홍 대표를 비롯해 김문규(천안5), 송덕빈(논산1), 이공휘(천안8), 윤지상(아산4) 의원 등 교육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내포=강제일 기자

111 X 109 mm

大田日報

2015년 04월 17일 (금)

지역 14면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 정상화 연구모임' 활동 모습 충남도의회 의원과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은 16일 도의회에서 첫 모임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151 X 77 mm

충청투데이

2015년 04월 17일 (금)

종합 04면

충남도의회 연구모임 본격 활동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16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 연구모임은 향후 교육 여건과 문화·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방점을 찍고 '교육 1번지 충남'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복안이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대표를 맡은 이 모임은 이날 도의회에서 첫 모임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과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ctoday.co.kr

55 X 64 mm

충남일보

2015년 04월 17일 (금)

종합 03면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본격 활동 돌입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16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연구모임은 향후 교육 여건과 문화·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방점을 찍고 '교육 1번지 충남'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복안이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대표를 맡은 이 모임은 이날 도의회에서 첫 모임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과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다.

이 모임은 이달 중 학교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분석해 5~6월 중 학교 교육 전문가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또 7~9월 중에는 관련 기관 및 학교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집약한 뒤 10월 토론회를 거쳐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홍 대표는 "도의회 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현 주소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교육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어렵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 충남교육의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은 홍 대표를 비롯해 김문규(천안5), 송덕빈(논산1), 이공희(천안8), 윤지상(아산4) 의원 등 교육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한내국 기자 hnk777@naver.com

142 X 77 mm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본격 활동 돌입

교육 여건과 문화개선·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중점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16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연구모임은 향후 교육 여건과 문화·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방점을 찍고 '교육 1번지 충남'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복안이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대표를 맡은 이 모임은 이날 도의회에서 첫 모임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과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다. 이 모임은 이달 중 학교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분석해 5~6월 중 학교 교육 전문가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또 7~9월 중에는 관련 기관 및 학교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집약한 뒤 10월 토론회를 거쳐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간기로 했다.

홍 대표는 "도의회 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교육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어렵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 충남교육의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은 홍 대표를 비롯해 김문규(천안5), 송덕빈(논산1), 이공휘(천안8), 윤지상(아산4) 의원 등 교육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내포=이성우기자

155 X 122 mm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16일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돌입

충남도의회, 교육 여건과 문화 개선·제도 개선 방안 마련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16일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이 연구모임은 향후 교육 여건과 문화·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방점을 찍고 '교육 1번지 충남'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복안이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대표를 맡은 이 모임은 이날 도의회에서 첫 모임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과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다.

이 모임은 이달 중 학교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분석해 5~6월 중 학교 교육 전문가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또 7~9월 중에는 관련 기관 및 학교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집약한 뒤 10월 토론회를 거쳐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간키

로 했다.

홍 대표는 "도의회 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교육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어렵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 충남교육의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은 홍 대표를 비롯해 김문규(천안5), 송덕빈(논산1), 이공휘(천안8), 윤지상(아산4) 의원 등 교육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오천수 기자

121 X 191 mm

충청신문

2015년 04월 17일 (금)

정치 05면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본격 운영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16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연구모임은 향후 교육 여건과 문화·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방점을 찍고 ‘교육 1번지 충남’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복안이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대표를 맡은 이 모임은 이날 도의회에서 첫 모임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과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다.

이 모임은 이달 중 학교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분석해 5~6월 중 학교 교육 전문가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또 7~9월 중에는 관련 기관 및 학교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파악한 뒤 10월 토론회를 거쳐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홍 대표는 “도의회 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교육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어렵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 충남교육의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은 홍 대표를 비롯해 김문규(천안5), 송덕빈(논산1), 이공휘(천안8), 윤지상(아산4) 의원 등 교육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홍석민 기자 designr1976@dailycc.net

54 X 174 mm

‘학교교육 정상화 연구모임’ 본격활동

충남도의회 16일 첫 회의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16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연구모임은 향후 교육 여건과 문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목적을 두고 교육 1번지 충남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구상이다.

충남도의회 홍성현(천안1) 교육위원장이 대표를 맡은 이 모임은 이날 도의회에서 첫 모임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과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다.

이 모임은 이달 중 학교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 분석해 5~6월 중 학교 교육 전문가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또 7~9월 중에는 관련 기관 및 학교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집약한 뒤 10월 토론회를 거쳐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간기로 했다.

홍 대표는 도의회 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개선방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교육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어렵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 충남 교육의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기겠다고 덧붙였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은 홍 대표를 비롯해 김문규(천안5), 송덕빈(논산1), 이공휘(천안8), 윤지상(아산4) 의원 등 교육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정래수〉

143 X 74 mm

서울일보

2015년 04월 17일 (금)

지역 12면

‘학교 정상화 연구’ 활동 돌입

충남의회, 교육 여건 · 문화 ·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충남=임진서 기자)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16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연구모임은 향후 교육 여건과 문화·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방점을 찍고 ‘교육 1번지 충남’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복안이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대표를 맡은 이 모임은 이날 도의회에서 첫 모임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과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다.

이 모임은 이달 중 학교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분석해 5~6월 중 학교 교육 전문가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또 7~9월 중에는 관련 기관 및 학교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집약한 뒤 10월 토론회를 거쳐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간기로 했다.

홍 대표는 “도의회 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교육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어렵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 충남교육의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은 홍 대표를 비롯해 김문규(천안5), 송덕빈(논산1), 이공휘(천안8), 윤지상(아산4) 의원 등 교육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충남도의회 '학교교육 정상화 연구모임' 활동 돌입
교육 여건과 문화 개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중점

2015/04/16(목)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16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연구모임은 향후 교육 여건과 문화·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방점을 찍고 '교육 1번지 충남'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복안이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대표를 맡은 이 모임은 이날 도의회에서 첫 모임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과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다.

이 모임은 이달 중 학교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분석해 5~6월 중 학교 교육 전문가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또 7~9월 중에는 관련 기관 및 학교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집약한 뒤 10월 토론회를 거쳐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간기로 했다.

홍 대표는 "도의회 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교육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어렵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 충남교육의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은 홍 대표를 비롯해 김문규(천안5), 송덕빈(논산1), 이공휘(천안8), 윤지상(아산4) 의원과 정순평 전 도의회의장(전 폴리텍대학 학장), 송규행 전 교육위원, 김재겸 충남학원연합회장, 맹상복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윤광희 본보대표(전 천안학원연합회장), 조상호 나사렛대 교수, 송흥준 건양대 교수, 이병관 단국대 교수, 성인제 전 천안성남초 교장, 현상태 글로벌영재교육학회 부회장, 이재범 천안가온초 운영위원장, 최혜영 천안동중 운영위원장, 현경숙 충남교육청 장학사, 장동묵 충남교육청 주무관 등 교육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3.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워크숍 개최

가. 일 시 : 2015. 6. 20(토) ~ 6. 21(일) / 2일간

나. 장 소 :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회의실

다. 참석인원 : 21명(도의원 5명, 외부전문가 14명, 관계자 2명)

라. 주 제 : 파트별 주제발표

- 충청남도 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 개선 사업안
- 충청남도 교권회복을 위한 대책 방안
- 충청남도 유아교육 발전 방안
- 충청남도 인지인성교육안

마. 주요내용

○ 충청남도 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 개선 사업안(발표자 송홍준)

- 난독증은 유전적으로 언어를 읽고 이해하는데 장애를 발생시키는 뇌 신경학적 기반 문제
- 난독증은 질병(Disease)이 아닌 질환(Symptom)이다.
- 현재 난독증을 겪고 있는 학생은 전세계인구의 8% 정도이고, 2-4%는 그 상태가 매우 심각(영국난독증협회)
- 읽기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시각적·청각적 처리시스템 상호작용 필요
- 단어의 처음 반 혹은 마지막 반을 잘 읽거나 놓치며 시야의 한쪽 반을 무시하는 경향
- 비 단어는 정확히 읽지만 단어는 잘 읽지 못함(표층성)
- 단어는 잘 읽지만 비 단어는 잘 읽지 못함(음운성)
- 뇌신경학적 문제로 발생하는 학습부진(난독증) 검사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소개

○ 충청남도 교권회복을 위한 대책 방안(발표자 현경숙)

- 교권(敎權)이란 ‘교원의 교육권과 교원의 권위’를 함축한 말로 교원의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
- 교권은 일반적으로 교육할 권리로서의 교권, 전문직 종사자의 권리로서의 교권, 인간으로서의 교권 등으로 구분

- 교원의 권리는 교원이 전문직으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
- 교원의 의무는 교원의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 교권침해란 교원의 법적, 사회적, 윤리적 권위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교권이 훼손되는 것
- 교권침해의 사례 소개(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교 안전사고, 교원 및 교육행정기관에 의한 교권침해)
- 교권보호를 위한 기구 및 제도로 학생지도와 징계, 교권보호위원회, 교원 소청심사제도, 고충심사위원회,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있음
-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 방안으로는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 강화, 교권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강화, 교권침해 피해 교원 지원, 교권 보호 인프라 구축,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등을 들 수 있음.

○ 충청남도 유아교육 발전 방안(발표자 맹상복)

- 원아들이 줄어든다.
- 문을 닫는 유치원들의 실태는 어떠한가?
- 국·공립 유치원의 교육방식 및 교육내용을 사립 유치원에 강요하고 있다.
-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로 인한 악영향은 무엇이 있나?
- 사립학교(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사립 유치원에 준용하면 어떻게 될까?
-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이슈가 가장 중요합니다.
- 단설유치원 설립이 꼭 필요한가?
- 유아교육 예산 2조 제대로 쓰려면

○ 충청남도 인지인성교육안(발표자 성인제)

- 인성교육이란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어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
- 인성교육의 문제점 : 인성에 대한 이해력, 인성회복은 본성을 깨우는 기술, 인성교육자의 인성지수가 인성교육의 성공을 가늠 등

- 인성교육의 개선방향 : 학생 인성교육 이전에 교사들의 인성교육이 우선, 전체 교사의 약 70% 이상이 마음과 정신의 힐링 필요, 인성지수 평가서 개발 및 인성교육역량의 표준규격화
- 전문 인성지도교사와 인성지도자 육성
- 기대효과 : 옳고 바른 마음(과학적 원리), 삼위일체형 삼합교육(교육자·학생·학부모), 완전한 나 가꾸기(나 하나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원리)

※ 2015년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워크숍 자료(별도 첨부)

바. 토론내용

○ 관련기관 및 학교현장 방문

- 관련기관 및 학교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와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학교 교육의 주요 쟁점사항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실시
- 방문 기관 및 학교 선정은 충청남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
- 방문시기 : 8월 중 실시

사. 종합평가

- 연구모임 워크숍에서는 「충청남도 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 개선 사업안, 충청남도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 방안, 충청남도 유아교육 발전 방안, 충청남도 인지인성교육안」 등 선정된 주제를 파트별로 발표하여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였고,
- 연구모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여 관련기관 및 학교 현장 방문을 8월 중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장 방문을 통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와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를 계기로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다차원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부록 :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워크숍 자료 】

붙임1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워크숍 사진



〈사진1〉 연구모임 워크숍



〈사진2〉 연구모임 워크숍



〈사진3〉 연구모임 워크숍



〈사진4〉 연구모임 워크숍



〈사진5〉 연구모임 워크숍



〈사진6〉 연구모임 워크숍

중도일보

2015년 06월 22일 (월)

지역 14면

도의회 학교교육 정상화 머리맞대

연구모임 워크숍 본격활동 “인프라 등 교육여건 개선”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최근 보령에 소재한 충남학생임해수련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0~21일 양일간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충남 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에 대한 사례를 살핀 뒤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했다.

또 무너진 교권회복을 위한 대응책 논의 및 참교육의 정의에 대해 논의했다. 인지·인성 교육 등을 분야별로도 학교 교육의 현 실태를 파악했다.

이들은 이날 토론을 통해 나타난

큰 틀의 문제점을 분석, 다차원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 및 학교 현장을 찾아 실질적인 현장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모임 대표를 맡은 홍성현 교육위원장은 “학교 교육 전문가 및 지역사회 등과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해 주요 쟁점사항 및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교육여건과 문화^{111 x 99 mm}를 개선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내포=강제일 기자

충남도의회 '학교교육 정상화 연구모임' 본격 활동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20~21일 도 학생임해수련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지난 4월 첫 정기모임을 가진 후 본격적인 목표 달성에 쇄신을 당긴 상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충남 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에 대한 사례를 살핀 뒤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무너진 교권회복을 위한 대응책 논의 및 참교육의 정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 인지·인성 교육 등을 분야별로 발표, 학교 교육의 현 실태를 살폈다.

이들은 이날 토론을 통해 나타난 큰 틀의 문제점을 분석, 다차원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또 오는 7~9월 중으로 관련 기관 및 학교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 실질적인 현장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홍 대표는 "학교 교육 전문가 및 지역사회 등과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해 주요 쟁점사항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교육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활동 박차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 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임을 가진 후 본격적인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충남 청소년 학습 부진(난독증)에 대한 사례를 살핀 뒤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한다. 또 무너진 교권회복을 위한 대응책 논의 및 참교육의 정의에 대해 논의한다. 이밖에 인지·인성 교육 등을 분야별로 발표한

모임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대표를 뽑을 당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충남 청소년 학습 다.

간 도 학생임해수련원에서 워크숍을 열 맞은 이 연구모임은 지난 4월 첫 정기모임 이번 워크숍에서는 충남 청소년 학습 다.

오천수 기자

241 X 32 mm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 정상화 앞장

20~21일 연구모임 워크숍...파트별 모임 주제발표·토론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20~21일 양일간 도 학생임해수련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지난 4월 첫 정기모임을 가진 후 본격적인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당긴 상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충남 청소년 학습 부진(난독증)에 대한 사례를 살핀 뒤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을 설정했다. 또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대응책 논의 및 참교육의 정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 인지·인성 교육 등을 분야별로 발표, 학교 교육의 현 실태를 파헤쳤다.

이들은 이날 토론을 통해 나타난 큰 틀의 문제점을 분석, 다차원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또 7~9월 중으로 관련 기관 및 학교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 실질적인 현장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홍 대표는 "학교 교육 전문가 및 지역사회 등과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해 주요 쟁점사항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교육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신수 기자

211 X 79 mm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활동 돌입

충남도의회, 임해수련원서 워크숍 가져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지난 20~21일 도 학생임해수련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지난 4월 첫 정기모임을 가진 후 본격적인 목표 달성에 시위를 당겼다. 이번 워크숍은 충남 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에 대한 사례를 살핀 뒤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했다. 또 무너진 교권회복을 위한 대응책 논의 및 참교육의 정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 인지·인성 교육 등을 분야별로 발표, 학교 교육의 현 실태를 파악했다.

이들은 이날 토론을 통해 나타난 큰 틀의 문제점을 분석, 다차원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또 7~9월 중으로 관련 기관 및 학교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 실질적인 현장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홍 대표는 “학교 교육 전문가 및 지역사회 등과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해 주요 쟁점사항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교육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119 X 118 mm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활동 박차

연구모임 워크숍 개최... 파트별 모임 주제 발표·토론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20~21일 양일간 도 학생임해수련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사진)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

모임은 지난 4월 첫 정기모임을 가진 후 본격적인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한 상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충남 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에 대한 사례를 살핀 뒤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했다. 또 무너진 교권회복을 위한 대응책 논의 및 참교육의 정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 인지·인성 교육 등을 분야별로 발표, 학교 교육의 현실대를 파헤쳤다.

이들은 이날 토론을 통해 나타난 큰 틀의 문제점을 분석, 다차원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또 7~9월 중으로 관련 기관 및 학교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 실질적인 현장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홍 대표는 "학교 교육 전문가 및 지역사회 등과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해 주요 쟁점사항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교육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대국 기자 hnk777@naver.com

215 X 77 mm

2015년 06월 19일 (금)

종합

충남일보 NEWSis. () 국내 최대
언론 뉴스통신사
2004-2011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워크숍

【홍성·예산=뉴스is】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20~21일 양일간 도 학생임해수련원에서 워크숍을 갖는다.

도의회 교육위원장인 홍성현 의원(천안1)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지난 4월 첫 정기모임을 가진 후 이번에 워크숍을 갖고 본격적인 목표 달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충남 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에 대한 사례를 살핀 뒤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한다. 또 무너진 교권회복을 위한 대응책 논의 및 참교육의 정의에 대해 논의한다. 이밖에 인지·인성 교육 등을 분야별로 발표한다.

이들은 토론을 통해 다차원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 대표는 "학교 교육 전문가 및 지역사회 등과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해 주요 쟁점사항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교육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연구모임은 7~9월 중 관련 기관 및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10월 토론회를 거쳐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yreporter@newsis.com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활동 박차

20~21일 양일간 연구모임 워크숍 개최, 파트별 모임 주제발표 및 토론
정경숙 기자 simin1177@naver.com



▲ © 편집부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20일~21일 양일간 도 학생임해수련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지난 4월 첫 정기모임을 가진 후 본격적인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한 상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충남 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에 대한 사례를 살핀 뒤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했다. 또 무너진 교권회복을 위한 대응책 논의 및 참교육의 정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 인·인성 교육 등을 분야별로 발표, 학교 교육의 현 실태를 파헤쳤다.

이들은 이날 토론을 통해 나타난 큰 틀의 문제점을 분석, 다차원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또 7~9월 중으로 관련 기관 및 학교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 실질적인 현장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홍 대표는 "학교 교육 전문가 및 지역사회 등과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해 주요 쟁점사항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교육 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활동 박차

20~21일 양일간 연구모임 워크숍 개최...파트별 모임 주제발표 및 토론
C뉴스041 newsasan@naver.com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20일~21일 양일간 도 학생임해수련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지난 4월 첫 정기모임을 가진 후 본격적인 목표 달성에 쇄병을 당긴 상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충남 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에 대한 사례를 살핀 뒤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했다. 또 무너진 교권회복을 위한 대응책 논의 및 참교육의 정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 인·인성 교육 등을 분야별로 발표, 학교 교육의 현 실태를 파헤친다.

이들은 이날 토론을 통해 나타난 큰 틀의 문제점을 분석, 다차원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또 7~9월 중으로 관련 기관 및 학교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 실질적인 현장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홍 대표는 "학교 교육 전문가 및 지역사회 등과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해 주요 쟁점사항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교육 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활동 박차

-20~ 21일 양일간 연구모임 워크숍 개최, 파트별 모임 주제발표 및 토론



홍성현 도의원(천안)

[충남/ctn]전인철 기자 =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20~ 21일 양일간 도 학생임해수련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지난 4월 첫 정기모임을 가진 후 본격적인 목표 달성에 쇄발을 당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충남 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에 대한 사례를 살핀 뒤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한다.

또 무너진 교권회복을 위한 대응책 논의 및 참교육의 정의에 대해 논의한다.

이밖에 인지·인성 교육 등을 분야별로 발표한다.

이들은 토론을 통해 다차원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 대표는 "학교 교육 전문가 및 지역사회 등과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해 주요 쟁점사항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교육 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겠다" 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이 연구모임은 7~ 9월 중 관련 기관 및 학교 현장을 방문, 10월 토론회를 거쳐 연구 결과 보고서 발간할 계획이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4.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현장방문

가. 방문기간 : 2015. 8. 27.(목) / 1일간

나. 방문대상 : 천안가온초등학교, 천안동중학교, 선도중학교, 충청남도교육청

다. 방문인원 : 22명(의원 5명, 외부전문가 14명, 직원 3명)

라. 주요내용

- 학생 학습부진(난독증 등)에 관한 사항 청취
- 교권 침해 및 회복에 관한 사항 청취
- 유아교육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청취
- 학생, 교원 등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청취
- 학교 현안사업, 학교운영의 어려운 점, 건의사항 등 청취

마. 학교방문 결과

○ 천안가온초등학교

- 천안가온 교육의 방향
 - 창의·끼·인성이 함께 크는 행복 진로 여행(천안가온 꿈 E-ROOM)
 - 꿈과 사랑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스마트 인재 육성
 - 학생들에게 꿈, 학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학교
- 교육목표 : 심신이 건강하고 예의바르며 꿈과 능력을 키우는 유능한 사람
 - 동아리활동 활성화로 진로를 개척하는 학생을 기른다.
 -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학생을 기른다.
 - 폭넓은 체험으로 스스로 알아가는 자주적인 학생을 기른다.
 - 예체능 특화교육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을 기른다.
- 특색 교육 활동
 - 다양한 동아리 활동 중심의 진로교육

- *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초석다지기
- * 꿈을 이룰 나를 알기 ‘자기이해’
- * 내가 이룰 꿈을 알기 ‘진로계획’
- * 동아리중심 재능 찾기 오감만족 ‘진로계획’
- 직접 체험 활동을 통한 창의수학교육 활성화
- * 재미로 통하는 수학 - 재미 UP!
- * 실력으로 통하는 수학 - 실력 UP!
- * 창의로 통하는 수학 - 창의 UP!
- 가온 3-3-3 힐링과 행복 크레센도
- 3방(예방, 순방, 추방)으로 존사애체 분위기 조성
- * 학교폭력 자치 위원회 운영(예방)
 - 구성 : 경찰서, 학부모, 운영위원, 상담 자격증 보유자, 교사 등 9명
- * 학기초 가정 방문 및 상담 실시(순방)
 - 활동내용 : 기초학력 진단검사, 사회성 발달검사, 진로 적성 검사 등
- * 안전한 학교 만들기 순찰 강화 및 CCTV 모니터링 요원 활동(추방)
 - 활동내용 : 취약지역 안전 순찰, CCTV 모니터링 요원 3인 활동 등
- 학생 자치 활동 강화를 통한 3무(無3) 운동으로 힐링 크레센도
- 바른말 지킴이 「크레센도」 힐링 봉사 동아리
- * 활동내용 : 학교폭력예방 다짐대회 및 캠페인, 가온 힐링우체국 운영 등
- 고운말 지킴이 「명예경찰소년단」
- * 활동내용 : 교통안지도 계도활동, 교통질서 캠페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언어폭력 예방 학생지도 등

- 학생 자치법정 운영
 - * 활동내용 : 학교폭력 예방 자치법정 운영 및 토론회 개최 등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3안(安) 조성으로 행복 크레센도
- 신나는 「가온 동아리」·스포츠 리그전
 - * 활동내용 : 남녀 플로오볼부, 남녀 피구부, 축구부 등
- 칭찬과 봉사로 「긍정의 바른 품성」 기르기
 - * 활동내용 : 친구사랑 주간 운영, 도움친구 정하여 도와주기 등
- 우리는 「교육공동체」
 - * 활동내용 : 학생·교사·학부모 연수, 교육공동체 수리 탐구 축제 등

○ 천안동중학교

- 교육목표
 - 긍정의 임을 갖춘 사람
 - 창의력을 지닌 미래 인재
 - 꿈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
 - 자율과 책임의 민주 시민
- 특색사업(긍정의 힘 프로젝트)
 - 행복한 미래설계, 꿈 잡(job)고 누리는 자유학기제
 - *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재편성
 - *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실수업 실현
 - * 학생의 행복한 미래를 실현시키는 자율과정 프로그램
 - * 학생 수요 중심의 다양한 선택 프로그램 구안·적용
 - *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진로 프로그램

- * 지역사회 협업 기관과의 MOU 체결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실현
- 멘토-멘티 이음을 통한 학력증진 행복 프로젝트
 - 교사의 자율적인 교과교육 연구 활동으로 수업의 질 향상
 - 다양한 멘토-멘티 이음 프로젝트를 통한 미래 역량 키우기
 - 학년별 교과별 특색에 맞는 활동 중심 기초학력 교과캠프
 - 오르미와 나누미, 학생 간 멘토-멘티 이음 프로젝트
 - 대학생 멘토링으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
 -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줄탁동시 멘토링 장학
- 학력증진 및 인성교육
 - 운영중점1 : 동중학력 TOP 프로젝트
- * 학생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 수요자 중심의 수준별 소집단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저소득층 가정에 교육 기회 확대를 진정한 교육복지 실현
- * 내 꿈을 찾아가는 기초쌓기, 기초학력 프로그램
 -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자신감 회복, 행복한 학교생활
 - 기초학력 향상 동기부여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진로상담 교육
- * 고루 나누고, 두루 누리는 EDU-CARE 교육복지 프로그램
 - 교육적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구안 운영
 - 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학습과 특기 계발로 학교 적응력 향상
 - 사제동행 정서멘토링으로 사제 간 관계증진과 교사참여의 활성화
- * ‘존경받는 선생님 되기’ 교실수업 개선 프로젝트
 - 교사의 자율적인 교과교육 연구활동 분위기 조성으로 수업의 질 향상

→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수준 높은 교수학습 연구를 통한 학력
신장 모색

- 운영중점2 :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교육과정 운영
- 참여와 실천으로 가꾸는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실천
 - * 다양한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실천을 통해 배려와 나눔의 실천의지 함양
 -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봉사과 나눔 활동으로 함께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 학생 감동, 부모 감동, 소중한 동행, 학부모 학교 참여 교육
 - * 학부모 학교지원 사업 활동으로 공교육 신뢰 회복
 - * 지속적인 학교 교육 홍보로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도 증진
 - * 학교 교육공동체의 실질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 * 나, 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동중
 - * 예방중심의 생활지도를 강화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 *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 선정 및 꾸준한 실천 노력
 - *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바른 품성 함양 및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배려 문화 조성으로 학교폭력 예방 노력

○ 선도중학교

- 학교 경영 방침
- 꿈과 열정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학생
- 새로운 발상과 도전정신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하는 학생
- 문화적 소양과 풍부한 감성으로 통찰력을 지닌 학생
- 배려와 나눔으로 인류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학생

- 노력과 헌신으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학생
- 중점 추진 과제
- 끌림(진로인)
 - *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교육
 - * 미래인재 핵심역량을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
 - * 매 꿈에 맞는 행복한 직업 찾기 진로탐색 여행
- 떨림(창의인)
 - * 발상의 전환을 통한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 * 자연 친화적 탐구활동을 통한 창의성 계발
 - * 교과통합·교과연계 창의융합교육 강화
- 울림(문화인)
 - * 폭 넓은 사유와 통찰력을 키우는 인문소양교육
 - * 학생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강한 학교 만들기
 - * 조화로운 품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 어울림(세계인)
 -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 * 체험중심 안전교육 생활화로 생명존중교육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배려의 봉사활동
- 몸부림(자주인)
 - * 배움 중심 수업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 강화
 - *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성장발달 지원
 - * 자신감과 열정을 일깨우는 셀프리더십교육

- 역점사업 및 특색사업
 - 역점사업
 - * 줄탁동시(啐啄同時) 배움성장 프로젝트
 - * 꿈 가꿈! 끼 찾음! 자유학기제 운영
 - 특색사업
 - * 안전교육 표준안 적용의 체험 중심 안전교육 체계 구축
 - * 내 꿈 성장 10년 포트폴리오
- 실천 중심 인성교육
 - 배려와 나눔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학생 인성교육
 -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운영
 -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 실천
 - 인성 함양에 적합한 학교환경 구축
 - *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 실천적 인성교육의 강화
 -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조성
 - 선생님 본보이기 운동 전개
 - * 학부모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
 - 자녀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연수
 - 자녀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베품과 나눔 실천하기
 - 학교와 가정의 소통과 공감
- 기초·기본학력 신장 교육활동
 - 교과별 기초·기본학력 신장 수업 전개 : 국어, 수학, 영어
 - 기초·기본학력 신장 형설반 운영 : 기초학력 미달 우려학생

- 사랑 나눔 학습메이트제 운영 : 학급별 기초학력 미달 우려학생

○ 충청남도교육청

- 기초학력 향상

- 추진배경

- * 기초학력 부족으로 인한 누적적 학습결손은 학교 부적응을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 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 정서·행동, 다문화, 탈북학생 등이 증가되고 복합적 요인에 따라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 모든 학생이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행복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책무성 강화가 필요함.

- 추진방향

- * 학교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방-진단-지도-관리 지원 체제 구축 운영
- * 기초학습 도우미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및 두드림학교 운영 활성화를 통한 학습부진 원인별 맞춤형 지원
 - 학습부진학생 이해 및 지도·지원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 관련부서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 유기적 지원 강화

- 추진내용

- * 학교별 기초학력 향상 지원 내실화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지원 강화
 - 기초·기본 학력을 다지는 교육 강화

* 학습부진 원인별 맞춤형 지원 활성화

- 기초학습 도우미제 운영(학습부진학생 지도인력 지원)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본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 두드림학교 운영(단위학교 중심 통합적 지원 시스템, 70교)
-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운영(온라인 기반 선택형·맞춤형 학습)
- 기초학습 부진학생(난독증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교원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

* 교원 역량강화 연수

* 기초학력 향상 연구회 운영(개별학교, 교육지원청, 본청 3팀)

- 교권보호

- 비전 : 교권보호를 통한 건강한 선생님·행복한 학교 만들기
- 과제 : 교권침해 예방, 관리 및 지원, 교권침해교원 치유
- 운영내용

* 교권침해 예방 프로그램

-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권연수(학교단위 자체연수 및 원격연수)
- 교육주체 간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학생, 교원, 학부모)
- 행복한 학생을 위한 114 공감 나누기 운동(신학기 1명의 학생에 대해 1달에 4번 담임교사와 통화(상담)하기)

* 교권보호를 위한 관리 및 지원 시스템 활성화

-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법률상담 지원, 교권침해 사안 조사 전담 인력 운용, 교원치유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 등)
- 교원치유지원센터의 3코스 프로그램 운영(1코스 : 상시, 2코스 :

야간 방문 상담, 3코스 : 1박 2일/주말

* 교권침해 사례

-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
- 학생지도에 불만인 학부모가 교사 폭행
- 일반인이 음주상태에서 급식실에 침입하여 교원 폭행 등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치유 캠프 운영
- 교권침해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교원과 스트레스 누적으로 피로한 교원들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지원(숲오감체험, 숲치유지원프로그램 -수치유·열치유·산림치유 등, 숲속명상 등, 교원 40명)

- 유아교육

- 교육지표 : 미래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 기본방향
 - *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유아중심 교육
 - *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복지
 - * 안전하고 행복한 유치원
 - * 소통과 협력의 공감 교육 행정
 - * 협력과 상생의 교육공동체
- 특색사업
 - * 전인발달을 돕는 「유아성장발달 책임교육제」 운영
 - * 「책사랑·꿈자람」 독서교육
-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 * 혼합연령학급에서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 (3복식)혼합연령학급 유치원 : 281개원, 55.9%(공립유치원 278개원, 사립유치원 3개원)

→ (2복식)혼합연령학급 유치원 : 50개원, 10.0%

→ 3~5세 연령별로 학급 구성된 유치원 : 172개원, 34.2%

* 어려운 점

→ 혼합연령학급(2복식, 3복식)으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내실 있는 운영의 어려움

→ 유치원 교사의 업무 과중(2~3복식 수업준비 외 행정업무)

* 추진계획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전담유치원 시범 운영(동암초병설유치원 : 만 5세, 오산초병설유치원 : 만 3~4세)

→ 3학급 이상 통합유치원 및 단설유치원 설립 적극 추진

→ 혼합연령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에 인력 지원

- 인성교육

· 추진배경

* 미래인재 핵심역량인 인성 및 창의성 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

* 배려와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대책 지속 강조

*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른 인성교육 법적 체계 마련

· 추진방향

* 학교 : 실천하는 인성교육

* 가정 : 가정과 학교 인성교육 연계

* 사회 : 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 추진내용

* 실천적 인성교육으로 행복한 학교 조성

- 교육과정을 통한 실천 중심 인성교육 확산
- 생활중심의 충·효·예·의 실천교육 강화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주간」 운영
- 학생이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
-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 활성화
-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 학생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또래활동 운영 지원
- 가정에서 시작하는 인성교육 체제 구축
- 자녀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활성화
- 가정의 인성교육 역할 강화
- 학부모 맞춤형 소통채널 강화
- 가정과 학교 간 소통을 위한 학교설명회 활성화
- 학생 인성 관련 학부모 소통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동행하는 인성교육 실천 확산
- 창의·인성교육 한마당(인성교육 한마당) 참가
-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 구축·지원
- 민간과 함께하는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추진

바. 돋보이는 점

○ 천안가온초등학교

- 3방(예방, 순방, 추방)으로 존사애제(尊師愛弟)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학기초 학부모와의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의 생활전반에 걸쳐 진단하여 부적응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학부모와의 연계지도로 생활지도의 효과를 높이고 있음.

-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3무(폭력, 폭언, 따돌림) 운동으로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는 의지 및 약자 편에서 도와주려는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있음.
- 3안(안심, 안정, 안전) 조성을 위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연수를 통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으며 교육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서로 믿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음.

○ 천안동중학교

- 바른 인성 형성을 통한 자존감, 행복감 향상과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통하여 학교문화를 변화시켜 학교가 바른 인간을 육성하는 터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
- 교육의 3주제인 학생·교사·학부모가 직접 만나서 함께 어울려 실행할 수 있는 실천·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펼쳐 나감으로써 학교를 진정한 교육 공동체로 만들고 학부모들이 단지 명목상의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아이디어 제안에서부터 실행과 환류에 이르기까지 학부모들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부모 교육 참여의 근본 취지를 극대화시키고 있음.
- 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도움으로써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학교생활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육환경 속에서 미래의

꿈을 키우는 학생 상을 정립하여 신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음.

○ 선도중학교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주간 운영, 학교 명상 숲 가꾸기를 통한 자연친화적 인성교육 공간 조성, 나눔과 소통의 공간 즉복도를 활용한 365일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음.
- 교사 인성교육 동아리 조직·운영을 통한 인성교육 역량 강화, 장애시니어빌, 온유한 집 자매결연 및 어른 공경 효 체험 봉사활동,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배움 텃밭, 김장 나누기 행사 등을 실행하고 있음.
- 2014 ‘두뇌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두드림학교 대상 중 희망학생 10명
 - 운영기간 : 2014. 9. 15 ~ 11. 4 / 총 20차시
 - 지도시간 : 매주 월, 화, 목, 금 16:30 ~ 17:30
 - 운영내용 : 청·지각 훈련을 통한 집중력, 이해력 향상
 - 효과분석 : 검사 결과 학생 모두에게서 읽기 능력 향상이 관찰되었고 훈련 전과 비교하여 유창성검사(WCPM)에서 평균 11.7단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 대부분이 선택적집중력, 읽기능력, 사회성, 정서 행동 등에서 변화를 느꼈으며 평균적으로 설문조사 25개 문항 중 20개의 문항에 긍정적인 변화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남도교육청

- 기초학습 부진학생(난독증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운영목적
 - * 학습부진 학생 중 난독증(읽기, 듣기, 쓰기, 독해 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현황 파악 및 맞춤형 지원

*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부진 학생의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력 제고

· 운영방침

* 학습부진 학생이 많거나 이전에 학습부진(난독증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학교 선정

* 중학교 3교(대, 중, 소규모별 각 1교)를 선도학교로 선정 운영

* 선도학교 운영 결과로 추후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 운영내용

* 학습부진(난독증 등) 프로그램 운영 선도학교 지정·운영

* 선도학교의 학습부진(난독증 등)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학습부진(난독증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따른 교원연수

○ 종합평가

-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은 2015. 8. 27(목) 천안가온초등학교, 천안동중학교, 선도중학교, 충청남도교육청을 방문하여 학생 학습부진(난독증 등), 교권 침해 및 회복, 유아교육 발전방안,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현장에서 살펴보고 느끼고 공감하는 유익한 시간을 갖고 돌아왔다.
- 금번 현장방문에서 방문학교 및 기관의 돋보이는 점은 다음과 같았다.
- 천안가온초등학교에서는 3방(예방, 순방, 추방)으로 존사애제(尊師愛弟)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학기초 학부모와의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의 생활전반에 걸쳐 진단하여 부적응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학부모와의 연계지도로 생활지도의 효과를 높이고 있었고,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3무(폭력, 폭언, 따돌림) 운동으로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는 의지 및 약자 편에서 도와주려는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3안(안심, 안정, 안전) 조성을 위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연수를 통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고 교육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서로 믿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 천안동중학교에서는 바른 인성 형성을 통한 자존감, 행복감 향상과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통하여 학교문화를 변화시켜 학교가 바른 인간을 육성하는 터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었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가 직접 만나서 함께 어울려 실행할 수 있는 실천·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펼쳐 나감으로써 학교를 진정한 교육공동체로 만들고 학부모들이 단지 명목상의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아이디어 제안에서부터 실행과 환류에 이르기까지 학부모들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부모 교육 참여의 근본 취지를 극대화시키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도움으로써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학교생활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육환경 속에서 미래의 꿈을 키우는 학생 상을 정립하여 신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었다.
- 선도중학교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주간 운영, 학교 명상 숲 가꾸기를 통한 자연친화적 인성교육 공간 조성, 나눔과 소통의 공간 즉 복도를 활용한 365일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교사 인성교육 동아리 조직·운영을 통한 인성교육 역량 강화, 장애시니어빌, 온유한 집 자매결연 및 어른 공경 효 체험 봉사활동,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배움 텃밭, 김장 나누기 행사 등을 실행하고 있었으며, 2014 ‘두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한 성과를 살펴보면 검사 결과 학생 모두에게서 읽기 능력 향상이 관찰되었고 훈련 전과

비교하여 유창성검사(WCPM)에서 평균 11.7단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 대부분이 선택적집중력, 읽기능력, 사회성, 정서행동 등에서 변화를 느꼈으며 평균적으로 설문조사 25개 문항 중 20개의 문항에 긍정적인 변화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충청남도교육청의 기초학습 부진학생(난독증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학습부진 학생 중 난독증(읽기, 듣기, 쓰기, 독해 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여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부진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학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습부진 학생이 많거나 이전에 학습부진(난독증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중학교 3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선도학교 운영 결과를 향후 학습부진 학생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 금번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가 얻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1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현장방문 사진



〈사진1〉 천안가온초등학교 현장방문



〈사진2〉 천안동중학교 현장방문



〈사진3〉 선도중학교 현장방문



〈사진4〉 충청남도교육청 현장방문



〈사진5〉 충청남도교육청 현장방문



〈사진6〉 충청남도교육청 현장방문

2015년 08월 28일 (금)

정치 05면

충청투데이

충남도의회 학교교육 정상화 연구모임 현장활동 돌입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 모임이 27일 학생들 꿈과 끼를 키울 맞춤형 교육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 현장에 내재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행보

로 풀이된다.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대표를 맡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은 이날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가온초교와 동중, 아산 선도중, 도교육청 등을 찾았다.

연구모임은 이날 학교 현장의 인프라 구축 등을 파악해 교육여건과 문화

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가온초를 찾은 임원들은 학생 학습부진(난독증 등) 현황과 교권 침해 및 회복 방안, 교육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가온초의 경우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3-3-3 힐링과 행복 크레센도’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로 꼽히고 있다. 전홍표 기자

170 X 47 mm

중도일보

2015년 08월 28일 (금)

지역 08면

도의회 “학교교육 정상화 현장속으로”

연구모임 가온초 등 방문 교권침해 등 문제점 파악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 모임이 27일 학생들 꿈과 끼를 키울 맞춤형 교육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 파악에 나섰다.

이 모임 대표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 등은 천안 가온초와 동중, 아산 선도중, 도교육청 등을 찾았다. 연구모임은 이날 학교 현장의 인프라 구축 등을 파악해 교육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먼저 가온초를 찾은 의원들은 학생 학습부진(난독증 등) 현황과 교권 침해 및 회복 방안, 교육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문규 의원(천안5)은 이 자리에서 “학생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가정,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지상 의원(아산4)은 “한 번에 개선할 수 없지만, 주입식과 창의성 교육의 양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동중과 선도중 등을 찾은 자리에서도 학교 현안사업 및 교육 운영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111 X 121 mm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현장 활동

꿈과 끼를 키울 맞춤형 교육정책 제언 쏟아내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 모임이 학생들 꿈과 끼를 키울 맞춤형 교육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 현장에 내재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대표를 맡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은 이날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가온초교와 동중, 아산선도중, 도교육청 등을 찾았다.

홍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현장 활동은 일선 교육 현장의 교육 정책 장·단점을 파악해 학생 진로, 인성 교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학교 현장의 인

프라 구축 등을 파악해 교육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먼저 가온초를 찾은 임원들은 학생 학습부진(난독증 등) 현황과 교권 침해 및 회복 방안, 교육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가온초의 경우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3-3-3 힐링과 행복 크레센드’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는 대표적 학교로 꼽히고 있다.

김문규 의원(천안5)은 이 자리에서 “학생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가정,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지상 의원(아산4)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졌다”며 “조기교육에 아이들 간 차별이 시작된다. 한 번에 개선할 수 없지만, 주입식과 창의성 교육의 양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동중과 선도중 등을 찾은 자리에서도 학교 현안사업 및 교육 운영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홍 대표는 “현장 방문을 통해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했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건설적 교육변화 및 교육사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초석을 다졌다”며 “10월 토론회를 거쳐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덧붙였다. 내포=이지웅기자

154 X 117 mm

충남일보

2015년 08월 28일 (금)

정치 02면

학교교육 정상화 연구모임, 활동 돌입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 모임이 27일 학생들 꿈과 끼를 키울 맞춤형 교육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 현장에 내재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대표를 맡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은 이날 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가온초교와 동중, 아산 선도중, 도교육청 등을 찾았다.

홍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현장 활동은 일선 교육 현장의 교육 정책 장·단점을 파악해 학생 진로, 인성 교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학교 현장의 인프라 구축 등을 파악해 교육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먼저 가온초를 찾은 임원들은 학생 학습부진(난독증 등)현황과 교권 침해 및 회복 방안, 교육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가온초의 경우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3-3-3 힐링과 행복 크레센도’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는 대표적 학교로 꼽히고 있다.

김문규 의원(천안5)은 이 자리에서 “학생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가정,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지상 의원(아산4)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졌다.”며 “조기 교육에 아이들 간 차별이 시작된다. 한 번에 개선할 수 없지만, 주입식과 창의성 교육의 양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대표는 “현장 방문을 통해 학교 교육의 현 주소를 파악했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내국 기자 hnk777@naver.com

70 X 191 mm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 모임이 27일 학생들 꿈과 끼를 키울 맞춤형 교육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현장 활동 돌입

학생들 꿈과 끼를 키울 맞춤형 교육정책 제언 쏟아져...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 모임이 27일 학생들 꿈과 끼를 키울 맞춤형 교육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 현장에 내재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대표를 맡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은 이날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가온초교와 동중, 아산 선도중, 도교육청 등을 찾았다.

홍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현장 활동은 일선 교육 현장의 교육 정책 장·단점을 파악해 학생 진로, 인성 교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학교 현장의 인프라 구축 등을 파악해 교육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먼저 가온초를 찾은 임원들은 학생 학습부진(난독증 등) 현황과 교권 침해 및 회복 방안, 교육 정책 등에 대해 논

의했다.

가온초의 경우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3-3-3 힐링과 행복 크레센도’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는 대표적 학교로 꼽히고 있다.

김문규 의원(천안5)은 이 자리에서 “학생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가정,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지상 의원(아산4)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졌다”며 “조기교육에 아이들 간 차별이 시작된다. 한 번에 개선할 수 없지만, 주입식과 창의성 교육의 양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동중과 선도중 등을 찾은 자리에서도 학교 현안사업 및 교육 운영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홍 대표는 “현장 방문을 통해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했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천수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정책 마련 위해 현장 ‘행보’

학교 현장의 인프라 구축 등 파악해 교육여건과 문화 개선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27일 학생들 꿈과 끼를 키울 맞춤형 교육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

‘현장에답이 있다’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 현장에 내재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대표를 맡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은 이날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 가온초교와 동중, 아산 선도중, 도교육청 등을 찾았다.

홍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현장 활동은 일선 교육 현장의 교육 정책 장·단점을 파악해 학생 진로, 인성 교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학교 현장의 인프라 구축 등을 파악해 교육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먼저 가온초를 찾은 임원들은 학생 학습부진(난독증 등) 현황과 교권 침해 및 회복 방안, 교육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가온초의 경우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3-3-3 힐링과 행복 크레센도’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는 대표적 학교로 꼽히고 있다.

김문규 의원(천안5)은 이 자리에서 “학생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가정,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지상 의원(아산4)은 “우리나라 학

생들은 어릴 적부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졌다”며 “조기교육에 아이들 간 차별이 시작된다. 한번에 개선할 수 없지만 주입식과 창의성 교육의 양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동중과 선도중 등을 찾은 자리에서도 학교 현안사업 및 교육 운영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홍 대표는 “현장 방문을 통해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했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며 “건설적 교육변화 및 교육사업 지원방안 등을 모색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초석을 다졌다”며 “10월 토론회를 거쳐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석민 기자 designer1916@dailyconet

167 X 108 mm



학생 꿈·끼 항상 맞춤형 교육 해답 '현장에'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 정상화 연구모임' 활동 돌입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 모임이 27일 학생들 꿈과 끼를 키울 맞춤형 교육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사진)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 현장에 내재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대표를 맡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은 이날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가온초교와 동중, 아산 선도중, 도교육청 등을 찾았다.

홍 대표는 "이번 현장 활동은 일선 교육 현장의 교육 정책 장·단점을 파악해 학생 진로, 인성 교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학교 현장의 인프라 구축 등을 파악해 교육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먼저 가온초를 찾은 임원들은 학생 학습부진(난독증 등) 현황과 교권 침해 및

회복 방안, 교육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가온초의 경우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3-3-3 힐링과 행복 크레센도'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는 대표적 학교로 꼽히고 있다.

김문규 의원(천안5)은 "학생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가정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지상 의원(아산4)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졌다"며 "조기교육에 아이들 간 차별이 시작된다. 한 번에 개선할 수 없지만, 주입식과 창의성 교육의 양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동중과 선도중 등을 찾은 자리에서도 학교 현안사업 및 교육 운영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홍 대표는 "현장 방문을 통해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했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순우기자

117 X 191 mm

‘현장에 답이 있다’ ... 현장 활동 돌입

충남도의회 학교교육 정상화 연구모임

충남도의회(의장 김기영)가 27일 학생들 꿈과 끼를 키울 맞춤형 교육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 현장에 내재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대표를 맡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은 이날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가온초교와 동중, 아산 선도중, 도교육청 등을 찾았다.

연구모임은 이날 학교 현장의 인프라 구축 등을 파악해 교육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먼저 가온초를 찾은 임원들은 학생 학습부진(난독증 등) 현황과 교권 침해 및 회복 방안, 교육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가온초의 경우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3-3-3 힐링과 행복 크레센도’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는 대표적 학교로 꼽히고 있다.

김문규 의원(천안5)은 이 자리에서

“학생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가정,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지상 의원(아산4)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졌다”며 “조기교육에 아이들 간 차별이 시작된다. 한 번에 개선할 수 없지만, 주입식과 창의성 교육의 양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동중과 선도중 등을 찾은 자리에서도 학교 현안사업 및 교육 운영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홍 대표는 “현장 방문을 통해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했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건설적 교육변화 및 교육사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초석을 다졌다”며 “10월 토론회를 거쳐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덧붙였다.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113 X 163 mm

충남신문

2015년 08월 27일 (목)

종합

충남도의회, 실질적 문제 파악위해 현장 나서

학교교육정상화연구모임, 천안가온초, 천안동중, 아산선도중, 도곡북성 등
문물회 기자 simin1177@naver.com



▲ ◎ 편집부

충남도의회 학교교육의 정상화 연구 모임이 27일 학생들 꿈과 끼를 맞출형 교육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펼쳤다.

"현장에 많이 있다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 현장에 내재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목표로 출발전다.

충청형 교육위원회(현안1)이 대표를 맡은 학교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은 이날 일원 30여명이 참
가한 가운데 천안가온초교와 동중, 아산 선도중, 도곡북성 등을 찾았다.



▲ ◎ 편집부

충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현장 활동은 일선 교육 현장의 교육 정책 장 단점을 파악해 학생 진
로, 민생 교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학교 현장의 인프라 구축 등을 파악해 교육여건과 문화 개선하고, 체계적인 제
도를 마련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먼저 가운초를 찾은 임원들은 학생 학습부진(난독증 등) 현황과 교원 한해 및 회복 방안, 교육 정책
들에 대해 논의했다.



▲ ◎ 편집부

가운초의 점도 학교와 가운을 연결한 3·3·3 통합과 학교 크레센드 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지
수를 높이고 있는 대표적 학교로 꼽히고 있다.

여기서 가운3·3·3 통합과 학교 크레센드란 3방(예방·순방·후방) 3무(목학, 풍견, 파동함) 3만(만
년, 만물, 만리)을 뜻하며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이 단 1년도 발명하지 않았으며 학교 부속물(예 내
원 생활지도) 효과가 높았다.

이어 동중과 선도중 등을 찾은 자리에서도 학교 현안사업 및 교육 운영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 등
을 청취했다.



▲ ◎ 편집부

충 대표는 "현장 방문을 통해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했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이 있
는 연구 활동이 기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실의 교육변화 및 교육사업 기회 방안 등을 모색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
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추세를 다졌다"며 "10월 본회의를 거쳐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겠
다"고 덧붙였다.



▲ ◎ 편집부



▲ ◎ 편집부

온양신문

2015년 08월 27일 (목)

종합

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현장 활동 돌입...실질적 문제점 파악 주력



© 온양신문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 모임이 8월 27일 학생들 꿈과 끼를 키울 맞춤형 교육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 현장에 내재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행보로 돌아선다.

홍성현 교육위원장이 대표를 맡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은 이날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가온초교와 동충, 아산 선도중, 도교육청 등을 찾았다.

홍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현장 활동은 일선 교육 현장의 교육 정책 장·단점을 파악해 학생 진로, 인성 교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학교 현장의 인프라 구축 등을 파악해 교육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 온양신문

먼저 가온초를 찾은 임원들은 학생 학습부진(난독증 등) 현황과 교권 침해 및 회복 방안, 교육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가온초의 경우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3-3-3 힐링과 행복 크레센드’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는 대표적 학교로 꼽히고 있다.

김문규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학생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가정,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지상 의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졌다”며 “조기교육에 아이들 간 차별이 시작된다. 한 번에 개선할 수 없지만, 주입식과 창의성 교육의 양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동충과 선도중 등을 찾은 자리에서도 학교 현안사업 및 교육 운영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홍 대표는 “현장 방문을 통해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했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이 있는 연구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건실적 교육변화 및 교육사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초석을 다졌다”며 “10월 토론회를 거쳐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덧붙였다.

5.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토론회 개최

가. 일 시 : 2015. 11. 25(수) 14:30~17:00

나. 장 소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

다. 주 최 :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라. 참석인원 : 200여명(학부모, 교직원, 관계공무원 등)

마. 주요내용 : 개회식, 토론회(주제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 등)

바. 참석인사

○ 좌장 : 강동복(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충남지부 상임대표)

○ 주제발표 : 홍성현 위원장(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인성교육 실천 방안

○ 지정토론자

- 강동복 대표(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충남지부 상임대표)

- 성인제 전 교장(전 성남초등학교장)

- 박동수 장학사(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 이명우 전 편집국장(전 충남일보 편집국장)

사. 토론회 결과

○ 총평

- 토론회는 학부모, 교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성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자리로 참가자 대부분은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협력 및 가정 내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운 자리였다고 평가하였음.
- 특히, 학생 인성교육은 형식과 획일성을 배제하고 학생 개개인의 행복추구와 도덕적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 나아가 인성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범사회적 인성교육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였다는 반응임.

□ 주요 발제 및 토론내용

< 발제 > 홍성현 위원장(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인성교육 실천 방안
 -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학교교육 과제개발 등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강조하였음.
 - 인성을 기르는 최초·최고의 학교인 가정 차원의 ‘밥상머리 교육 강화’를 위하여 단위학교 중심으로 학부모 연찬 및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토론 > 강동복 대표(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충남지부 상임대표)

- 공교육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 공교육의 인성교육은 학교마다 일률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인성활동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내면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 지원이 중요함.
 - 인성교육은 단위학교 자체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성공에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성찰과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교육청)의 적극적인 지도와 행·재정적 지원이 요구됨.

< 토론 > 성인제 전 교장(전 성남초등학교장)

- 인성교육론
 - 창의적인 사고와 지구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교사와 학생에게 전수 하여 바른 인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제안함.

< 토론 > 박동수 장학사(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 학생의 성품 및 인성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 충남교육청은 인성교육 진흥법 실천을 위하여 공청회를 거쳐 인성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편성

- 교원의 인성역량 함양을 위하여 연간 4시간 이상 운영 계획
- 학생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교육 정상화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함.

< 토론 > 이명우 전 편집국장(전 충남일보 편집국장)

- 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확산
 - 대부분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정이나 지역사회가 미처 돌보지 못한 상당부분의 인성교육을 학교현장에서 모두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임.

< 자유토론 > (발제·토론자 간 상호 질의응답 및 제언 등)

- 교원의 인성역량 함양을 위해 인성교육연수 확대방안은?
(현행 연간 4시간으로는 부족) [강동복 좌장, 박동수 토론자에게 질의]
⇒ 의무교육 4시간 외에 신규교사 역량연수와 각종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교육 실시 등 실질적으로 연간 4시간을 초과 이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별도 인성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연수원과 협의하겠음.
[박동수 장학사 답변]
- 학생, 학부모 및 교원 연수를 위한 인성교육 전문강사 수급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언
 - 어린이집, 유·초·중·고 등급에 맞게 인성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이 공유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는 방안 강구 [강동복 좌장]
 - 자격과 능력을 보유한 지역인사 등의 재능기부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교육을 우선 시행한 후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우수한 전문인력풀을 마련하여야 함. [토론자 이명우]
- 올바른 인성발달의 장애요인으로 아동의 휴대폰(SNS) 사용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 [이명우 토론자, 박동수 토론자에게 질의]
⇒ SNS 등의 역기능도 있지만 무조건적 금지보다는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통해 순기능을 확산시키고, 상호 소통·배려·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필요 [박동수 토론자]

< 청중토론 > (질의답변)

- 부모의 인성 함양을 위해 예비 학부모(고3 학생 등)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충남교육청에 건의

【 부록 :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토론회 자료 】

붙임1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토론회 사진



〈사진1〉 의원연구모임 토론회



〈사진2〉 의원연구모임 토론회



〈사진3〉 의원연구모임 토론회



〈사진4〉 의원연구모임 토론회



〈사진5〉 의원연구모임 토론회



〈사진6〉 의원연구모임 토론회

중앙매일

2015년 11월 27일 (금)

사설/칼럼 15면

충남도의회, 인성교육 확산 분위기 조성에 앞장

충남도의회가 가정과 지역사회 간 연계를 통한 범사회적 인성교육 분위기 확산 움직임에 나서 주목된다.

도의회는 25일 천안교육청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인성교육 방향 모색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성현 교육위원장이 기조발제를, 강동복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충남지부 상임대표와 성인제 전 성남초교장, 박동수 도교육청 장학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갖가지 수단과 잠재적 가능성들을 제공한다. 그렇지만 기술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가치를 최대한 지키고 보장하려는 구성원들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

한 것이다.

충남도의회가 인성 교육 또는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최근 학교 폭력을 비롯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홍 의원은 “사회가 불안정하고 교육 정책의 혼란이 가중될수록 많은 사람이 인성 교육을 운운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과 왕따, 자살, 군대 총기 사고 등 이들 대상자 대부분이 인성 검사 결과에서 관심 대상으로 분류되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한 것이다. 때문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학교 교육 과제를 개발, 추진해야 한다”며 “가정에서의 밥상머리교육 및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 삶의 태도를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단위 학교 차원의 행, 재정적 지원이 지원돼야 한다”는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19 X 132 mm

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확산 분위기 조성

도의회, 미래지향적인 인성교육 방향 모색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가 가정과 지역사회 간 연계를 통한 범사회적 인성교육 분위기 확산 움직임에 나서 주목된다.

충남도의회는 11월 25일 천안교육청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인성교육 방향 모색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성현 교육위원장이 기조발제를, 강동복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충남지부 상임대표와 성인제 전 성남초교장, 박동수 도교육청 장학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처럼 도의회가 앞장서 인성 교육 또는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최근 학교 폭력을 비롯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발생할 사회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것이 도의회의 판단이다.

홍 의원은 “사회가 불안정하고 교육 정책의 혼란이 가중될수록 많은 사람이 인성 교육을 운운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과 왕따, 자살, 군대 총기 사고 등 이들 대상자 대부분이 인성 검사 결과에서 관심 대상으로 분류되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은 더는 인성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며 “일반인, 학부모, 교사 모두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2.4%가 초·중·고교 학생의 인성·도덕성 수준이 낮다고 인식했다. 이 중 48%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로 학생의 인성·도덕성 약화를 지적했다.

이는 인성교육 또는 전인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홍 의원은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학교 교육 과제를 개발, 추진해야 한다”며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 및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 삶의 태도를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체험활동, 생활지도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인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상임대표는 토론 자리에서 “공교육의 인성교육은 학교마다 일률적이고,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 내면적인 행복을 추구하도록 도와야 한다. 도덕적인 사회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전 교장은 “옳고 바른 마음 인지 인성교육은 창의적인 사고력과 지구력을 증진시킨다”며 “이 교육을 교사와 학생에게 전수해 인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장학사는 “인성교육 중심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교육 정상화의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단위 학교 차원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이 내실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우 전 충남일보 편집국장은 “인성교육이 꼭 교육기관의 잘못으로만 회부할 수 없다”며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할 숙제다.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이 시작돼야 그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집약해 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며,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기로 했다.

홍성현 의원, 초·중·고교 학생 "인성교육 절실하다"

국민 72.4% 초·중·고교 학생 인성·도덕성 수준 낮다고 인식



[천안신문]충남도의회가 가정과 지역사회 간 연계를 통한 범사회적 인성교육 분위기 확산 움직임에 나서 주목된다.

충남도의회는 25일 천안교육청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인성교육 방향 모색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성현 교육위원장(사진, 천안1)이 기조발제를, 강동복 인성교육법국민실천연합 충남지부 상임대표와 성인제 전 성남초교장, 박동수 도교육청 장학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처럼 도의회가 앞장서 인성 교육 또는 법상머리 교육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최근 학교 폭력을 비롯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사회가 불안정하고 교육 정책의 혼란이 가중될수록 많은 사람이 인성 교육을 운운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과 왕따, 자살, 군대 총기 사고 등 이들 대상자 대부분이 인성 검사 결과에서 관심 대상으로 분류되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2.4%가 초·중·고교 학생의 인성·도덕성 수준이 낮다고 인식했다. 이중 48%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로 학생의 인성·도덕성 약화를 지적했다.

이는 인성교육 또는 전인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홍 의원은 꼬집었다.

이에 홍 의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학교 교육 과제를 개발, 추진해야 한다”며 “가정에서의 법상머리 교육 및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 삶의 태도를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체험활동, 생활지도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인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상임대표는 토론 자리에서 “공교육의 인성교육은 학교마다 일률적이고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 내면적인 행복을 추구하도록 도와야 한다. 도덕적인 사회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전 교장은 “옳고 바른 마음 인지 인성교육은 창의적인 사고력과 지구력을 증진시킨다”며 “이 교육을 교사와 학생에게 전수해 인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집약해 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며,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기로 했다. [정운대 기자]

충청투데이

2015년 11월 26일 (목)

종합

충남도의회 인성교육 토론회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제5면]

충남도의회가 가정과 지역사회 간 연계를 통한 범사회적 [인성](#)교육 분위기 확산 움직임에 나섰다.

도의회는 25일 천안교육청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인성교육 방향 모색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이 기조발제를, 강동복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충남지부 상임대표와 성인제 전 성남초교장, 박동수 도교육청 [장학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도의회가 앞장서 인성 교육 또는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로 발생할 사회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것이 도의회의 판단이다. 홍 의원은 “사회가 불안정하고 교육 정책의 혼란이 가중될수록 많은 사람이 인성 교육을 운운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과 왕따, 자살, 군대 총기 사고 등 이들 대상자 대부분이 인성 검사 결과에서 관심 대상으로 분류되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6.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최종 협의회(제2차 정기회) 개최

가. 일 시 : 2015. 11. 25(수) 17:00

나. 장 소 : 충청남도천안교육청 강의실

다. 참석인원 : 22명(의원 5명, 외부전문가 14명, 직원 3명)

라. 안 건

- 연구모임 활동 내용 공유 및 토론
- 의원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협의
-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 및 협의
- 중등분야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 현황 보고

마. 회의결과

- 의원연구모임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협의
 - 연구모임 창립대회, 연구모임 워크숍 개최, 관련기관 및 학교현장 방문, 연구모임 토론회 개최, 최종 협의회 개최 등 주요 활동 사항이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협의
 - 학교 교육의 현황 및 실태와 관련기관 교육정책 현황 및 실태, 연구모임 연구 결과에 대하여 연구모임 회원, 관련기관 및 단체, 충청남도교육청에 각각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
 -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제언(결론)이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협의
- 학습부진(난독증) 개선 시범학교 운영 현황 보고
 - 지정 : 충청남도교육청 지정 시범학교
 - 운영주제 : 학습부진(난독증) 학생들의 근원적인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 탈피를 통한 행복한 학교생활
 - 운영기간 : 2015년 8월 ~ 2015. 12월
 - 목적
 - 학습부진 대책인 난독증 개선사업의 효과분석
 - 난독증 측정도구 및 훈련 프로그램의 적합성 분석

-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부진 현상의 대안 모색
- 운영내용
- 1차 학습부진(난독증) 척도검사
- 2차 정밀검사 후 훈련 대상자 선정
- 교육대상 : 학교당 10명 선정
- 뇌기능개선 훈련 및 읽기 유창성 훈련 약 20여회 실시
- 훈련 후 효과분석 정밀검사(어음청각검사¹⁾, K-WCPM²⁾, TLTS³⁾ 선택성 검사) 실시
- K-WCPM 검사 결과
- 연무중 1학년 : 강승구 23.6, 김시원 16, 김준호 4.7, 박종식 26.3, 박주현 32.3, 백진호 15, 서현덕 26.3, 육현서 38.6 향상, 전체평균이 97.99에서 120.84, 22.85향상으로 읽기 유창성이 매우 좋아 졌음
- 연무중 2학년 : 권찬양 14, 김원영 35, 김지혁 4.3, 심현식 2.6, 장대익 27, 전다홍 16.7, 홍선표 36 향상, 전체평균이 93.99에서 113.36, 19.37 향상되어 읽기 유창성이 좋아 졌음
- 연무중 성적우수자 : 김영상 46, 민경원 27.4, 박기완 20.4, 오현 30.6, 정시영 28 향상, 전체평균이 107.22에서 137.70, 30.48향상 되어 읽기 유창성이 매우 좋아 졌음
- 선도중 1학년 : 김중호 20.3, 모현웅 23.3, 박장수 45, 장다성 32.7, 한희 15.7 향상, 전체평균이 78.38에서 107.78, 27.40 향상되어 읽기 유창성이 매우 좋아 졌음
- 선도중 2학년 : 김성희 16.6, 김영빈 15.4, 박준호 23.3, 정근영

1) 50dB 크기로 50글자를 한 글자씩 들려주었을 때 정확하게 인지한 글자 수를 평가

2) 1분당 정확히 소리 내어 읽은 어절 수

3) 주파수 변이를 인식할 수 있는 귀의 능력과 변이의 방향을 인식할 수 있는 귀의 능력변화 평가(25%이하 시 정상)

65.6, 표준지 30.3 향상, 전체평균이 80.30에서 99.88, 19.58향상되어 읽기 유창성이 좋아 졌음

- 선도중 3학년 : 강석명 8.7, 손지만 24.4, 신은혜 18, 유연조 20.7, 이건희 7.3 향상, 전체평균이 92.56에서 108.38, 15.82향상되어 읽기 유창성이 좋아 졌음

- 청각어음검사(MLC) 검사 결과

- 연무중 1학년 : 좌는 평균 82.00에서 97.25, 15.25증가했고, 우는 80.50에서 95.75, 15.50증가하여 높은 언어 유창성의 효과를 나타냄
- 연무중 2학년 : 좌는 평균 80.57에서 95.71, 15.71증가했고, 우는 84.86에서 98, 14.00증가하여 높은 언어 유창성의 효과를 나타냄
- 연무중 성적우수자 : 좌는 평균 87.6에서 98, 10.4증가했고, 우는 92에서 97.6, 5.6 증가하여 높은 언어 유창성의 효과를 나타냄
- 선도중 1학년 : 좌는 평균 77.20에서 98, 10.4증가했고, 우는 92에서 97.6, 5.6 증가하여 높은 언어 유창성의 효과를 나타냄
- 선도중 2학년 : 좌는 평균 83.2에서 96.8증가했고, 우는 84.4에서 96.4, 12.00증가하여 높은 언어 유창성의 효과를 나타냄
- 선도중 3학년 : 좌는 평균 86.00에서 96.00, 10.00증가했고, 우는 88.00에서 98.00, 9.60증가 하여 높은 언어 유창성의 효과를 나타냄

- 선택성오류(TLTS) 검사 결과

- 연무중 1학년 : 좌는 평균 32.49에서 15.01로 하락하여 높은 음운인식 능력 개선을 보임
- 연무중 2학년 : 좌는 평균 42.49에서 26.96로 하락했고, 우는 39.59에서 30.20으로 하락하여 높은 음운인식능력 개선을 보임

- 연무중 성적우수자 : 좌는 평균 21.72에서 11.44로 하락했고, 우는 21.14에서 10.86으로 하락하여 높은 음운인식능력 개선을 보임
- 선도중 1학년 : 좌는 평균 28.82에서 26.30로 하락했고, 우는 27.62에서 25.14으로 하락하여 높은 음운인식능력 개선을 보임
- 선도중 2학년 : 좌는 평균 18.76에서 12.62로 하락했고, 우는 17.58에서 8.66으로 하락하여 높은 음운인식능력 개선을 보임
- 선도중 3학년 : 좌는 평균 8.80에서 8.00로 하락했고, 우는 12.32에서 8.02으로 하락하여 높은 음운인식능력 개선을 보임
- 평가

- K-WCPM검사, 청각어음검사, TLTS검사 등을 통하여 훈련 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정확한 듣기능력과 읽기 유창성 부분에서 비약적 발전이 확인되었음.
- 20여 시간의 짧은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나타났던 것은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의 협조와 이로 인한 학생들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기에 가능하였음.
- 본 훈련을 통하여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부진의 원인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충분히 치유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발의 예정)

- 대표발의 :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 제정이유

충남도내 신경생물학적 원인 등으로 난독증 경향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근원적인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탈피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경생물학적 원인 등으로 난독증 경향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근원적인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탈피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신경생물학적으로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읽기의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말한다. 이는 학습부진의 주요인이 될 수 있다.
2. “아동·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난독증의 증상) 이 조례에서 말하는 난독증의 증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글자를 읽을 때, 내용을 지각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말로서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생각이나 정보를 글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
4. 학습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이해, 기억, 추론, 판단 등이 부족하다.
5. 읽기 이해에 필요한 내용이해력 및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이 있다.
6. 음소, 음운을 지각하고 언어의 소리로 처리하는 기능이 약하다.
7. 읽기에 필요한 속도, 리듬감, 정확성이 약하다.
8. 대뇌좌우 균형 및 우세성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남도내 난독증 아동·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우선하고 학교에서 학습부진 및 이로 인한 정서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적용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 경향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파악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독증 경향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평가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난독증 경향 등을 가지고 있거나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 시행
2. 추진 목표, 평가 및 해결을 위한 전문교육 지원 방향
3.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난독증 경향이 있는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상담 지원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수조사) 교육감은 난독증 경향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선별하여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하고, 전수조사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분석결과는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난독증 경향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습클리닉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난독증 경향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의 난독증 경향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충청남도 학습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학교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회 의원 2명
2.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전문치료 법인·단체의 대표
3. 청소년의 교육·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상담사업) ① 교육감은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치료교육 지원 및 전문적인 상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거나 아동·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 경향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 초·중등학교,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學習不振)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1.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진1〉 의원연구모임 최종협의회



〈사진2〉 의원연구모임 최종협의회



〈사진3〉 의원연구모임 최종협의회

금강일보

2015년 11월 25일 (수)

지역 13면

홍성현 도의원 오늘 교육정책 점검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맞춤형 교육정책 제시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은 25일 2차 정기모임을 열고 그동안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집약된 내용을 최종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연구모임은 지난 5개월간 집약한 내용을 종합해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홍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그동안 연구 결과를 도출,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충남교육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sa21@naver.com

63 X 103 mm

학교교육 정상화 위한 교육정책 제시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맞춤형 교육 정책 제시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사진)은 25일 2차 정기모임을 열고 그동안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집약된 내용을 최종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 연구모임은 지난 4월 첫 정기모임을 시작으로 워크숍(6월), 일선 학교 현장 점검(8월) 등을 통해 학교 현장 문제를 점검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5개월간 집약한 내용을 종합해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복안



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아동·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 개선사업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 방안 ▲유아교육 발전 ▲인성교육 등 4가지 학교 현안을 논한다.

홍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그동안 연구결과를 도출,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충남 교육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내국기자 hnk777@naver.com

142 X 78 mm

“학교 정상화 집중 논의하자”

홍성현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맞춤형 교육정책 제시
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혼신을 다하
고 있다.

24일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
안1·사진)에 따르면 25일 2차 정기
모임을 열고 그동안 연구모임 활동
을 통해 집약된 내용을 최종 점검한
다. 연구모임은 지난 5개월 간 집약



한 내용을 종합해
학교 정상화를 위
한 대안을 제시한
다는 복안이다.

우선 △아동·청
소년 학습부진

(난독증) 개선사업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 방안 △유아교육 발전 △
인성교육 등 4가지 학교 현안을 집
중 논의할 예정이다.

/천안=김병한기자

103 X 73 mm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 정상화 위한 교육 정책 고삐

난독증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례 발의 준비 중...제도적 장치 마련



충남 도의
회 학교 교육
의 정상화 연
구모임이 맞
춤형 교육정
책 제시를 위
한 막바지 작

업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24일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은 25일 2차 정기모임을 열고 그동안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집약된 내용을 최종 점검한다.

앞서 이 연구모임은 지난 4월

첫 정기모임을 시작으로 워크숍(6월), 일선 학교 현장 점검(8월) 등을 통해 학교 현장 문제를 점검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5개월간 집약한 내용을 종합해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아동·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 개선사업 ▲교원회복을 위한 대처 방안 ▲유아교육 발전 ▲인성교육 등 4가지 학교 현안을 논한다.

홍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그동안 연구 결과를 도출,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충남 교육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 포=이지웅기자

150 X 88 mm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 정상화 위한 교육 정책 제시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맞춤형 교육정책 제시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은 25일 2차 정기모임을 열고 그동안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집약된 내용을 최종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 연구모임은 지난 4월 첫 정기모임을 시작으로 워크숍(6월), 일선 학교 현장 점검(8월) 등을 통해 학교 현장 문제를 점검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5개월간 집약한 내용을 종합해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아동·청소년 학습부진(난독 증) 개선사업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 방안 ▲유아교육 발전 ▲인성교육 등 4가지 학교 현안을 논한다.

홍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그동안 연구 결과를 도출, 학교 교육의 정

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충남 교육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난독 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천수 기자

241 X 53 mm

충남지역 학교 교육 정상화 위한 교육 정책 제시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 난독증 등 4가지 학교 현안 논의 할 것

송문용 기자 smy@jbnews.com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맞춤형 교육정책 제시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 1)은 25일 2차 정기모임을 열고 그동안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집약된 내용을 최종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 연구모임은 지난 4월 첫 정기모임을 시작으로 워크숍(6월), 일선 학교 현장 점검(8월) 등을 통해 학교 현장 문제를 점검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5개월간 집약한 내용을 종합해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아동·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 개선사업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 방안 ▶유아 교육 발전 ▶인성교육 등 4가지 학교 현안을 논한다.

홍성현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그동안 연구 결과를 도출,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충남 교육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문용/천안

천안시,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 학교 교육 정상화 위한 교육 정책 제시

박승욱기자

[천안=로컬투데이] 박승욱기자/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맞춤형 교육정책 제시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은 25일 2차 정기모임을 열고 그동안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집약된 내용을 최종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 연구모임은 지난 4월 첫 정기모임을 시작으로 워크숍(6월), 일선 학교 현장 점검(8월) 등을 통해 학교 현장 문제를 점검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5개월간 집약한 내용을 종합해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아동·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 개선사업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 방안 ▲유아 교육 발전 ▲인성교육 등 4가지 학교 현안을 논한다.

홍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그동안 연구 결과를 도출,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충남 교육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현 의원, 학교 교육 정상화 위한 교육 정책 제시

난독증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례 발의 준비 중...제도적 장치 마련
윤광희 기자 simin1177@naver.com



▲ ⓒ 편집부

충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이 맞춤형 교육정책 제시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은 25일 2차 정기모임을 열고 그동안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집약된 내용을 최종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 연구모임은 지난 4월 첫 정기모임을 시작으로 워크숍(6월), 일선 학교 현장 점검(8월) 등을 통해 학교 현장 문제를 점검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5개월간 집약한 내용을 종합해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아동·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 개선사업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 방안 ▲유아 교육 발전 ▲인성교육 등 4가지 학교 현안을 논한다.

홍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그동안 연구 결과를 도출,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충남 교육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 학교 교육 정상화 위한 교육 정책 제시

난독증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례 발의 준비 중...제도적 장치 마련
김상수 기자



▲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 ◎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은 25일 2차 정기모임을 열고 그동안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집약된 내용을 최종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 연구모임은 지난 4월 첫 정기모임을 시작으로 워크숍(6월), 일선 학교 현장 점검(8월) 등을 통해 학교 현장 문제를 점검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5개월간 집약한 내용을 종합해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아동·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 개선사업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 방안 ▲유아 교육 발전 ▲인성교육 등 4가지 학교 현안을 논한다.

홍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그동안 연구 결과를 도출,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충남 교육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활동보고서 발간

가. 사업개요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나. 사업내용 : 정기회, 관계기관 및 학교 현장방문, 워크숍, 토론회 등의 연구 성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통하여 공유하고 2016년 충청남도교육청 사업 계획 반영 등 이론적 토대를 마련함.

다. 발간일 : 2015년 12월 중

Ⅲ. 정책대안 제시

1. 천안가온초등학교의 돋보이는 점 제시

천안가온초등학교에서는 3방(예방, 순방, 추방)으로 존사애제(尊師愛弟)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학기 초 학부모와의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의 생활전반에 걸쳐 진단하여 부적응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학부모와의 연계지도로 생활지도의 효과를 높이고 있었고,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3무(폭력, 폭언, 따돌림) 운동으로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는 의지 및 약자 편에서 도와주려는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3안(안심, 안정, 안전) 조성을 위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연수를 통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고 교육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서로 믿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음.

2. 천안동중학교의 돋보이는 점 제시

천안동중학교에서는 바른 인성 형성을 통한 자존감, 행복감 향상과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통하여 학교문화를 변화시켜 학교가 바른 인간을 육성하는 터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었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가

직접 만나서 함께 어울려 실행할 수 있는 실천·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펼쳐 나감으로써 학교를 진정한 교육공동체로 만들고 학부모들이 단지 명목상의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아이디어 제안에서부터 실행과 환류에 이르기까지 학부모들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부모 교육 참여의 근본 취지를 극대화시키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도움으로써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학교생활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의 꿈을 키우는 학생 상을 정립하여 신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었음.

3. 선도중학교의 돋보이는 점 제시

선도중학교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주간 운영, 학교 명상 숲 가꾸기를 통한 자연친화적 인성교육 공간 조성, 나눔과 소통의 공간 즉 복도를 활용한 365일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교사 인성교육 동아리 조직·운영을 통한 인성교육 역량강화, 장애시니어빌, 온유한 집 자매 결연 및 어른 공경 효 체험 봉사활동,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배움 텃밭, 김장 나누기 행사 등을 실행하고 있었으며, 2014 ‘두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한 성과를 살펴보면 검사 결과 학생 모두에게서 읽기 능력 향상이 관찰되었고 훈련 전과 비교하여 유창성검사(WCPM)에서 평균 11.7단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 대부분이 선택적집중력, 읽기능력, 사회성, 정서행동 등에서 변화를 느꼈으며 평균적으로 설문조사 25개 문항 중 20개의 문항에 긍정적인 변화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음.

4. 충청남도교육청의 돋보이는 점 제시

충청남도교육청의 기초학습 부진학생(난독증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학습부진 학생 중 난독증(읽기, 듣기, 쓰기, 독해 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여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부진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학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습부진 학생이 많거나 이전에 학습부진(난독증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중학교 3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선도

학교 운영 결과를 향후 학습부진 학생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음. 이 사업은 성과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5.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 예정

- 대표발의 :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 제정이유

충남도내 신경생물학적 원인 등으로 난독증 경향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근원적인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탈피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도교육청 : 조례안의 상위법령 저촉 여부,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 등 전반적인 검토 및 의견 제시

IV. 결론

충청남도의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은 의원 5명과 교육전문가 14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하여 4월 16일 첫 정기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고, 연구모임의 연구과제, 연구목적, 사업내용, 사업추진일정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안내하여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여 학교교육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으로 발전시키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충청남도 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 개선 사업안, 충청남도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 방안, 충청남도 유아교육 발전 방안, 충청남도 인지인성교육안 등 파트별 연구모임 발표주제를 선정하고 파트별 연구모임을 구성하는 등 향후 활동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모임은 6월 20일에서 6월 21일 양일간 워크숍을 개최하여 선정된 주제를

파트별로 발표하여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였고, 연구모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여 관련기관 및 학교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장방문을 통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와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어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다차원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여 현장에서 살펴보고 느끼고 공감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11월 25일에는 가정과 지역사회 간 연계를 통한 법사회적 인성교육 분위기 확산을 위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인성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의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학교 교육 과제를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 및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여 삶의 태도를 변화하여야 하며, 단위학교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으로 인성교육 확산을 위하여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같은 날 맞춤형 교육정책 제시를 위한 제2차 연구모임을 개최하여 연구모임 활동을 통하여 집약된 내용을 최종 점검하였고, 그동안 집약된 활동 내용을 종합하여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열띤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 개선사업,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 방안, 유아교육 발전 방안, 인성교육안 등의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그동안 축적된 연구 활동 결과를 도출하여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여 충남교육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은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 학교 교육 전문가 및 지역사회 등과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주요 쟁점사항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방안 마련과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인성교육, 수업개선,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등 교육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고 제도 개선을 통하여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끝으로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을 통하여 얻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부록]

1.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워크숍 자료
2. 학습부진(난독증) 개선 운영(훈련)경과 종합보고서[(사)대한난독증협회]

[부록1]

기 간 : 2015.6.20.(토) ~ 6.21.(일) / 2일간

장 소 :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회의실(2층)

2015年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워크숍 자료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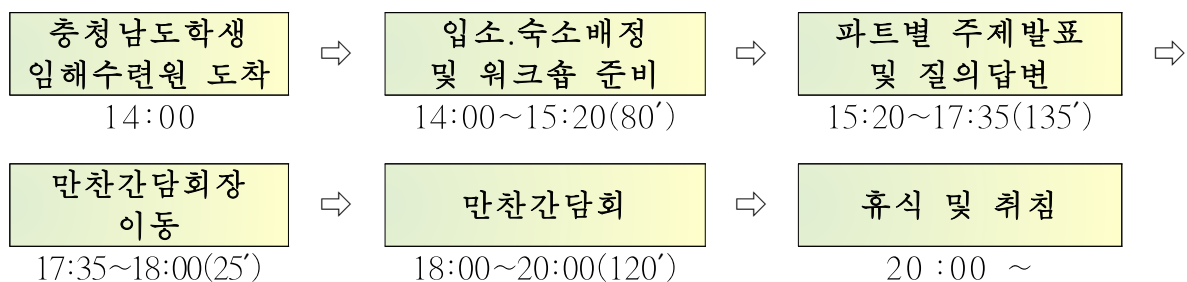
I 개 요

- 기 간 : 2015.6.20.(토) ~ 6.21.(일) / 2일간
- 참석인원 : 21명(연구모임 19명, 직원 2명)
- 장 소 :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회의실(2층)
- 발표주제(파트별)
 - 충청남도 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 개선 사업안
 - 충청남도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 방안
 - 충청남도 유아교육 발전 방안
 - 충청남도 인지인성교육안
- 파트별 연구모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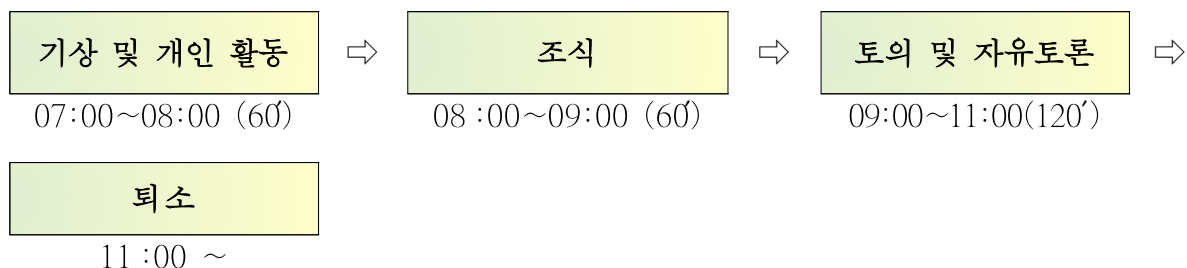
연구모임 발표주제	연구모임 구성	비고
충청남도 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 개선 사업안	현상태, 이공희, 송홍준, 이병관, 최혜영	
충청남도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 방안	송규행, 김문규, 윤광희, 현경숙	
충청남도 유아교육 발전 방안	맹상복, 윤지상, 김재겸, 장동묵	
충청남도 인지인성교육안	성인제, 송덕빈, 정순평, 이재범	

II 워크숍 흐름

○ 6. 20.(토)



○ 6. 21.(일)



Ⅲ 워크숍 세부계획

○ 6. 20.(토)

시 간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소요(분)		
15:20	15:30	10	- 개회사(사회자) - 인사말씀(홍성현 의원)	
15:30	17:30	120	○ 파트별 주제발표(4파트) - 충청남도 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 개선 사업안 · 발표 20분, 질의답변 10분 - 충청남도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 방안 · 발표 20분, 질의답변 10분 - 충청남도 유아교육 발전 방안 · 발표 20분, 질의답변 10분 - 충청남도 인지인성교육안 · 발표 20분, 질의답변 10분	
17:30	17:35	5	- 마무리 말씀(홍성현 의원) - 폐회(사회자)	
17:35	18:00	25	만찬간담회장 이동	
18:00	20:00	120	만찬간담회	
20:00	~		휴식 및 취침	

○ 6. 21.(일)

시 간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소요(분)		
08:00	09:00	60	조찬	
09:00	11:00	120	○ 토의 및 자유토론 - 팀별 발표주제에 관한 사항 -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관한 사항 - 연구모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 소요시간 : 120분 - 마무리 말씀(홍성현 의원)	
11:00	~		퇴소	

목 차

충청남도 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 개선 사업안	1
---------------------------------	---

발표자 : 송홍준 (건양대학교 교수)

충청남도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 방안	29
---------------------------	----

발표자 : 현경숙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충청남도 유아교육 발전 방안	70
-----------------------	----

발표자 : 맹상복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충청남도 인지인성교육안	83
--------------------	----

발표자 : 성인제 (前성남초등학교 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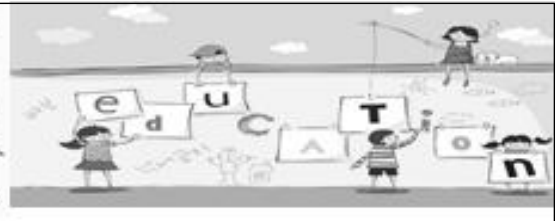
충청남도 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 개선 사업안

발표자 : 송홍준 (건양대학교 교수)

충청남도 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
개선에 관한 연구

2015. 6.

송홍준 (건 양 대 학 교 교 수)
이병관 (단 국 대 학 교 교 수)
현상태 (글로벌영재교육학회 부회장)
이공휘 (문 화 복 지 위 원 회 의 원)
최혜영 (천 안 동 중 운 영 위 원 장)



영재 와 난독증 (Dyslexia)

20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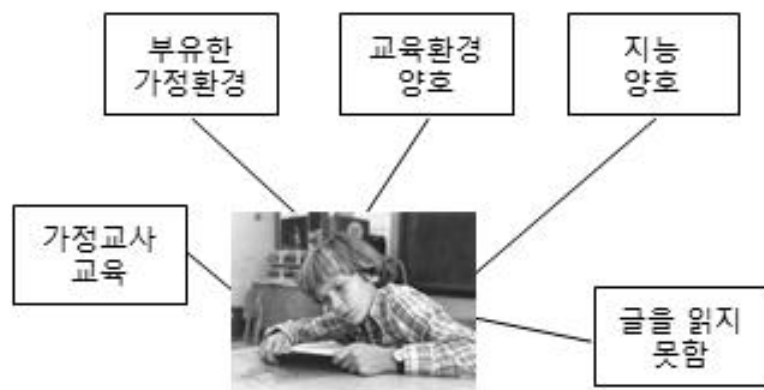
Dyslexia in Korea

Great is better than good

난독증 역사 [DYSLEXIA]



아돌프 쿠스마울



- ❖ 독일 신경학자
- ❖ 1878년 난독증 (Words Blindness : 읽지 못함)

Dyslexia in Korea

Great is better than good

국제난독증협회 (INA, 1994)



"Dyslexia is a neurologically-based, often familial disorder which interferes with the acquisition of language. Varying in degrees of severity, it is manifested by difficulties in receptive and expressive language, including phonological processing, in reading, writing, spelling, handwriting and

→ Often Familial



난독증은 흔하게 유전적으로 언어를 읽고 이해하는 데 장애를 발생시키는 뇌 신경학적 기반 문제

Dyslexia In Korea

Great is better than good

세계보건기구 (WHO)



난독증은 질병(Disease)가 아닌 질환 (Symptom)이다.

Dyslexia In Korea

Great is better than good

난독증 대책 [외국사례]



- 난독증은 미국의 어린이 중 5명에서 1명꼴인 약 20%학생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학교에서 학습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며, 별도의 교육이 없으면 성인이 돼도 책을 읽을 수 없음 (Bright Solution, 1998)
- 현재난독증을 겪고 있는 학생은 전세계인구의 8%정도, 2-4%는 그 상태가 매우 심각. (영국난독증협회)
- 난독인의 권리와 권한을 일깨워 주는 사회적 운동이 보편화 됨
- 공공도서관, 공공 및 교육 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진단, 처치, 교육에 참여

Dyslexia In Korea

Great is better than g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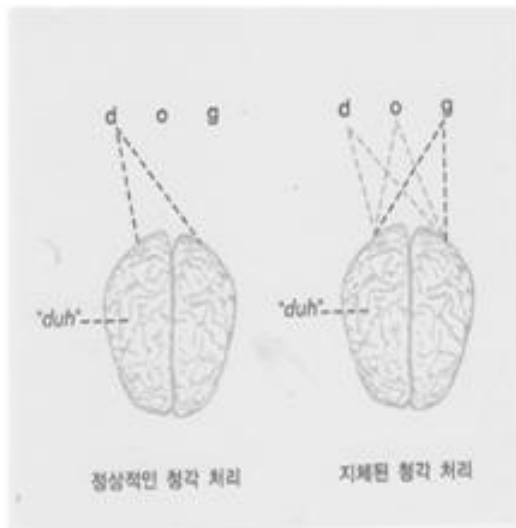
난독증 대책 [외국사례]



- 난독증은 미국의 어린이 중 5명에서 1명꼴인 약 20%학생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학교에서 학습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며, 별도의 교육이 없으면 성인이 돼도 책을 읽을 수 없음 (Bright Solution, 1998)
- 현재난독증을 겪고 있는 학생은 전세계인구의 8%정도, 2-4%는 그 상태가 매우 심각. (영국난독증협회)
- 난독인의 권리와 권한을 일깨워 주는 사회적 운동이 보편화 됨
- 공공도서관, 공공 및 교육 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진단, 처치, 교육에 참여

Dyslexia In Korea

Great is better than g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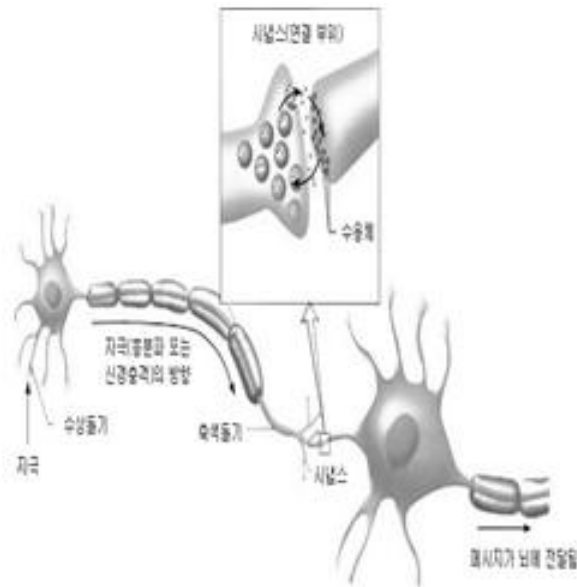
- 읽기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시각적/청각적 처리시스템 상호작용필요
- 음소 음운인식-> 단어인식
-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으면 "god"으로 읽을 수 있음
- 감각 협응의 문제



- 100~500억개의 뇌세포
- 거대한 망으로 구성

뇌 신경망 [Neuronal Connections]

시각적/청각적 처리 속도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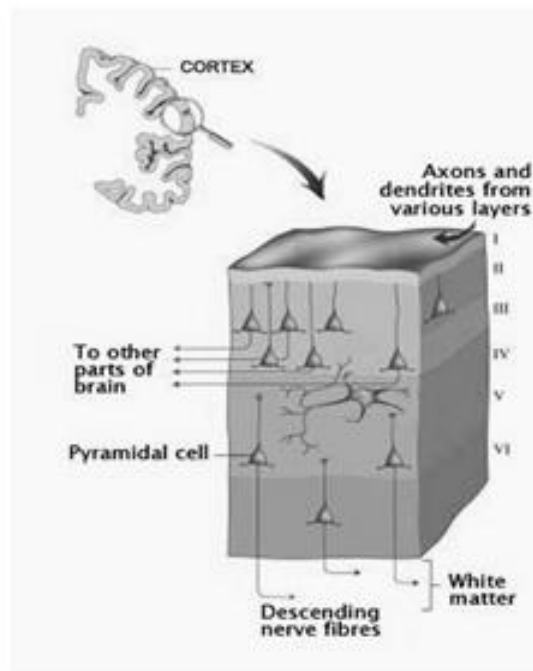
- 수상돌기 : 정보수용
- 축삭돌기 : 정보전달

Dyslexia In Korea

Great is better than good

뇌 신경망 [Neuronal Connections]

시각적/청각적 처리 속도의 차이



- 1층 : 축삭돌기, 돌기 가지 층
- 1~6층 : 신경회로망 연결
- 회백질 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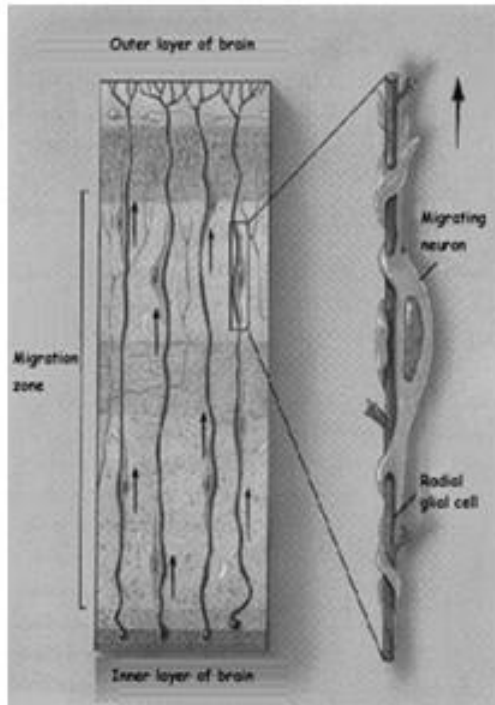
Ramus, 2004

Dyslexia In Korea

Great is better than good

뇌 신경망 [Neuronal Connections]

시각적/청각적 처리 속도의 차이



- 1층 : 축색돌기, 돌기 가지 층
- 1~6층 : 신경회로망 연결
- 회백질 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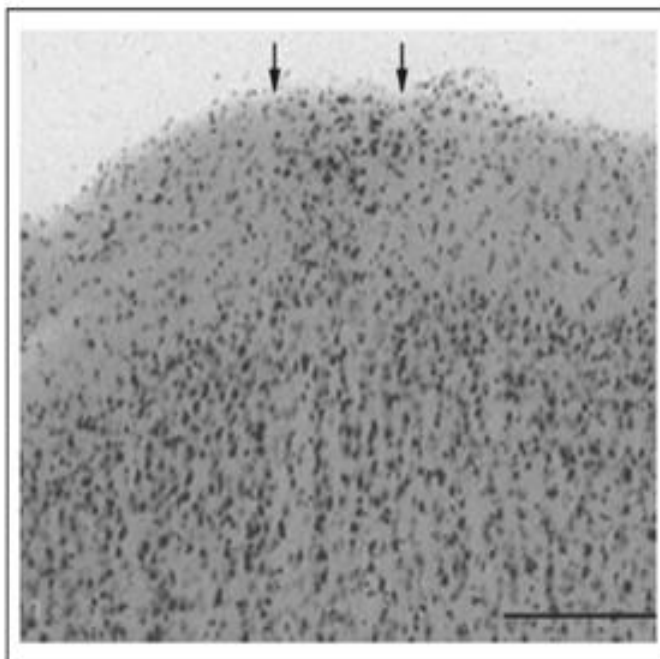
Ramus, 2004

Dyslexia In Korea

Great is better than good

뇌 신경망 [Neuronal Connections]

시각적/청각적 처리 속도의 차이



- Ectopic 형 (방사형) 으
로 존재
- Ectopic Cel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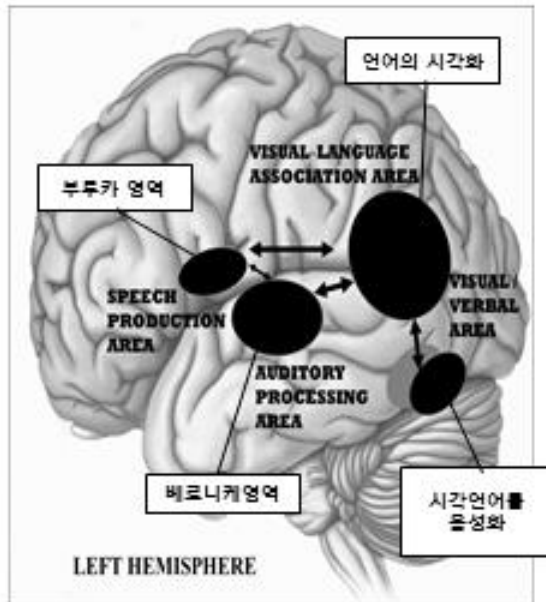
Ramus, 2004

Dyslexia In Korea

Great is better than good

뇌의 언어담당 [Typical Language Activation Areas]

시각적/청각적 처리 속도의 차이



- 베르니케 영역 : 언어수용
- 브루카 영역 : 언어전달

Dyslexia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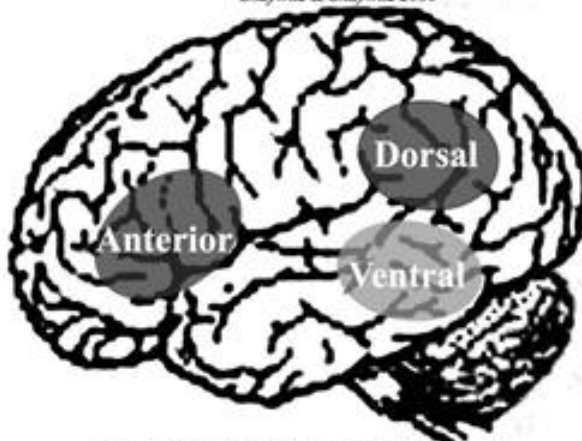
Great is better than good

뇌의 언어담당 [Typical Language Activation Areas]

시각적/청각적 처리 속도의 차이

Proposed Reading Circuits

*Adapted from: Pugh, Mencl, Jenner, Katz, Frost, Lee
Shaywitz & Shaywitz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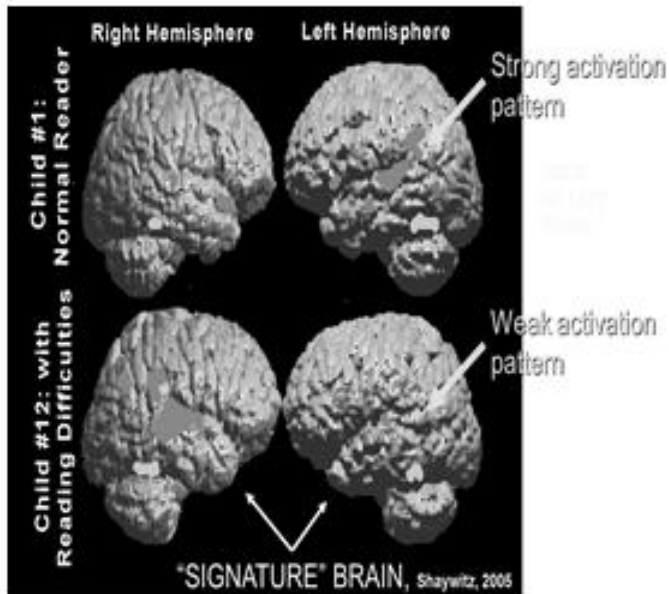


Dorsal: Phonological Encoding; develops first
Ventral: Word Identification; develops later
Anterior: Articulatory Recoding; compensatory

- Dorsal Area : 처음 음운 입력, 최초발화, 분석단계
- Ventral Area : 단어 확인, 후속발화,
- Anterior : 발성재생, 실행

Dyslexia In Korea

Great is better than good



- "자이 : Gap"은 유창성과 강한 연관
- 유창성 (Fluency) -> 이해 (Comprehension) -> 자동화 (Automatic)
- 읽기 정확도 (Reading Accuracy) 문제 발생

Simos, Fletcher, Bergman, et al 2002

난독증이 있는 영재학생의 증상



- 일상생활에 매우 영리하고 총명하나 글을 읽기 싫어함
- 단어의 처음 반 혹은 마지막 반을 잘 못 읽거나 놓치며 시야의 한쪽 반을 무시하는 경향
- 비 단어는 정확히 읽지만 단어는 잘 읽지 못함 (표층성)

난독증이 있는 영재학생의 증상



- 단어는 잘 읽지만 비 단어는 잘 읽지 못함 (음운성)
- 읽으려는 단어대신 의미적으로 관련 된 단어들을 읽어 버림
- 의미 없이 읽기
- 읽고 문제 푸는 것은 어려우나 읽어 주면 잘 풀

뇌신경학적 문제로 발생하는 학습 부진(난독증) 검사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난독증 선별 체크리스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선행연구 사례를 참조했고,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측정요인과 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비조사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265명을 대상으로 했다.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SPSS 21.0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했고, 적합도를 얻기 위해 AMOS 18.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측정요인 8개와 문항 34개를 확보하였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신뢰도 통계량 (Cronbach α)는 .922로 매우 높은 값을 얻었다. 셋째,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절대적 적합지수 GFI=.920, RMR=.057, RMSEA=.062, 증분적 적합지수 CGI=.960, TLI=.977의 결과값을 얻었다. 이와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등학생 대상 난독증 척도검사 도구는 측정도구로써 적합함을 확인 하였다.

주제어 : 난독증, 측정도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과학 기술부는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많은 예산, 교사, 학습 보조 인력, 해당 전문가 및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2014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학습부진아의 수는 2012년에 2.6%, 2013년에 3.4%, 2014년에 3.9%로 계속 증가 하고 있다. 강옥려(2013)의 연구 보고에서 “학력부진 학생들 중에는 우울증, 인터넷, 약물중독, 우울증, 난독증, 경계선 지능, 아직 진단을 받지 않은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포함 되어 있고, 읽기 학습 부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난독증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 라고 언급했다. 이것은 학력부진의 원인을 난독증에서 찾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난독증을 보이는 학생의 읽기 능력은 다른 특수 교육 대상자들이 읽기 상황에서 보이는 문제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난독증은 성장과정의 학습 능력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국제난독증협회 (2002)에서 정의한 난독증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난독증이란 신경생리학적 원인에 의한 특정학습 장애로서, 단어인지가 정확·유창하지 못하고, 철자와 해독능력이 저조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다른 인지 능력 및 효과적인 교수의 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되는 수준보다 낮은 음운론적인 언어 요소의 결합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이차적인 결과는 어휘와 배경지식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읽기이해의 문제와 읽기경험의 감소이다.

위의 정의에 의하면 난독증은 단어인지와 철자 해독능력을 일반적 학습장애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뇌 신경학적 문제로 보고 있다. 그래서 효과적인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환경과는 무관하게, 뇌에서 음운론적 언어요소를 적절히 처리 하지 못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윤옥, 변찬석, 강옥려, 우정환(2014)은 뇌 신경생리학적 문제로 인한 난독증 연구에 대한 개척자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과 의사인 Samuel Orton이며, 난독증을 청지각과 시지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과 연관된 뇌의 특정부분의 기능적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증상으로 소개했다. 또한 Torgesen, Foorman, & Wagner (2007)은 난독증이 신경학적 원인에 기인한 특정 학습 장애로서, 학령기 이전에는 글자 재인문제, 철자문제, 글자해독 등의 문제를 보이며, 학령기에는 독해문제와 독서경험의 빈곤등으로 어휘 지식 및 배경지식의 훼손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미국 국제난독증 협회(The International Dyslexia Association, 2005)는 학술대회에서 난독증은 언어발달과 언어 습득에 방해를 하는 신경학적 장애로서,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의 활용 및 읽기에서의 음운론적 발달, 쓰기, 철자, 심지어 셈하기에도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으로 정의 하

였다. 즉 난독증은 학습환경, 자기주도 학습능력, 자기 효능감, 동기, 학습스타일등의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뇌의 신경학적 원인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사례를 통해 한국의 경우를 보면, 난독증을 읽기 학습 부진으로 단순화 하여 다룬다. 김미경, 서경희(2003)은 “읽기학습 부진학생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선수학습 요소의 결함으로 최저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말한다.” 라고 했다. 그 외 이옥경(1995), 서봉연(1989), 송종용, 원호택(1998), 김미경, 서경희(2003) 연구에서도 난독증과 읽기부진학생을 비교하여 언급한 사례나 신경생리학적 문제로 접근한 경우는 찾을 수 가 없었다. 난독증을 소개한 연구: 이홍재(1998), 최소영(2012), 김민정(2009), 최훈인, 장영진(2008)에서는 신경학적 접근을 다뤘지만 난독증이 읽기 장애로서의 선별도구, 진단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교육현장에서는 읽기학습부진, 학습장애, 난독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각각의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의 특징을 이해 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서 적절한 측정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조성호(2006)는 “난독증을 진단 치료하기 위해서는 난독증 검사도구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여, 외국의 검사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의 경우 사회문화적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의 검사도구를 그대로 들여오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고 했다. 2014년에 김윤옥, 강옥려, 우정현, 변천석에 의해 개발된 난독증 선별 체크리스트 표준화 검사도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중등학생들을 위한 검사도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래서 중등학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언어, 문화, 교육환경등을 고려해서 난독증 증상학생을 읽기부진, 언어장애와 구별하여 선별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개발된 측정도구는 타당도, 신뢰도, 적합도를 확보하여 난독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명확히 구별해 내야 한다. 현재 난독으로 인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의 정확한 결과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중등학생의 학습 부진아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 마련의 기초자료 확보에 중한 의미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학습장애아들 중 뇌신경학적 문제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기위한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특징들을 고려하여 뇌신학적 문제로 발생하는 학습부진(난독증)의 측정 도구를 만들려고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측정도구의 측정변인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여 적절한 요인들을 구성하고 있는가?

둘째, 본 검사도구는 예비검사에서 어느 정도 타당도, 신뢰도 및 적합도를 확보하였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난독증 (Dyslexia)의 역사 및 원인

최초의 난독증의 용어는 1878년에 독일의 신경과 의사인 Adolph Kussmaul가 “word blindness : 실어증”라는 용어로 사용했다. 그는 뇌손상으로 글을 읽지 못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칭했다. 1887년에 독일의 안과의사인 Rudolf Berlin이 “word blindness” 대신에 난독증 (Dyslexia)라는 단어를 처음 썼다. 난독증(Dyslexia)는 그리스어로 글을 읽지 못함을 의미 한다 (Critchley, 1964). 초기의 난독증의 원인은 유전적 발육부진이나 대뇌 각회부분의 구조적 기능 장애로 보았다 (Fisher, 1910). 미국의 뇌신경학자 Oretton은 그의 연구에서 언어 지연의 문제가 있는 환자들 중 많은 수가 양손잡이인 것을 발견했고, 단독철자나 단어속의 철자를 뒤바꿔 인지하기 때문임을 밝히며, 시각적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의 문제인 대뇌 좌우 우세성을 강조했다 (Javier, 2001). 뇌의 구조적인 차원에서 난독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측두엽과 두정엽 영역에서의 회백질 부위가 더 작다는 것을 발견했다. 회백질은 뇌에서 흔히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며 대부분이 신경세포로 이루어 졌고, 역할은 정보를 처리 하는 것 이다. 측두엽과 두정엽의 회백질은 언어의 소리 처리 즉 음운을 분석하고 인식하게 한다. 이 부분이 덜 발달되면 음운인식의 문제가 발생한다 (Hudson, High and Otaiba, 2007). 언어와 관련된 대뇌 좌반구와 우반구의 비대칭이 난독증과 관련 있다는 입장이 있다. 일반인의 64% 가량이 우뇌보다 좌뇌가 더 크다, 반면에 24%가량은 좌우뇌 용량이 모두 작다. 이런 비대칭은 언어의 정상적 발달에 영향을 주며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준다 (Geschwind, Levitsky, 1968). 또한 심리학자들은 난독증의 원인을 매우 다양하게 보았다. 특히 읽기, 쓰기, 철자의 인식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어려움을 보이는 증상으로 접근했다. 이런 난독증의 개념은 뇌 신경학적 문제의 환자들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실제 장기적으로 읽지 못하는 증상이 있는 많은 경우를 포함했다 (Shaywitz, Escobar, Fletcher, & Makuch, 1992). 난독증과 음운 인식의 이론에 의하면 읽기와 음운인식은 동시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난독증은 음운 인식에 어려움이 있어 구술 통합에 문제가 발생 하는 증상이다. 음운인식에 문제가 있으면 단기 기억 장애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난독증은 시각장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청각 장애가 원인이며 특히 음운인식 단계에 문제에서 발생한다 (Vellutino, 1979). Wolf(1984)는 난독증과 인지능력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눈으로 읽기와 소리 내어 읽기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난독증을 가진 사람은 정확하고 빠르게 글자를 인지하고 읽어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읽기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소리내어 읽을 때 연음으로 읽는게 아니고 분절음으로 읽기 때문이다. Lyon(1995)는 난독증이 비정상적 음운인식 단계로 인한 개별단어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개별 단어인식에 관한 문제는 예기치 못하게 연령, 인지 및 학습능력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논하는 발달 장애나 감각통합 장애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난독증 원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뇌 신경학적, 감각기능의 문제로 인한 원인이다. 관련 주장으로는 시각적 인식장애, 감각통합 문제, 안구운동이상, 시각 통합기능의 장애, 거대세포이론등 시각적 문제가 원인 이라는 주장이다. (Fischer, Liverman, & Shankweiler, 1978: Zigmond, 1966: Vellutino, 1977: Olson, Rack, Conners, DeFries, & Fulker, 1991: Newman, Wadsworth, Archer, & Hockly, 1985: Wilsher, 1985: Bishop, 1989: Lovegrove, Martin, & Slaghuis, 1986: Livingstone, Rosen, & Drislane 1991). 청지각적 이상이 난독현상을 유발한다는 입장은 1960년대 프랑스의 이비후과 의사인 Alfred Tomatis에 의해 제기되었다 (Tomatis, 1972). 그는 난독현상이 문어적 표현을 음운을 통해 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현상으로 설명했다. 불안정한 청지각적 문제들이 언어의 발달과 구어적 표현에 어려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Brady, Shankweiler, & Mann, 1983: Mody, StuddaertKenndy, & Brady, 1997). 뇌 생리학적 뇌 구조에 의한 문제로 난독현상이 발생한다는 입장은 1937년 Orton에 의해 제기 됐다. 관련 생리적 기관으로는 전정기관, 뇌량, 측두엽의 기능 및 신경구조의 이상이 원인이 되어 난독현상이 일어 난다는 것 이다 (Frank & Levinson, 1976: Njiokiktijen, Desonneville, & Vaal, 1994: Hynd외, 1995: Rumsey외, 1996: Duane & Gray, 1991: Filipek, 1995: Pennington외, 1999: Rumsey외, 1999).

두 번째, 인지적 문제가 원인인 경우이다. 인지 과정에서 정보처리 속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면 청·지각의 순간 감각을 인식 하는데 미세한 시간차가 생겨서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하여 읽기 과정에 더 많은 실수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그밖에 단기기억에 장애가 있거나 언어와 음운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등을 들수 있다 (Naidoo, 1972: Thomson, 1984: Cohen & Netley, 1981: Tallal, Miller, & Fitch, 1995: Orton, 1937: Liberman, 1971).

2. 난독증 측정도구의 구성요인

난독증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요인은 뇌 생리학적요인, 뇌 기능적요인, 신경학적 요인, 인지적요인, 청지각적요인, 시지각적요인, 운음인식적 요인등 다양한게 언급되고 있다. Harrie와 Waller(1984)는 남자우세성, 정상이상의 지능, 여가선용으로서 독서를 즐기지 못함, 단어 뒤집어 읽기, 좌/우 우세성, 언어기호에 대한 시지각적 기억 빈약, 단어 찾기에 청각적 언어 정보사용의 문제, 들은 정도를 문자로 바꾸는 문제, 새 단어의 발음문제, 어휘들의 유사성과 상이성 구별의 문제, 글자들의 발음구별 문제, 독해문제, 읽어서 들었던 것을 학교나 사회적용의 문제, 가족력등 총 14가지로 제시하였다. 국제난독증 협회(2002)는 배경정보, 지능, 구어기술, 단어재인, 해독, 철자, 음운처리과정, 유창성과 자동성, 독해, 어휘지식등 10개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난독증의 측정요소의 구성은 단어인식 (낱말재인), 빈약한 철자, 음운론적 처리문제, 구어문제, 독해문제, 어휘지식 문제, 배경지식문제, 작업기억(실행기능), 글자의 반전(두뇌의 좌우 우세성) 문제, 명명속도 (자동성과 유창성), 해호화(해독) 문제등으로 구성된다 (김윤옥, 변찬석, 강옥려, 우정환, 2014).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구성한 난독증 측정도구의 구성요인은 글자인식(낱말재인), 듣기와 말하기(구어기술), 쓰기, 지능, 읽기이해 및 읽기의 부수적 효과, 음운론적 처리과정, 자동성과 유창성, 대뇌좌우 우세성으로 나뉘었다.

Ⅲ. 연구 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은 뇌 신경학적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난독증의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행연구사례에 대한 분석, 김윤옥외 (2014)에 의해 개발된 초등학생 대상 난독증 척도개발 측정요인을 참고하고, 교육심리학 교수 2명, 중등특수교육 교수 1명, 난독증 관련 현장전문가 2명, 총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측정요소를 개발하였다. <표 1>은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난독증 척도 요인 및 문항을 구성한 내용이다. 총 8개의 측정요인과 3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표 1> 난독증 척도 요인 및 문항 소개

요인	No	문 항	ID
글자인식 (날말재인)	1	“ㄱ”과 “ㄴ” 또는 “6”과 “9” 등의 대칭되는 글자가 헷갈린다. (어려서 헷갈려 했다). 국제난독증협회 (2002)	L1
	2	“ㅏ”와 “ㅑ”, “ㅓ”와 “ㅕ” 등 획이 추가되는 글자가 헷갈린다. (어려서 헷갈려 했다). 국제난독증협회 (2002)	L2
	3	“가지”, “가기”와 같이 모양이 비슷한 글자가 헷갈린다 (어려서 헷갈려 했다). 국제난독증협회 (2002)	L3
	4	어려서 글자나 숫자를 거꾸로 쓰는 경우가 있다. (예; 이 → ㅣ ㅇ). 국제난독증협회 (2002)	L4
	5	다음절로 이루어진 단어, 낱설고 복잡한 단어들을 발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웰빙 파프리카 버거 등) 국 제난독증협회 (2002)	L5
듣기 와 말하기 (구어기술)	1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종종 있다. Tomatis, (1972)	S1
	2	말소리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어물거리는 경향이 있다. Geschwind & Levisky, (1968)	S2
	3	대화 도중에 엉뚱한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다. Geschwind & Levisky, (1968)	S3
	4	또래들과 어울리기 위한 대화를 잘 나누지 못 한다. Geschwind & Levisky, (1968)	S4
	5	상대방의 말을 다르게 알아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 Tomatis, (1972)	S5
	6	질문에 대한 엉뚱한 대답을 자주 한다. Tomatis, (1972)	S6
쓰기	1	생각을 말이나 글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서투르다. Shaywitz, Escobar, Fletcher, & Makuch, (1992)	W1
	2	단어를 쓸 때 글자를 생략, 대체, 첨가 또는 중복하여 쓴다. Shaywitz, Escobar, Fletcher, & Makuch, (1992)	W2
	3	들은 정보를 글로 표현하는 것이 힘들다. Shaywitz, Escobar, Fletcher, & Makuch, (1992)	W3
	4	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Shaywitz, Escobar, Fletcher, & Makuch, (1992)	W4
	5	일기, 시, 독후감 등을 쓰는 것이 힘들다. Shaywitz, Escobar, Fletcher, & Makuch, (1992)	W5
지능	1	집중하면 사물, 사람의 이름을 기억 한다. 국제난독증협회 (2002)	B1

요인	No	문 항	ID
	2	들은 내용은 기억난다. 국제난독증협회 (2002)	B2
	3	사물의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을 설명할 수 있다. 국제난독증협회 (2002)	B3
	4	지능은 정상 혹은 정상 이상으로 보이거나 또래 친구들에 비해 철자를 읽고, 쓰는 것이 서툴다. 국제난독증협회 (2002)	B4
	5	지능이 정상 혹은 정상이상으로 구두시험은 잘하나 필기시험은 잘 못한다. 국제난독증협회 (2002)	B5
읽기이해 및 읽기의 부수적 효과	1	책을 읽을 때 밝은 빛에서 책을 읽으면 눈이 쉽게 불편하다. Vellutino, (1979)	C1
	2	책을 읽고 나서도 내용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Vellutino, (1979)	C2
	3	문제를 읽어주고 풀게 하면 잘 맞는데, 직접 읽으면서 풀게 하면 잘 틀린다. Vellutino, (1979)	C3
	4	짧은 단락(문단)을 읽고도 이해가 안 된다. Vellutino, (1979)	C4
음운론적 처리과정	1	책을 읽을 때 잘 틀리거나, 줄을 건너 띄는 등 실수가 많다. Tomatis, (1972)	P1
	2	글을 읽을 때, 억양이 부정확 하다. Tomatis, (1972)	P2
	3	글을 읽을 때, 자음과 모음의 발음을 자주 틀린다. Tomatis, (1972)	P3
자동성과 유창성	1	책을 읽으면 이해는 잘하는데도 책 읽기를 싫어한다. 국제난독증협회 (2002)	A1
	2	글을 읽거나 쓸 때 유사한 단어를 혼동한다. 국제난독증협회 (2002)	A2
	3	책 읽기 속도가 느리다. 국제난독증협회 (2002)	A3
대뇌좌우 우세성	1	소음이 있으면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알아듣는 것이 어렵다. Javier, (2001)	G1
	2	어려서 신발끈매기, 젓가락질, 줄넘기 등을 배우는 것이 어려웠다. Javier, (2001)	G2
	3	똑같은 일 (예: 가위질, 젓가락질, 색칠 등)을 할 때, 어떤 때는 오른손을 또 다른 때는 왼손을 사용하며 어색하고 서툴다. Javier, (2001)	G3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대상은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Pilot 검사(예비조사)에 총 265명의 학생이 참석하였고 설문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회수된 설문 중 한 번 호에만 치중하거나 한 문항이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는 결측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265개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자 특성

구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합계
남	32	35	32	23	22	144
여	31	29	30	21	10	121
합계	63	64	62	44	32	265

예비조사의 결과는 측정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적합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SPSS 21.0과 AMOS 18.0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으로 적합한요인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 방법으로는 직교회전 방식 (varimax)을 채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남은 최종 문항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적합도를 추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서는 표본수에 영향을 받지않는 CFI, TLI와 RMSEA를 사용하였으며, 수용기준은 TLI와 CFI는 .90이상, RMSEA값은 .50이하로 하였다 (김계수, 2007).

IV. 연구 결과

1. 조사도구 검증 및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기 전에 수집된 자료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KMO의 표본 적합도 MSA 와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을 실시 하였다. 검정결과 KMO의 MSA 값은 .937로 높은 값이 나왔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은 5011.210($p<.001$)로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 본 자료를 대상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 하였다. <표 3>은 Bartlett의 구형성 결과값을 나타낸다.

<표 3>Bartlett의 구형성 결과값

KMO	Bartlett의 구형성검정 근사카이제곱값	자유도	유의확률
.937	5011.210	561	.000

위 결과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는 요인분석결과 요인적재량이 0.40이하인 4개의 문항을 제외한 총 34개를 탐색적 요인분석한 결과이다. 신뢰도 통계량은 Crombach $\alpha = .922$ 이고 각 측정요인별 신뢰도 통계량은 <표 4>에 제시했다. 요인분석결과 8개의 측정요인을 구성했고, 주요소의 이름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명명했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분산 설명력	신뢰도 (Crombach α)
글자인식 (날말재인)	L1	.858	.495	38.564	11.993	.867
	L2	.845	.841	6.591		
	L3	.811	.856	5.151		
	L4	.745	.794	4.008		
	L5	.525	.682	3.286		
듣기와 말하기 (구어기술)	S1	.799	.625	3.223	11.264	.857
	S2	.710	.638	2.856		
	S3	.692	.769	2.553		

	S4	.646	.674	2.468		
	S5	.626	.648	2.286		
	S6	.472	.707	2.096		
쓰기	W1	.787	.531	2.018	10.856	.865
	W2	.672	.644	1.912		
	W3	.617	.687	1.886		
	W4	.488	.783	1.816		
	W5	.479	.767	1.723		
지능	B1	.666	.615	1.570	8.999	.798
	B2	.572	.698	1.472		
	B3	.516	.594	1.392		
	B4	.505	.641	1.323		
	B5	.376	.659	1.293		
읽기이해및 일기의부수 적효과	C1	.617	.546	1.183	7.467	.778
	C2	.562	.621	1.117		
	C3	.520	.697	1.080		
	C4	.471	.681	1.047		
음운론적처 리과정	P1	.672	.590	.912	5.815	.718
	P2	.635	.617	.847		
	P3	.616	.684	.798		
자동성과유 창성	A1	.744	.682	.778	5.431	.672
	A2	.558	.619	.694		
	A3	.461	.753	.636		
대뇌좌우우 세성	G1	.687	.558	.550	4.408	.602
	G2	.626	.611	.505		
	G3	.486	.511	.369		
합계 (종합)	3	1.703	1.336	100	66.232	.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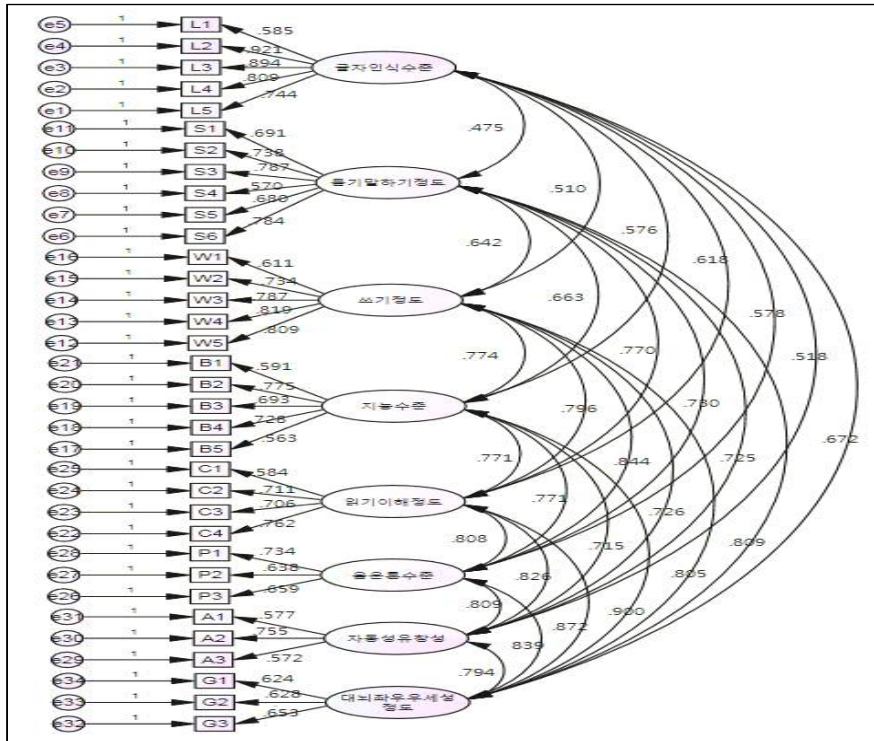
2. 측정 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해 도출된 8요인 모델에 대한 모델 적합도 검증을 위해 본 검사 자료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모델 적합도를 추정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일반적으로 절대적합지수 GFI는 0.90이상, RMR은 0.05이하, RMSEA는 0.05~0.08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고, 증분적 적합지수 CGI, TLI는 0.90이상에서 권장 된다 (김계수, 200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모델은 구성개념을 일관성 있게 잘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의 적합도 추정결과

모형	모수	χ^2/df	절대적 적합지수				증분적 적합지수	
			χ^2 (카이자승)	GFI	RMR	RMSEA	CGI	TLI
측정 모형	265	499	1013.471	.920	.057	.062	.960	.977

측정모형의 요인분석을 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요인계수 추정치는 .570~.921로 나왔고, 요인간 상관은 .475~.0920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난독증 측정도구 모형

개념타당성 분석결과는 표준화 계수값이 0.563이상이고, 결정계수 C.R.값은 7.131이상이며, 개념타당도 값은 0.775~0.945이고, 평균분산추출지수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_도 0.500~0.780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표준화 계수값이 0.50이상, 결정계수 (C.R.)>1.965,개념신뢰도는 0.70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AVE)는 0.50이상에서 개념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Nunnally & Bernstein, 1994). <표 6>는 본 연구모델의 개념타당성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표 6> 개념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비표준 화지수	S.E.	C.R.	P	표준화 계수	AVE	개념신뢰도
글자인식 ->L5	1.000				.744	0.780	0.945
(날말재인) ->L4	1.054	0.78	13.461	***	.809		
->L3	1.211	0.81	14.895	***	.894		
->L2	1.215	0.78	15.527	***	.921		
->L1	1.087	.115	9.443	***	.585		
듣기와 ->S6	1.000				.784	0.500	0.856
말하기 ->S5	.952	.085	11.154	***	.680		
(구어기술) ->S4	.664	.073	9.103	***	.570		

	->S3	1.116	.083	13.470	***	.787		
	->S2	1.012	.082	12.299	***	.738		
	->S1	.928	.083	11.177	***	.691		
쓰기	->W5	1.000				.809	0.566	0.866
	->W4	.984	.064	15.300	***	.819		
	->W3	.853	.061	13.917	***	.794		
	->W2	.753	.060	12.508	***	.734		
	->W1	.679	.067	10.183	***	.611		
지능	->B5	1.000				.563	0.511	0.885
	->B4	1.363	.161	8.489	***	.728		
	->B3	1.086	.132	8.207	***	.693		
	->B2	1.368	.156	8.758	***	.775		
	->B1	.823	.110	7.453	***	.591		
읽기이해	->C4	1.000				.762	0.513	0.807
맞일기의	->C3	1.133	.102	11.163	***	.706		
부수적효과	->C2	1.041	.094	11.101	***	.711		
	->C1	.949	.105	9.042	***	.584		
음운론적	->P3	1.000				.659	0.535	0.775
처리과정	->P2	.771	.086	8.970	***	.638		
	->P1	.931	.099	9.381	***	.734		
자동성과	->A3	1.000				.572	0.531	0.769
유창성	->A2	1.175	.150	7.318	***	.755		
	->A1	1.181	.166	7.131	***	.577		
대뇌좌우	->G3	1.000				.653	0.513	0.760
우세성	->G2	1.003	.137	7.318	***	.628		
	->G1	1.081	.148	7.320	***	.62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난독증 측정도구는 통계적으로 타당성 있고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2002년 국제난독증 협회에서는 난독증이 신경생리학적 원인에 의한 특정 학습장애임을 명시하고 있다. Schweizer(1974)는 난독증의 원인을 두뇌의 우세성 형성과 두뇌의 특정 부분의 비정상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언어 정보를 이동시키는 뇌 신경회로의 미세한 문제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해 난독증의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음운 인식능력의 문제로 말하기, 듣기, 행동표현 능력에 어려움을 가진다. 다른 사람들 보다 느리게 읽거나, 틀리게 읽고, 읽고 나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 또한 소리를 처리하는 청각정보처리 능력의 발달을 바탕으로 발달한 음운론적 모델의 발달에 문제가 있으면 문자 인식능력의 발달에 악영향을 준다.

그래서 글자 해독에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데 힘들어 한다. 그런데 국내에선 이런 증상들을 가진 학생들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난독증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 측정도구를 만들었다. 개발된 측정도구는 8개의 측정요인과 3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난독증 측정도구 구성요인 및 문항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은 글자인식(낱말재인)이고 국제난독증 협회(2002)의 정의를 바탕으로 재 구성 하였고, 5 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두 번째 요인은 듣기와 말하기 (구어기술)이고 Tomatis, (1972), Geschwind & Levisky, (1968)이론을 준거하여 재구성 하였다. 셋째 요인은 쓰기로 Shaywitz, Escobar, Fletcher, & Makuch, (1992)의 주장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지능으로 국제난독증협회 (2002)의 정의를 기준으로 만들었다. 다섯 번째는 읽기이해 및 읽기의 부수적 효과로 Vellutino, (1979)의 주장을 기준으로 재구성 하였다. 여섯 번째는 음운론적 처리과정으로 Tomatis, (1972)이론을 중심으로 제작하였다. 일곱 번째는 자동성과 유창성요인으로 국제난독증협회 (2002)의 정의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뇌좌우 우세성은 Javier, (2001)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성요인과 문항은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보 하였고,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뢰도, 타당도, 적합도를 모두 확인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은 측정도구의 개발을 하는데 예비조사의 데이터가 265개로 적고, 전국규모의 층화추출을 못한 점이다. 본 연구 이후에 전국단위의 중등 난독증 척도 개발의 표준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척도 개발이라는 점이다.

V. 제언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경생리학적 원인에 의한 난독증 증상이 있는 중등학생의 전국단위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난독증은 질병이 아닌 증상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흔히 보이는 현상이다. 조기에 발견하여 처치를 하면 학습부적응 학생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난독증을 치료할 수 있는 처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난독증의 인식을 단순한 읽기 장애에만 국한하지 말고 신경생리학적 문제에 기인하는 경우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추진하면 관내 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 증상을 줄이는데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첫째, 개발된 난독증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관내 중등학생의 난독증 청소년 현황파악을 실시한다.

둘째, 파악된 학생들을 위한 처치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신경생리학적 원인으로 난독증을 가진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사 연수를 진행한다.

넷째, 난독증 바우처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

다섯째, 위 훈련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위 과정을 연속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다.

참고문헌

- 김계수, (2007). 구조방정식모형분석. 서울 : 한나라.
- 이홍재 (1998). 난독증의 이해: 난독증의 분류와 평가. 한국심리연구, 17(1), 1-24.
- 최소영 (2012). 안구운동기법을 활용한 읽기 장애연구의 도입과 전망: 국내연구 현황을 중심으로. 학습장애연구, 9(1), 121-136.
- 김민정 (2009). 발달성 난독증에 대한 신경학적 연구. 특수교육연구, 8(2), 259-278.
- 최훈일, 장영건 (2008). 난독증 학습장애아를 위한 철자 및 음운의 청각-시각적 훈련 프로그램 연구. 2008년도 한국재활복지공학회 정기학술발표, 49-51.
- 이옥경(1995). 인지발달과 문자 및 언어 유형의 관점에서 본 난독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8(1), 80-94.
- 서봉연(1989). 학습장애 치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집, 21, 1-77.
- 송종용, 원효택 (1998). 한글독해장애 아동의 작업기억, 단기기억, 읽기 속도, 통사지식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71(2), 105-121.
- 김미화, 서경희 (2003). 읽기장애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과 읽기 유창성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19(4), 381-399.
- 강옥려 (2013). 성향 학습 부진학생들의 뇌영상적 진단 및 집행기능 중심 두뇌 훈련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토론 (PP117-1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ADHD 성향 학습부진 학생들의 뇌영상적 진단과 중재 프로그램 처치 효과 (ORM 2013-7) 연구보고서
- 김윤옥, 변찬석, 강옥려, 우정환 (2014). 난독증 선별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 학습장애연구, 11(2), 99-128.
- 김미경, 서경희(2003). 읽기장애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과 읽기 유창성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19(4). 381-399.
- 김애화, 김의정 (2006)은 “일반적으로 읽기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기본적인 읽기기술, 글자해독, 단어인지 및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읽기 유창성이 부족하고 독해력 및 읽기 이해점점 능력이 낮다.” 라 언급했다.
- 김애화, 김의정 (2006). 읽기 부진학생의 읽기 이해점점력 및 읽기 이해 특성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4), 101-119.
- 조성호 (2006). 난독증 검사기의 설계 및 구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7(5) 913-918.
- Bishop, D. V. M., (1989). Unfixed reference, monocular occlusion, and developmental dyslexia: a critique. British Journal of Ophthalmology, 73(3), 209-215.
- Brady, S., Shankweiler, D., & Mann, V., (1983). Speech-perception and memory coding in relation to reading-a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5(2), 345-367.
- Cohen, R. L., & Netley, C., (1981). Short-term memory deficits in reading-disabled children, in the absence of opportunity for rehearsal strategies. Intelligence, 5(1), 69-76.

- Critchley, M. (1964). Developmental dyslexia. London, UK: William Heinemann Medical Books Limited.
- Duane, D. D., & Gray, D. B., (1991). The reading brain: the biological basis of dyslexia. Parkton, MD: York Press.
- Filipek, P. A. (1999). Neuroimaging in the developmental disorders: The state of the sci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0(1), 113-128.
- Fischer, F. W., Liverman, I. Y., & Shankweiler, D. (1978). Reading reversals and developmental dyslexia-further study. *Cortex*, 14(4), 496-510.
- Frank, J., & Levinson, H. N., (1976). Compensatory mechanisms in C-V dysfunction, dysmetric dyslexia and dyspraxia. *Academic Therapy*, 12(1), 5-27.
- Geschwind, N., & Levisky, W. (1968). Left-right asymmetry in temporal speech region. *Science*, 161, 186-187.
- Harrie, R. P., & Weller, C., (1984). What is dyslexia ? : 1984 digest. ERIC Clearinghouse on Handicapped and Gifted Children, Reston, Va.
- Hudson, R. R., High, L. A., & Otaiba, S. (2007). Dyslexia and the brain: What does current research tell us ? *The Reading Teacher*. 60(6), 506-515.
- Hynd, G. W., Hall, J., Novey, E. S., Eliopoulos, D., Black, K., Gonzalez, J. J., (1995). Dyslexia and corpus-callosum morphology. *Archives of Neurology*, 52(1), 32-38.
- Lovegrove, W., Martin, F., & Slaghuys, W., (1986). A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case for a visual deficit reading disability. *Cognitive Neuropsychology*, 3, 225-267.
- Livingstone, M. S., Rosen, G. D., & Drislane, F. W., (1991). Physiological and anatomical evidence for a magnocellular defect in developmental dyslexia.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USA*, 88, 7943-7947.
- Liberman, I. Y. (1971). Basic research in speech and lateralization of language: Some implications for reading disability. *Bulletin of the Orton Society*, 21, 71-87.
- Mody, M., Studdaert-Kendy, M., & Brady, S., (1997). Speech-perception deficits in poor readers: Auditory processing or phonological coding?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17(2), 150-163.
- Naidoo, S., (1972). Specific dyslexia: the research report of the ICAA Word Blind Center for dyslexia children. NY: J. Wiley.
- Newman, S., Wadsworth, J. F., Archer, R. & Hockly, R. (1985). Ocular dominance, reading, and spelling ability in schoolchildren. *British Journal of Ophthalmology*, 69(3), 228-232.
- Njokiktjen, C., Desonneville, L., & Vaal, J., (1994). Callosal size in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Behavioural Brain Research*, 64(1-2), 213-218.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3rd ed.). NY: McGraw-Hill.
- Javier, G. G. (2001). The evolution of research on dyslexia. *Anuario de Psicologia*, 32(1), 3-30.

- Olson, R. K., Rack, J. P., Conners, F. A., DeFries, J. C., & Fulker, D. W. (1991). Genetic etiology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ding disability. In L. V. Feagans, E. F. Short, & L. J. Meltzer(Eds.), *Subtypes of learning disabilities*(pp 113-13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Orton, S. T., (1937). *Reading, writing, and speech problems in children*. NY: Norton.
- Pennington, B. F., Filipek, P. A., Lefly, D., Churchwell, J., Kennedy, D. N., Simon, J. H., & Filley, C. M., (1999). Brain morphometry in reading disabled twins. *Neurology*, 53(4), 723-729.
- Rumsey, L. M., Casanova, M., Mannheim, G. B., Patronas, N., DeVaughn, N., Hamburger, S. D., & Aquino, T. (1996). Corpus callosum morphology, as measured with MRI, in dyslexic men. *Biological Psychiatry*, 39(9), 769-775.
- Rumsey, J. M., Horwitz, B., Donohue, B. C., Nace, K. L., Maisong, J. M., Andreason, P., (1999). A functional lesion in developmental dyslexia: Left angular gyrus blood flow predicts severity. *Brain and Language*, 70(2), 187-204.
- Tallal, P., Miller, S., & Fitch, R. H., (1995). Neurobiological basis of speech: A case for the preeminence of temporal processing. *Irish Journal of Psychology*, 16(3), 194-219.
- Tomatis, A. A. (1972). *Education of dyslexia*. Paris: ESF.
- Thomson, M. E., (1984). *Developmental dyslexia*. Baltimore, MD: Edward Arnold.
- Torgesen, J. K., Foorman, B. R., & Wagner, R. K. (2007). *Dyslexia: A brief for educators, parents, and legislators in Florida*. FCRR Technical Report #8.
- Schweizer, I. T. (1974). Orton Revisited. *Reading Teacher*, 28(3), 295-297.
- Shaywitz, S. E., Escobar, M.D., Shaywitz, B.A., Flether, J.M. & Makuch, R. (1992). Evidence that dyslexia may represent the lower tail of normal-distribution of reading-ability.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26(2),
- Vellutino, F. R. (1977).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dyslexia-evidence in support of a verbal-deficit hypothesis. *Harvard Educational Review*, 47(3), 334-354.
- Vellutino, F.R. (1979). *Dyslexia: Theory and research*. Cambridge, MA: MIT Press.
- Wilsher, C. R., (1985). Dyslexia and monocular occlusion. *The Lancet*, 2(8460), 8883-883.
- Wolf, M.(1984). Naming, reading, and the dyslexias - a longitudinal overview. *Annals of dyslexia*, 34, 87-115.
- Zigmond, N. (1966). *Intersensory and intrasensory process in normal and dyslexic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asurement Tool for Students with Neurological Problems.

Song Hong Jun⁴⁾, Hyun Sang Tae⁵⁾, Lee Byeong Kwan⁶⁾

<Summary>

This study is to develop a dyslexia check list for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 To ensure the contents validity, researching related studies was conducted, and then factors and items were made under the 5 experts advisory. The pilot test was done on 265 students who are in middle and high school. To obtain the reliability, SPSS 21.0 was conducted a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to confirm the goodness of fit test, AMOS 7.0 was done a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results are as below, firstly, 8 measure factors and 34 items were ensured. Secondly, in exploratory analysis, Cronbach α =.920 was obtained, it was high value. Thirdly,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absolute fit index : GFI=.920, RMR=.057, RMSEA=.062 and incremental fit index : CFI=.960, TLI=.977 were ensured. Above results, the developed measurement tool for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 in this study was confirmed as a suitable one.

Key words : dyslexia, measurement tool.

4) Professor of Kyeon Yang University

5) Chairman in Korea Dyslexia Association

6) Professor of Dankook University

충청남도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 방안

발표자 : 현경숙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와 방안

교권의 개념, 교원의 권리와 의무, 교권침해의 유형 및 사례,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교권회복 대처와 방안 시사점 분석

송규행 (前충청남도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문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윤광희 (충남신문 대표)
현경숙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와 방안

- I. 서론
- II. 교권의 개념 및 교원의 권리와 의무
- III. 교권침해의 유형 및 사례
- IV.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 V.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와 방안

I. 서론

행복한 학교는 학생이 행복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사가 행복한 학교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열정과 사랑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충남교육청에서도 ‘충청남도 교원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하여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 관련 분쟁 발생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권보호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교원의 권리와 의무, 행동강령을 안내하고 교원 스스로 교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권침해 사례 및 유형별 대응절차, 관련 자료를 수록하여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교권보호를 위한 길라잡이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우리 교육현장은 교권위본(敎權僞本), 존사애제(尊師愛弟) 등의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은 중심을 잃어버리고 학생 및 학부모, 언론 및 사회 등에 의한 교권 침해 현상으로 교육 발전 저해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충남 학교정상화 연구회에서는 교권이 회복되어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확립하고 직무의욕을 고취하여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원회복을 위한 대처와 방안’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다.

Ⅱ. 교권의 개념 및 교원의 권리와 의무

1. 교권의 개념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다양화되면서 교사의 권리가 화두가 되고 있다. 권리가 무엇인가에 관해선 역사적으로 각기 다른 입장들이 있어 왔고, 법률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제학문적 입장에 따라 다루는 내용과 범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을 내리기 어렵고 몇 가지 특성에 따라 설명되어지곤 한다.

Hart(1979)는 권리를 특수권리와 일반권리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바 교사가 교직에 관계하면서 학생이나 학교당국에 대해 가지게 되는 것이 특수권리요, 교사가 특정교육집단 내 구성원으로서 부여되는 특수권리 이외에 한 인간이며 시민으로서 부여되는 자연권적 권리가 일반권리이다.

비슷한 분류로서 한 개인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위치권과 인권으로 교사의 권리를 설명할 수도 있다. 교사는 사회구성원이 그 사회에서 구체적 위치나 기능에 따라 사회제도와 규율에 근거하여 가지게 되는 권리와 사회적 지위·위치에 관계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이고 도덕적이며 당위적인 권리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교사는 일반인이 소유하는 기본적 인권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교직의 업무수행에 따르는 과외의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권리는 불간섭의 권리(자유권)와 복지의 권리로 분류할 수 있는바 교사의 권리도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의 자유권적 요소와 생활 및 신분보장, 근무조건 개선과 관련된 복지권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권(敎權)이란 ‘교원의 교육권과 교원의 권위’를 함축한 말로 교원이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뜻하며 교육자주권, 생활보장권, 신분보장권 등을 포괄적으로 이른다.

교권은 일반적으로 교육할 권리로서의 교권, 전문직 종사자의 권리로서의 교권, 인간으로서의 교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할 권리로서의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로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 등이 포함된다. 전문직 종사자의 권리로서 교권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률을 통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는 권리로 신분보장, 불체포 특권,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활동권 등이 포함된다. 인간으로서의 교권은 교사는 인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제한받지 않아야 할 권리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재판청구권, 노동권 등이 포함된다.

2. 교원의 권리와 의무

교권회복이란 단어가 화두가 되면서 교원의 권리에 대해 강조가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로 교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권리 뿐만이 아니라 교원의 의무도 함께 강조되어 교원 스스로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원의 권리는 교원이 전문적으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을 말하며, 교육자유권, 생활보장권, 신분보장권 등을 들 수 있다.

교 권	
교육자유권	교육 내용의 결정권(교육과정, 교재 선정), 교수과정의 결정권, 학생평가의 결정권, 학급경영상 결정권, 수업할 권리, 학생지도 및 징계권, 교육 자치권(지방자치, 학교자치, 학년자치, 학급자치)
생활보장권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최적의 근무여건 요구권, 최적의 복지혜택 요구권
신분보장권	신분보유권, 직무집행권, 불체포특권, 재심청구 및 행정소송권

교원의 의무는 교원의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말하며,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의무, 영리 및 겸직 금지 의무, 친절·공정 의무, 비밀엄수 의무, 청렴의무, 품위 유지 의무, 청지활동 금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교원은 교원의 의무를 준수하며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교원은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 대상이 되어 교권은 보호받을 수 없다. 교원의 의무 유형과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의무 유형	위반 사례
성실 의무	공금횡령, 유용 및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시험문제 유출, 학생성적 조작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복종 의무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킨 경우 등
직장 이탈 금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직장 이탈, 무단결근 등
영리 및 겸직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 기관장의 허락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친절·공정 의무	민원업무 등 대국민 업무 처리의 불친절 등
비밀엄수 의무	비밀의 누설, 유출,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개인정보 무단 조회, 열람 및 관리 소홀, 비밀분실,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유기, 방치 등
청렴 의무	직무상에 관계가 있든 없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등
품위유지 의무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음주운전 등
정치활동 금지 의무	특정 정당, 특정인 지지 또는 반대 행위 등
집단행위 금지 의무	공무 외의 집단행위 등

Ⅲ. 교권침해의 유형 및 사례

교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권침해의 유형 및 사례를 분석하여 적극적인 예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교권침해의 유형

‘교권침해’란 교원의 법적, 사회적, 윤리적 권위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교권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직접적 원인은 학생 및 학부모, 교육당국, 언론 및 사회 등이 직접적으로 교육 행위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적 원인은 교원의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교육환경을 둘러싼 제 요인에 의해 침해 및 무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교권침해의 유형에는 일반적으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교육행정기관·학교행정 관계자·동료교사 등에 의한 교권침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다.

구분	교권침해 유형	
학생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교원에 대한 위협
	•교원에 대한 성희롱	•재물 손괴
	•수업 방해	•사이버 매체 폭력
	•명예 훼손	
학부모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고발
	•안전사고	•재물 손괴
	•수업 방해	•교원에 대한 성희롱
	•사이버 매체 폭력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 관계자 동료교사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고발
	•안전사고	•교원에 대한 성희롱
	•사이버 매체 폭력	

2. 교권침해의 사례

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

질 문

학생에게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수치심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담임의 전출을 요구할 때의 대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 변

징계방법으로 체벌은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학생 체벌 후에 교사가 취해야 할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체벌학생 및 학부모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준다. 이때 동료 교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목격자 진술 및 경과일지를 작성한다. 벌을 받게 된 상황과 체벌을 가한 방법, 정도 등을 상세하게 포함되도록 한다. 그래도 부당한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도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상근 변호사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질 문

교사가 지도과정에서 가벼운 체벌을 한 것에 대하여 이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협박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변

가벼운 체벌이라 할지라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즘 판결 추세이다. 하지만 교사가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정도를 넘는 요구나 부당한 협박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학생 체벌 관련 교원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사건 경과일지 및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후 학부모에게 체벌의 동기와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후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확보한다. 사안이 확대될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도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상근 변호사 협조 요청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질 문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답 변

지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교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의 어떠한 보호도 받기 어렵다. 교사의 과실에 따른 세 가지의 책임이 따르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구분		책임질 부분	책임을 묻는 주체	기 타
교 사 의 책 임	민사	학생 치료비, 학생과 가족에 대한 위자료	학부모가 교사(교육감) 대상으로 소송, 교육감이 교사에게 구상 청구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 배상
	형사	업무상 과실이나 폭행 등에 대한 형사 처벌	학부모의 고소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
	행정	성실의무 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	교육감 직권	

질 문

학생이 교사에게 여러 학생들 앞에서 욕설과 폭언, 폭행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여 선도위원회 개최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심각한 피해 발생의 경우 교권보호지원(콜)센터에 지원 요청한다. 또한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

질 문

교사의 행동을 허락 없이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협박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여 선도위원회 개최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심각한 피해 발생의 경우 교권보호지원(콜)센터에 지원 요청한다. 또한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

질 문

수업을 고의로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계속적인 지도 불응으로 인해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학생은 학교에서 선도위원회 등 단계적 조치의 지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도가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Wee 센터의 각종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다.

※ 학교 내 노력보다, 무작정 학교 밖 Wee센터 등 각종 상담센터 의뢰 지양

질 문

학생이 지도(징계)에 불응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비행 등으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선도위원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도가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Wee 센터 및 각종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원인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폭행·재물손괴 등 비행정도가 심하고 징계, 상담 등 지도에도 불응할 때에는 학교장 통고제도를 통해 소년보호재판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질 문

학생이 선생님에게 위협을 가했을 때 폭행죄에 해당하나요?

답 변

폭행죄는 상해죄와 달리, 어떠한 결과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판례 역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판례】 대법원 1990.2.13. 선고 89도1406 판결

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

■ 학부모의 담임교사 불신 및 협박

사 례

2006년 9월 8일, △△학교 ○○교사 반대표 학부모가 전교 자모회장 등을 통해 ○○교사에 관한 탄원 내용을 학교장에게 제출 함.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 과제분량을 많이 내고, 받아쓰기 등 수업강도를 높인 것에 대해 학생들이 불만을 품고 자기 부모에게 담임교사에 대한 과장된 정보와 불만을 토로하자 학부모는 학생들의 말만 믿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담임교체를 요구함. 또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학부모 서명을 받아 교육청에 진정하겠다고 협박함

처리결과

학교 측은 담임교사를 2007년 2월까지 질병휴가 처리, 담임교사가 원하는 경우 희망 전보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담임교사는 이를 원치 않았으며, 이후 학교가 학부모와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해결

■ 학생지도에 불만인 학부모가 교사 폭행

사 례

2008.7.3. 담임교사가 기말고사 시간에 3학년 A학생의 수험태도가 바르지 못하여 훈계하자 불만을 품고 학생이 학부모에게 교사의 잘못만을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가 여러 기관에 진정서를 냄. 이후 일단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화해하였으나 2학기 개학 후 수차례에 걸쳐 A학생이 수업에 불참하거나 늦게 들어와 담임이 지도하였지만, 학부모는 도리어 학생을 방치하였다고 주장함.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에게 담임교체를 요구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학교장이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교장실의 집기를 던지며 폭행을 가함

처리결과

담임교사는 교권침해(폭행, 폭언)로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하여 2009.02.18. 학부모는 공무집행 방해 및 공공기물 파손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음

■ 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 및 형사고발

사례 1

2012.03.08.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A학생 할머니가 교실로 찾아와 B학생이 손자를 째려본다고 항의하자 C학생이 거짓말이라며 우유팩을 던지며 거칠게 항의함. A학생 할머니는 이 학생들을 다른 반으로 보내지 않으면 손자를 등교시킬 수 없다며 B, C학생을 교실에서 끌어내기 위해 강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해 J교사가 출입문을 막아서며 A학생 할머니의 목도리를 잡자 목을 졸랐다고 주장하며 고함과 난동을 피움. A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형사고발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함

처리결과

학부모가 교사를 형사고발 한 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교사는 학부모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

【관련법규】 「형법」 제156조(무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등

사례 2

A교사가 B학생의 두발상태를 점검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뒤쪽 머리카락을 잡는 모습을 복도를 지나던 B학생의 학부모가 이를 목격함. B학생의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만 차별하여 두발지도를 한다고 격분하여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먹으로 A교사를 폭행하여 A교사가 B학생의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함

처리결과

검찰청에서 본건에 대하여 B학생 아버지 벌금 300만원, 어머니 기소유예로 범죄처분 결과 통보하였으며 A교사가 B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례 3

2012년 학부모가 지각한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데려다 주러 왔다가 딸이 담임교사(여, 52세)를 무서워하며 피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담임교사의 어깨와 팔, 허벅지 등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여 담임교사가 학부모를 고소함

처리결과

상기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합의하여 재판부에서 정상을 참작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에 재범하여 징역 4월에 처하여 항소하였으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교권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원심의 양형이유를 수긍한 사건임

【관련법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학교폭력 중재 중의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 사례

사 례

2010년 9월 8일, 모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학생간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자기자녀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데 앙심을 품고 A학생의 학부모와 할아버지가 학교를 방문했고, 할아버지가 분에 못 이겨 폭언과 함께 준비해 온 달걀로 B교감의 머리를 폭행함. 이에 동료교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까지 동원되는 사태가 발생함

처리결과

00경찰서 조사과정에서 학부모가 교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향후 부당하게 학교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B교감 측에서도 학생의 폭력적인 행동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례

사 례

부산지방법원 2009.11.4. 선고 2009고정2091판결에 의하면, 학부모는 교사 C에게 폭행을 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며, 교사 C의 학교 수업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하였음

처리결과

판결에 의하면, 학부모는 교사 C에게 폭행을 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며, 교사 C의 학교 수업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교사 C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학부모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임

【관련법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교원의 명예훼손 피해

사례 1

2011.11.7. 학부모가 A교사에게 초등학교의 체육대회 날 이어달리기 프로그램 진행시 B학생이 어떤 교사로부터 머리를 맞아 일요일까지 머리가 아프다며 어떤 교사인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함. 다음 날 이 학부모는 학교로 전화해 사실여부 확인도 없이 A교사의 사과 전화가 없는 것에 대해 폭언을 하고, 교장과 면담함. 이후 A교사가 사실 확인 없이 사과전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학부모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A교사의 얼굴에 생수병을 들이 밀고 샅대질 하면서 “교사가 무슨 봉사직이냐?, 월급 받고 일하면서 학부모가 전화하라고 하면 전화 할 것이지 무슨 말이 많으냐!”며 소리침. 다른 교사들이 상황을 만류하기 위해 교실에 들어 오려하자 A교는 교사들을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지 말아달라는 표현으로 교실 뒷문을 잠그자 학부모가 감금당했다며 A교사를 고소하고 다양한 방법(방송 등)으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함

처리결과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교사가 학부모를 맞고소하여 학부모 잘못 인정 및 자녀 자진 전학이 추진되었고, 교사는 고소를 취하함

【관련법규】 「형법」 제156조(무고),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사례 2

2011.3.20. 초등학교 학부모 총회가 열려 B학부모와 C학부모가 자원하여 어머니회 공동대표로 선출됨. 이후 A교사는 ‘칭찬왕&벌칙왕’ 상벌제도를 운영해 오던 중 B학부모는 자녀가 벌칙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교사의 사심이 반영되었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A교사가 학생들을 학대하고 체벌을 일삼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림

처리결과

A교사의 교육적인 학생 상벌제도 운영에 자녀가 벌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곳곳에 민원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경찰에 고소까지 하여 교사로서 하여금 심신을 매우 지치게 만든 것은 전형적인 교권 침해사안임

【관련법규】 「형법」 제156조(무고), 제370조(명예훼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학생 간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학부모의 교사폭행

사 례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A교사가 B학생의 담임을 맡고 있던 기간 중 B학생은 C, D, E학생에 의해 집단 괴롭힘을 당함. 2008년 3월, B학생의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와 집단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말하면서 가해자의 사과를 요구해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시키고 화해시킴. 이후 B학생의 어머니와 누나가 다시 학교를 찾아와 학생의 아버지는 본인들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사건 처리를 부탁함. 이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을 징계하고,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치료비를 공동 부담하도록 결정함. 그러나 B학생 어머니가 다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학교를 방문하여 항의하면서 A교사를 폭행하였고, 이후 이모라고 주장하는 여자와 남자 1명이 경찰에 연행됨. 학생과 어머니, 누나는 A교사 외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함

처리결과

학교폭력 가해자(친권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으나, A교사가 학교폭력의 은밀성, 사건을 인지 후 학교와 교사의 조치 등을 감안해 1심과 2심 모두 면책 판결을 받음
【관련법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형사 소송 제기

사 례

2005년 3월, 초등학교 A학생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지도 중인 B교사에게 자신은 “국제적으로 잘 나가는 법무사”라고 말하며 자신의 자녀가 학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학습지를 달라고 요구하여 B교사가 교실에서 기다리라고 함. B교사는 학생지도 후 교실로 갔으나, A학생 학부모가 자신을 오래 기다리게 했다고 항의 하며 실랑이가 벌어짐. 이때 교실에 남아 있던 다른 학부모들이 ‘A학생의 학부모가 B교사에게 사과하라고 말을 하며 앞을 가로 막음’ 이것을 이유로 A학생의 학부모는 B교사 및 학부모 4명을 감금죄로 경찰에 고소함. 이후 중재를 위해 C교장이 개입했으나, C교장의 감정을 상하게 한 뒤, 녹취하여 C교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함

처리결과

B교사는 형사소송으로 피소되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충격으로 퇴직함. 중재하려던 교장도 벌금20만원 처분. 이후 2학년, 3학년 담임교사들도 민사소송에 피소되었으나 무혐의로 종결됨(2005년~2010년까지 진행). A학생 학부모의 무분별한 고소 및 소송제기로 많은 교원들이 상처를 받음

【관련법규】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 제156조(무고) 및 제370조(명예훼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등

■ 학부모의 학생체벌에 대한 부당행위 및 금품 요구 사례

사 례

모 초등학교 교감이 운동장에서 술래잡기를 하느라 1시간 이상 수업을 비운 3명의 학생에게 1차례씩 군밤(학습지도용 막대)을 줌. 다음날 군밤을 맞은 A학생이 머리가 아프다며 인근병원에 입원하여 MRI 촬영을 함. 촬영결과 이상소견이 없고, 평소 치료 받던 축농증 증세만 나타났으나 A학생은 계속 입원함. 20여일 후 A학생 학부모가 학생의 입원비를 요구하였고, 교감은 도의적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불하였으나 학부모는 만족하지 못하고 치료비 외의 금액을 계속 요구하여 거절함. 이후 학부모는 교감을 폭행혐의로 고소하였고, 교감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이후 학부모는 교육청, 교과부 등에 계속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함. 학부모는 교감을 상대로 5,500만원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함

처리결과

모 초등학교 교감의 교육적 지도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A학생 학부모는 무리한 보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수차례 걸쳐 무고성 민원을 제기하고, 다른 학부모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였음

【관련법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학생 간 다툼에 대한 교사 책임추궁 사례

사 례

2012.6.7. 특수학생인 B군은 같은 특수학생 C군과 말다툼을 하여 A교사가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주변 학생들은 C군 편에 가담하여 B학생은 원래부터 그렇다며 외면함. 특수학생끼리의 싸움을 B군 어머니는 A교사가 주도하여 왕따를 지시하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함. 이후 학부모는 00장애인부모연대 지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A교사는 상세 불명의 위십이장염 통증을 진단 받음

처리결과

위와 같은 사례는 특수학교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로, 대부분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편집증적인 과잉보호로 빚어진 경우에 해당됨. 이후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종결됨

【관련법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피해 사례

사 례

2010.6.1. 초등학교 후문 쪽 비탈길에서 위험하게 공놀이를 하고 있어 A교사가 “그쪽은 차도가 있어 위험하니 계속 놀면 공을 압수하겠다.”고 학생들을 지도함. 그런데 B학부모가 본인의 자녀한테만 “왜 이쪽에서 공놀이를 하느냐, 공을 찢어 버리겠다는 등 위협적으로 야단을 쳤고, 다른 교사에게 자녀의 흉까지 봤다”고 주장하며 A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자를 00초등학교 교장, 교감, 담당 장학사에게 발송함. B학부모는 A교사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발송하는가 하면, A교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다른 학부모에게 허위문자를 보냄. B학부모는 인권위원회에 아동학대로 A교사를 제소함

처리결과

B학부모의 인권위원회 제소는 기각 처리되었고, A교사의 B학부모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학생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 B학부모의 행동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교권침해이며, 법적 대응(형사고소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필요한 사안임

【관련법규】「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학생체벌로 인한 학부모의 교사 형사고소 사례

사 례

2009.6.2. 모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귀가를 위해 집결하던 중 B학생이 타 학교의 C학생을 데리고 와서 담임교사에게 같이 태우고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임교사는 안전상의 이유(타 학교 학생에 대한 보험 미가입)와 학교 공식행사인 점을 고려하여 곤란하다고 B학생의 요청을 거절함. 이에 B학생은 거칠게 반항하며 버스에서 하차하여 버스 밖에서 담임교사와 B학생간의 실랑이가 벌어짐. 이후 강제로 버스에 태워진 B학생이 버스에서 내리겠다고 반발하면서 “아이 *발 왜 안 보내 주는 데 *발” 등의 막무가내 식의 언행을 하면서 반항함. 이에 A교사는 B학생의 뺨을 2대 때리고 엄하게 꾸짖자 학부모가 상해죄로 고소함

처리결과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을 체벌한 행위에 대한 문제는 있으나, 외부장소여서 학교규정에 정하는 체벌도구가 없었던 점과 여러 학생을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담임교사 및 체벌교사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림

■ 학부모와 친인척들의 담임교사에 대한 욕설과 협박 사례

사 례

A학생이 B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이 여러 차례 발생했으나, 학교 측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B학생의 부모와 친인척들이 매일 학교로 찾아와 담임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여 담임교사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함

처리결과

담임교사는 욕설과 협박 행위를 자제할 것을 경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에 따른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관련법규】 「형법」 제311조(모욕죄), 제283조(협박죄),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0조(불법행위)

■ 학부모의 부당,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교직원의 스트레스 사례

사 례

딸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으며, 담임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 수치심을 주어 따돌림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는 나이 많은 조모의 말만 듣고 학부모가 수시로 경찰을 대동하고 학교에 와서 자신의 자녀가 담임교사에게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항의하는 등 연중 지속적으로 담임의 업무진행을 방해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처리결과

학교에서는 집단따돌림이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 보호자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요청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를 즉시 조치할 수 있음. 학교의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자들이 학교에 찾아와 욕설과 협박 등을 계속한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담임교사에 대한 보호 강화 필요

【관련법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교사와의 대화내용을 녹음, 기록하는 등의 침해사례

사 례

학부모가 피해학생의 근거 없는 자필 기록이나 가족끼리의 녹음을 근거로 교사에게 가해학생의 징계를 요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만약 피해학생이 자살 등 예기치 않는 사태가 발생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대화내용을 녹음, 기록하는 등 증빙자료 수집을 교사가 보는 앞에서 함

처리결과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들에게 적절한 절차에 의한 처리 될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요청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 즉시 조치할 수 있음. 학교의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자들이 학교에 찾아와 녹음과 기록 등 교사가 보는 앞에서 버젓하게 한다면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그래도 계속한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담임교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관련법규】 「형법」 제283조(협박죄)

■ 피해학생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사건 경위서를 요구한 사례

사 례

A학생과 B학생이 다투어 B학생이 상해를 입음. 화가 난 B학생의 보호자가 A학생을 고소하고자 담임교사를 찾아와 사건 경위서와 의견서를 써달라고 함. 이에 응하지 않자 담임도 책임이 있으니 교육청에 알리는 등 '가만있지 않겠다고 계속 경위서와 참고인 진술서를 요구함

처리결과

B학생의 보호자가 고소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담임교사에게 사건 경위서나 의견서를 써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음. 또한 담임교사가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가해행위를 목격한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 줄 의무도 없음. 다만, 학폭법상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보호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담임교사에게 사건 경위서나 의견서를 써달라고 요구할 경우, 형법상의 협박죄와 강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해당할 수 있음

【관련법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

■ 피해학생 친인척이 휴대폰으로 교사에게 욕설·협박한 사례

사 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친척이라는 사람이 학생부장이 경찰서에 가서 '별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런다'고 얘기했다고 하며, 하지도 않은 얘기를 제3자를 통해 듣고 휴대폰으로 "XXX야! 지금 학교로 갈 테니 꼼짝 말고 있어"라고 여러 번 협박한 사례(당시 학생부장이 통화내용 녹음)

처리결과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모욕감을 주는 언동을 하였다면 사건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강력한 법적대응을 해야 할 것임

【관련법규】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83조(협박)

■ 학생지도에 불만인 학부모의 협박 및 명예훼손

사 례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A교사는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 자율학습 시간에 을군이 공부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 전체 분위기를 흐뜨려 놓아 화가 나서 반 아이들 앞에서 을군에게 훈계를 하고 반성문을 써오게 함. 며칠 후, 을군 아버지가 교무실로 들어와서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A교사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함. 그 후 간혹 A교사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난 을군 아버지가 A교사는 모범생과 그렇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차별하는 교사라는 취지로 을군을 나무랐던 사실과 이제까지 자신과 선생님 간에 있었던 일을 자신의 입장에서 과장하여 기재한 유인물을 교문에서 배포함. 또한 A교사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하였으나 A교사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교실 문을 걷어차고 들어와 연성을 높이고 A교사의 먹살을 잡고 흔들

처리결과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교사를 모욕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과장하여 기재한 유인물을 출력해서 배포하고, 협박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냈으며,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방해하여 교권을 침해함

【관련법규】 「형법」 제311조(모욕), 제283조(협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307조(명예훼손)

다. 학교 안전사고에 의한 사례

■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 1 2008.7.3. 모 초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였고, 해당 담임교사는 인솔자의 역할로 학생들을 인솔함. 담임교사는 점심식사 후 안전교육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30분의 여유를 두고 학생들에게 준비운동을 실시함. 이후 현장 체험학습장 어린이 수영장에서 A학생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119에 신고하고 안전교원이 응급처리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익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명됨. 이후 A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 고소함
처리결과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인솔자의 역할이기는 하나 예측가능한 사고가 아니며,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주의·감독의무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 사후조치에도 만전을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교사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형사고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짐 【관련법규】「형법」 제267조(과실치사)
사례 2 모 초등학교 4학년 198명을 6명의 교사가 인솔하여 전쟁기념관에 현장체험학습을 감. 점심시간에 일찍 식사를 마친 학생이 전차 위에 올라가서 원형 출입을 들어 올려 내부를 보다가 갑자기 문이 닫혀 손을 다침
처리결과 학생 퇴원(100만원 위로금 전달, 퇴원비 976,431원). 전쟁기념관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약속하였으나 보험사 측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를 근거로 피해학생, 학교, 전쟁기념관의 분담요구 및 수차 변경된 조정안을 통보하였으나 학교, 학부모의 반대로 합의 실패. 이후 보험사에서 보험금 17,200,280원을 피해학생의 학부모에게 지급하며 일단 종결함

사례 3

2002년 4월 25일, 00특수학교 학생들의 현장 학습 중, A학생이 제방 독에서 떨어진 것을 C교사가 발견하여 B교사(담임교사)에게 인계함. 두 교사가 학생의 부상여부를 살펴보고 이상이 없자 일과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종료함. 수업 후 학생 연락장에 사건내용을 적고 발견치 못한 상처 등이 있는지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연락장을 학생생활관리 보모(학생은 기숙사에서 생활함)선생님에게 전달함. A학생의 부모는 졸업사은회 자리에서 한 교사가 "A학생 사고가 있었지만 다치지 않아 참 다행이다"라는 말을 듣고 사고를 처음 알게 됨. 이후 A학생의 부모는 동사고로 인하여 A학생이 실명되었다고 주장하고 형사 고발함

처리결과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사건 종결함. 이후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상대로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사건으로 실명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관련법규】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교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 례

2004.11.13. 09:00경 J교사는 일부학생(초등학교 4학년생)들에게 교실을 정리 정돈하라고 지시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데리고 교내봉사활동을 나간 이후, 교실에서 학생들이 앞 다투어 창밖에 있는 마대걸레를 잡으려 하다가 한명이 3층에서 떨어져 팔과 다리가 분절되는 큰 사고가 발생함

처리결과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가 턱없이 부족하자, 이를 거부하고 간병인 인건비와 치료비, 과도한 정신적인 피해배상액(5,000만원)을 학교 측에 요구함

■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 1

2001.6.29, 체육시간에 축구경기 중 골키퍼인 학생이 골 크로스바에 매달리다가 떨어져서 음낭 부위를 다침(담당교사는 여학생의 피구(避球)지도 중이었음)

처리결과

2주간 치료 후, 정상적으로 학교생활하고 있으나 피해학생 학부모는 상처부위의 재발을 고려하여 치료비 외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학교 측에 각서를 요구함. 치료비 외에 더 이상의 요구 없어 종결 처리됨

사례 2

2004.10.20. 모 중학교의 과학시간에 화산분출모형실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영상을 통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실험장소인 운동장으로 이동하여 안전구역을 지정한 후 실험을 실시함. 안전구역 내 모래밭에 모래를 산 모양으로 쌓아올리고 꼭대기에 2~3cm 가량의 구멍을 만들어 실험재료를 넣고 심지를 만들어 불을 붙이는 실험반응을 실시하였으나 반응이 일어나지 않음. 이에 심지 부분을 통해 추가적으로 알코올을 떨어뜨렸으나 '퍽'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붙게 되었고 바람이 불어와 A학생 외 3명의 학생에게 불이 옮겨져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함. 담임교사는 사고이후 A학생 외 3명을 인근 병원으로 바로 후송조치하고 입원시킴

처리결과

A학생은 이 사고로 인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약 46,000,000원을 지급받았고, 00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공동으로 모금한 금액도 일부 받음. 이후 담임교사는 충격으로 인해 우울증과 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이 감퇴되고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도저히 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명예퇴직 후 요양 중에 있음

【관련법규】「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축제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사 례

2005.11.04. 모 고등학교 축제기간 중, A학생이 칵테일 쇼의 일환으로 불쇼를 하다가 불이 꺼지지 않아 화상을 입음. 00학교에서는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A학생을 이송함. 이후 A학생은 둔부 및 하지의 2~3도 화상에 대한 피부이식 수술을 받음. 이후 총 15회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음. A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이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처리결과

법원 판례상 학교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의 범위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짐. 500만원에 화해 조정됨

【관련법규】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급식시간 배식차 운반 중 상해 발생

사 례

2002. 4월 중순, 점심시간에 급식당번 학생 2명이 배식차를 교실로 몰고 오는 중(담임교사는 교실에서 급식준비 및 안전 지도), 서로 장난을 치고 오면서 뒤에서 밀던 학생이 썬บอร์ด 타듯이 배식차를 지그재그로 운행 함. 신발장으로 배식차가 밀려서 피해자 학생의 왼쪽 손톱이 잘려 나감

처리결과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조치 후 수술하여 치료 함. 학부모는 배식 방법과 급식조구성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담임교사에게 책임 등을 요구함. 그 후 가해자 학부모와의 합의로 담임교사 피해 없이 종결 됨

라. 교원 및 교육행정기관(사립학교)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

■ 정상적이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징계

사 례

2011.03.03. 고등학교에서 2명의 학생이 수업시간에 다른 반 친구의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교사는 두 학생을 수업 종료 후 학생인권부로 인솔하여 지도를 하던 중 지도받는 태도가 불량하여 주의를 집중하고자 체육 치료로 엎드려뺨치기를 시킨 후 머리를 1회 누르며 훈계(4~5초간 실시)하고, 일으켜 세운 뒤 볼과 옷깃을 1차례씩 잡고 흔들며 잘못에 대해 훈육함. 이후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항의하고 00방송 인터넷 뉴스로 관련 기사를 게재하게 한 후, 언론 기사를 00교육청 자유게시판에 복사하여 올림. 이후 교육청 감사과에서 조사하여 엎드려뺨치기 행위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함. 00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교사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함

처리결과

이후 결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취소' 처분을 결정함

<참고자료>

2011.03.01. 교육부는 도구와 신체에 의한 직접체벌은 금하되 교육적 체벌(훈계, 훈육 등)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해 시행여부와 방법을 위임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실상 간접체벌(교육벌)을 허용한 바 있고, 해당학교 학교생활규정에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생의 교육과 생활지도를 위한 교육절차(이해, 상담, 훈계)를 다한 후에 교육치료를 할 수 있고, 교육치료에는 오래달리기, 등반활동, 기체조 등 체육치료가 가능토록 되어 있음. 또한, 교육치료대상은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갈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학생태도가 불성실하여 꾸준한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학습 지도권을 방해한 행위 ▲남의 권리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A교사의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학칙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이고 정당한 교육활동이자 학생지도임

【관련법규】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동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비례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징계권 남용 피해

사 례

2006.03.20. A교사는 00학교 재단으로부터 2005년 2차례 제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성희롱)을 하여 교사로서의 품위유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1차 징계)처분을 받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감봉3월 처분취소' 소청 심사를 청구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의 하자(징계 내용 불 명료)의 사유로 '감봉3월처분취소' 결정함. 이후 00학교 재단은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하였고 해당교사는 "해임처분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의 하자로 '해임처분취소'를 결정함. 이후 00학교 재단은 1차 징계 사유와 추가 징계 사유를 포함하여 다시 '해임'(3차 징계) 처분을 함.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대신 '감봉 3월'로 결정함. 00학교 재단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임처분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함. 00지역 행정심판에서 재단의 '해임처분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처리결과

성희롱이란 이성을 상대로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하고, 법률적으로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등)임.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하여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본 사건은 이런 비례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가면서 00학교 재단이 A 교사를 교단에서 내몰려는 의도로 사립학교 재단의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됨. 현재 A교사는 00학교에서 근무 중임

【관련법규】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및 제58조(면직의 사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등

IV. 교권보호를 위한 기구 및 제도

교권보호를 위한 기구 및 제도로 학생지도와 징계, 교원보호위원회, 교원소청심사제도, 고충심사위원회,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들 수 있다.

1. 학생지도와 징계

⇒ 「초·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의 징계)에서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규정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1회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교권보호위원회

⇒ 설치 근거: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설치 목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 급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 역할

- 교권침해 수준의 심각성 판단 기준 및 단위학교 조치내용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규칙으로 마련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교권 분쟁 조정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원위원 외에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포함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정한 세부기준에 따른 심각한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은 사안보고

3. 교원소청심사제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에 의거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 자를 기속한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고충심사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정의하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V.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 방안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도 강화하고, 교권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강화, 교원침해 피해 교원 지원,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보호 또는 심리치료 실시,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권회복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조치 강화

- ⇒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선도·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
 - 교권침해 수준에 따라 특별교육·심리치료 등 실시

2. 교권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강화

- ⇒ 교권 침해 은폐 방지를 위한 학교장 및 교육감 책무성 강화
- ⇒ 단위학교의 교권침해예방 역량 강화
-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강화
 - 교권침해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Wee센터 또는 인근 지역 Wee센터에서 특별교육·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결정
 - 학교에서는 특별교육·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를 Wee센터에 1차 상담신청(첨부된 <개인상담 신청서> 활용)
 - Wee센터에서는 1차 상담 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일정 결정
 - 교권보호를 위하여 지역 Wee센터와 유대관계 유지
- ⇒ 교권보호 교육 정례화
 - 초·중·고등학교에서는 1년 2회 이상의 교권보호 교육
- ⇒ 민원인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 정착 유도
 - 학교 방문이 필요한 민원인, 학부모에게 사전에 예약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문화 정착

3. 교권침해 피해 교원 지원

- ⇒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우선적 보호 강화
 - 수업, 담임 업무 등에서 일시적 제외
 -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우선 전보
- ⇒ 피해교원'(先)상담·치료 → (後)처리시스템' 마련
- ⇒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 충청남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4.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 ⇒ 교권 침해 분쟁 조정 기능 강화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 급 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교권보호지원센터 변호사의 법률상담 등 지원
- ⇒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협력할 수 있는 문화 조성
- ⇒ 12개 Wee센터에서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 교권침해 사례 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

5.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보호 또는 심리치료 실시

- ⇒ 교권침해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Wee센터를 교권침해 학생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
- ⇒ Wee센터에서 전문상담사, 교육전문가, 퇴직교원 등을 활용하여 교권침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실시
- ⇒ 상담 이외에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심리치료를 일부 병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6.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

⇒ 근거: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

⇒ 구성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교권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법률가, 학교운영위원, 교직원 관련 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 추천자 등)를 위촉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 위원회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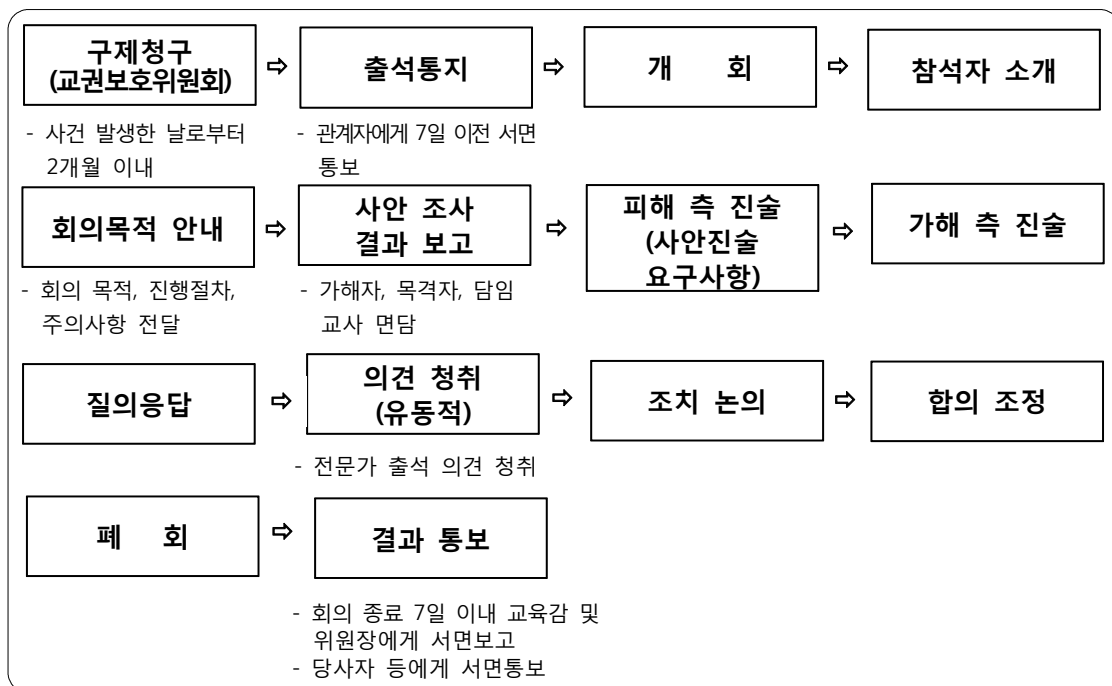
- 교권센터에 신고 및 교권구제 청구된 사건으로 교권센터가 회부한 사건 심의
- 교육감이 수립하는 교육활동 보호 시책
- 위원회가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교권보호지원센터

⇒ 목적

- 교권침해 예방과 교육 분쟁 해결 지원
- 교권보호 예방 활동 등을 통한 교권 위본 체제 강화

⇒ 구제 절차



⇒ 기능

- 교권보호 계획 수립 및 교원연수 실시
- 교권침해 신고 접수, 상담 및 진상조사
- 교권침해에 대한 대외적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 언론 보도 등 교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적극적 해명과 정정보도 요청
-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충청남도교권보호지원센터 홈페이지 개발 운영

- 교권침해 교원의 인권을 고려한 사이버 상담 실시
- 교권보호지원센터 및 교권보호 관련 홍보

8.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가. 법적근거

⇒ 「교원에우에 관한 규정」

- [시행 2013.5.6][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이해

⇒ 개념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학교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짐

⇒ 법적지위

기존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한 심의·자문기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로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학교장이 따르지 않을 수 있음

다. 구성 및 위원선출

⇒ 위원 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 위원 선출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위원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다만,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선출될 수 있도록 유의

☞ 선출 방법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학부모전체회의 등에서 선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라. 위원회의 임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임기는 2년

마. 위원회의 기능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단위학교 현장에서의 교권침해 사안의 종류 및 양태는 학교 급별, 학교종류별, 지역별로 다르므로, 일차적으로 단위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필요
- '교권침해 판단 기준 및 예방 대책'등을 논의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 학부모총회 등을 연계하여 (가칭)교육활동 보호 토론회 등 개최 가능
 - 상담전문가·의사·경찰·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함께 참여 하도록 권장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권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사전에 수립된 '교권침해 판단 기준 및 예방대책'을 기준으로 선도 등의 다양한 권고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직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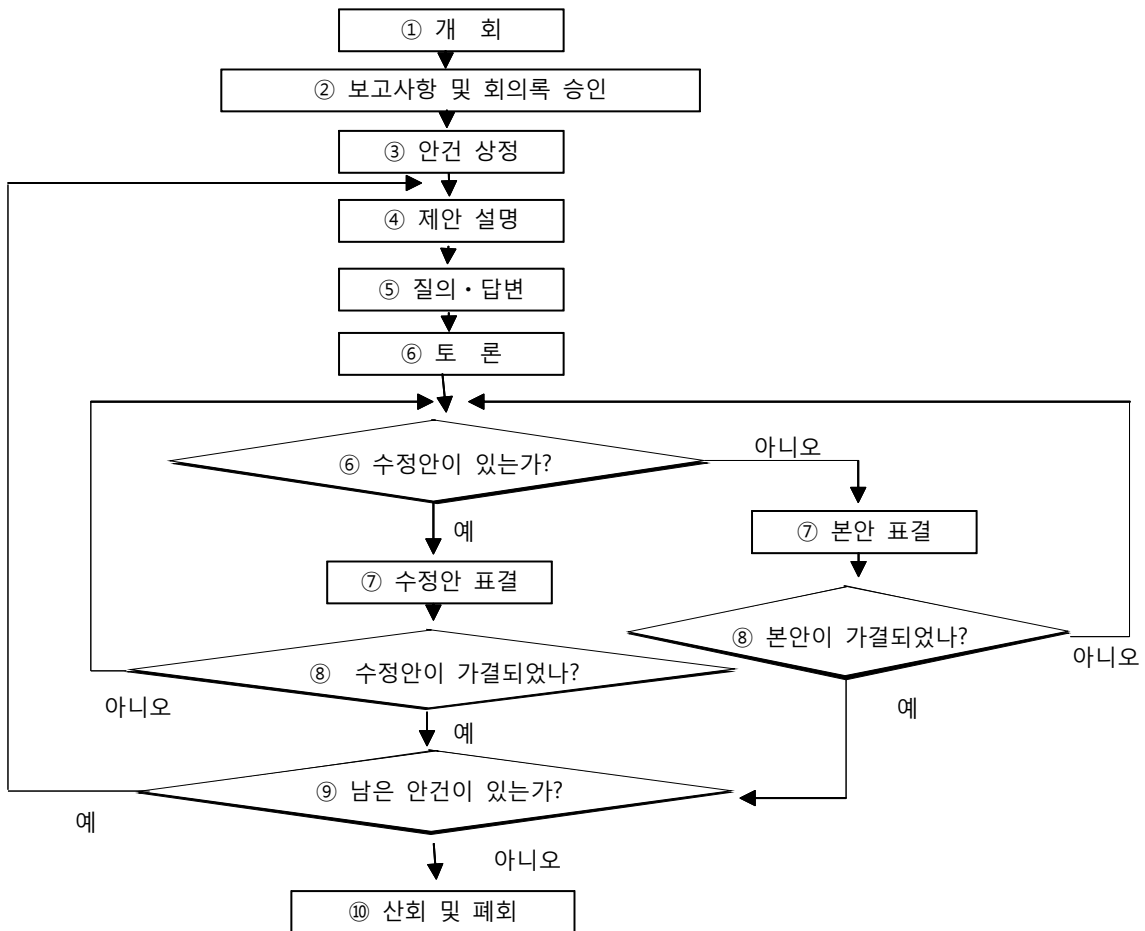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바. 회의 운영

☞ 회의 소집

위원장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회의 진행 과정(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진행 절차를 준용)



사. 유의 사항

-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안에 대해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 및 절차를 준용할 것
- ☞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한 학교에서 교육 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송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조례 제3700호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2. 7. 20
[조례 제37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 관련 분쟁 발생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의 교원과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육법규"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유아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등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정한 법규(그 법규에 따른 지침과 학칙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교권"이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 요구권 등을 말한다.
4. "학교"란 도 소재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5. "교권침해"란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 관계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으로부터 교권을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현상을 말한다.
6. "교육분쟁"이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교권보장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은 한 인간의 전인적 성장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며 아울

- 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서 인권에 대한 근본적 존중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교육은 교원이 학생, 학부모, 사회와 함께하는 것이며, 이들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3. 교원은 교육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힘써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4. 교권침해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 당사자 교원 자신의 구제노력과 함께 학교 및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제4조(교권보호) 교권확립을 위하여 교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1. 교원에게 특정 종교의 행위를 강요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 가. 임용과 승진 등 고용관계
 - 나. 교육활동을 위한 필수적 경우 외의 특정 종교 또는 불신앙의 고용조건
2. 교원은 법령 등 적법절차에 따른 징계 외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교육감은 교육활동의 전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책무

제5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권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발생한 때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고충심사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고,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제15조의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하거나 그 밖에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교원이 교권침해 등으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치료 및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민사·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원은 교권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자신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신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교육활동에 있어서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3. 교육 중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방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학교의 정당한 공동 사무에 협력하고 참여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지체 없는 조사와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
2. 교육감 및 제14조의 교권센터에 신고
3. 2차적 교권침해와 교육활동 방해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
4.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폭력에 대하여는 경찰 등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

제6조(학생징계) ① 교원은 교권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법규에 따라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
2. 교원에게 폭언·폭행·모욕·협박을 하는 학생

② 제1항의 징계요구를 받은 학교장은 교육법규의 범위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징계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법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민원 등의 조사)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교육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제3장 운영지원

제8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권확립을 위하여 제12조의 교권센터 및 교원고충처리제도 운영, 책임보험 가입 등 예산의 범위에서 제도 정비와 지원을 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권확립을 위하여 교원과 소통을 하는 등 안정된 교육활동 환경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9조(교육·홍보) ① 교육감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 각종 교원연수 교육과정에 교권침해 예방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교원들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학습권 및 자녀교육권의 조화로운 실현을 위하여 교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교육감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사립학교의 교권보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 소속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4장 교권보호지원센터

제12조(설치·구성) ① 교육감은 교권침해 예방과 교육분쟁 해결을 위하여 충청남도 교권보호지원센터(이하 “교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교권센터에는 그 사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현장지원 및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③ 센터장은 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이 되고 센터의 직원은 교원정책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분장사무로 지명한다.

④ 센터에는 교권침해 및 교육분쟁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 변호사 또는 자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① 교권센터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교권침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계획 수립 및 교원연수 실시
2. 신고 접수 및 상담
3. 진상조사
4. 대외적 대응
5. 제4호에 따른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6. 언론 보도 등 교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적극적 해명과 정정보도 요청
7.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권센터는 신고접수 된 교권침해 또는 교육분쟁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제15조의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교권센터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 교육관련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 학부모, 교원, 관계공무원 등에게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요구 및 질의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14조(교권구제 청구) ①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교권센터를 통하여 제15조의 위원

회에 교권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해야 한다.

③ 교권구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청구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장 교권보호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교권침해 및 교육분쟁에 관한 심의 및 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권센터에 신고 및 교권구제 청구된 사건으로 교권센터가 회부한 사건
2. 위원회가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권한) ① 위원회는 교권구제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학부모 또는 외부인사의 교권침해 행위가 심각할 경우에는 고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2.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가 심각할 경우에는 징계 또는 전학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성추행 등 심각한 행위로 형법상의 처벌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3.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원하는 경우 전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심의·조정 결정할 경우 위원 중에서 해당 조정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조정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인 사람
2.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전문직, 교권보호에 소명의식을 가진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인 사람
3.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인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
5. 교원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교원
6.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일신상의 사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교권센터에서 안건을 회부한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제23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그 기능과 권한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료인 등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와 같이 교권회복을 위해서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 강화, 교권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강화, 교원침해 피해 교원 지원,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보호 또는 심리치료 실시,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이 교권침해 사례, 제도 등을 분석하여 대처하는 경우도 중요하지만 학생, 학부모, 사회 및 언론기관에서도 교권에 대해 바로 인지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원의 전문적 권위가 확립되고 직무의욕을 고취시켜야만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창조적으로 발현시켜 미래사회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는 적극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교원 스스로 학생의 학습권 존중 등 교원의 의무를 다하면서 교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교육수요자들로 하여금 교권회복을 위한 캠페인, 토론 등의 적극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범국민적으로 교권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위해서는 다각적 연구 방안이 필요하다.

충청남도 유아교육 발전 방안

발표자 : 맹상복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유아교육의 발전적인 방향

맹상복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윤지상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김재점 (충남학원연합회 회장)

장동묵 (충청남도교육청 주무관)

유아교육의 발전적인 방향

국가가 유아들의 교육에 관심이 없던 때에 태동하여 110년의 역사와 더불어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발전시켜 우리 교육이 미국의 대통령조차 찬사를 보내는 교육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초석을 다져온 사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을 국가는 2004년 1월 29일에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면서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면서 사인이 추구할 수 있는 영리추구라는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현실입니다.

영리추구는 그만두고라도 각종규제로 사립유치원의 이사장과 원장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진행되고 있으며, 저 출산으로 인하여 유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치인들은 선거에 표를 의식하여 국, 공립유치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데, 향후에 그 많은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고 유지하여 나아갈 것인지 걱정입니다.

무상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 것인지, 국가와 지방자치에 유아교육을 말만 무상교육이 아닌, 완전무상으로 갈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을 시행하려 하였으면 재산과 급여수준도 초,중,고 학부모보다 적은 영, 유아들에게 먼저 적용하고, 재정이 되는데로 확대 실시하였으면, 출산의 적령기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부담을 덜 느끼면서, 저 출산의 문제도 조금은 해결되는 방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문제점을 제기하여본다.

(1) 원아들이 줄어든다?

- 2015년에는 48만명(만 4세 기준)이지만, 2025년에는 45만명, 2035년에는 36만명 가량으로 유아가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종의 인구절벽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통계상으로는 이렇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원아들의 감소는 어느 정도인가? 유치원 생존의 위기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예상해 본다면?

(2) 재정문제에 부딪힌 유치원들?

- 유치원의 재정문제, 어디까지 심각한가... 원아들 정원 총원 문제에 부딪힌 유치원, 아이들이 줄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한 유치원 재정문제는 어느 정도인가

(3) 문을 닫는 유치원들 실태는 어떠한가?

-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이나 아예 문을 닫는 유치원들이 많다고 한다. 가만히 내버려두어도 유치원들이 문을 닫는 상황이 된 것이다. 폐원한 유치원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4) 누리과정 평가의 실상?

- 정부가 관여하는 누리과정 평가 조치가 획일적이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평가 하길래 그런건지? 3주기 평가 공개와 서열화의 문제점?

(5) 국, 공립유치원의 교육방식/교육내용을 사립에 강요하고 있다?

- 교육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획일성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립은 저마다 다 개성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무상보육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의 모든 유치원이 획일화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실상은? 현재 사립유치원의 교육내용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6) 누리과정-무상보육에 대한 총평은?

- 2005년에는 30%의 원아가 무상교육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100% 무상교육으로 자리 잡게 됨. 원아 1명 당 월지원액 22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얼까. 지난 몇 년간 학부모들의 피드백은 어떠했나.

(7) 국, 공립보다 사립이 더 낫다...교육의 질?

-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양쪽을 비교할 때, 교육의 질과 서비스 만족도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립유치원이 더 앞선다는 평가나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립유치원의 '교육의 질'은 어떠한가? 국,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서의 '교육의 질'이 앞서는 근본적인 이유, 진짜 이유는 무얼까?

(8) 사립유치원과 국, 공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로 인해 일어나는 악영향은 무엇이 있나?

- 현재 취원을 대비 공립유치원의 재정지원이 6배 수준이다.
- 공립 단설유치원 신·증설의 문제점

(9) 공·사립유치원의 적정 원아 담당비율?

-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유치원별로 사정이 제각각 일텐데... 정형화된 통일된 적정 원아 담당비율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 사립유치원에서 그러한 비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국, 공립유치원은 어떠한지?

(10) 유치원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방안... 어떠해야 할까? 바람직한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립유치원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

(11) 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사항... 개선해야 하는 사항... 현장 밖에 모르는 생생한 목소리, 학부모들이 잘 모르는 것,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외면하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사립학교(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사립유치원에 준용하면 어떻게 될까?

- 이는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상당히 엄격한 재무회계 규칙이 사립유치원에도 확대 적용됨을 의미한다. 즉 학교법인과 마찬가지로 유치원경영자는 재산권 행사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도출된다. 학교법인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재무회계 규칙이기에 사인 형태의 개인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거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학교법인의 경우 임원과 이사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지만, 유치원 경영자에 대한 유사한 규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의해 학교법인의 상근 임원은 모두 보수를 지급 받지만(비상근은 실비보상), 직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유치원 경영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직무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외에도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예상되는 문제 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3) 정부의 관리감독은 어떠한가?

-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운영위원회 제도, 재무회계규칙 도입 노력 등은 모두 사립유치원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이다. 이외에도 시설, 안전, 위생 관리감독 등이 여전하다. 사립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관련규제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힘들거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학부모 및 원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교사들 업무 과중 및 비효율적인 행정사항은 없는지.

(14) 지방교육청 담당공무원이나 시군구 공무원 담당자와... 위 여러 가지 사안과 관련하여 불편했거나 부딪혔던 적이 있었는지요?

공무원에게 직접 제기했던 민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15)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이슈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주장에 대해 쉽게 반박할 수 있는 논리는 “원래 이렇게 될 줄을 모르고 들어왔느냐”, “알고서 사립유치원을 시작한 거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지금 현 실정처럼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온갖 규제로 움아매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요? 그리고 유치원의 교과 교육내용, 원아 1인당 등록금/지원금에 대한 정부규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요? 정부 간섭, 정부 규제가 없거나 있다 해도 미미했던 과거에는 어땠는지? 맨 처음 사립유치원을 시작할 때 사유재산에 대한 인식을 하고서 하신 건지요?

“원래 이렇게 될 줄을 모르고 들어왔느냐”, “알고서 사립유치원을 시작한 거 아니냐”는 등의 공무원 논리에 대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최근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가 말한 것 중에 일부를 보면은 “우리 집사람입니다.” 제3자에게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자주 쓰는 말이다. 그런데 이

문장을 영어로 직역하면 우스꽝스러워진다. “She is our wife”가 되기 때문이다. 부인을 공유하는 것도 아닌데 한국인은 자기 부인 앞에도 ‘우리’란 말을 아무렇잖게 붙인다. 영어로는 ‘my wife’이지만 ‘내 집사람’이란 말은 왠지 불편하다.

영단어 ‘my’는 ‘나의(내)’로 해석되는데 한국인은 이 말을 무척 어색해한다. 웬만하면 ‘우리’가 붙는 건 그 때문이다. 아내는 ‘우리 집사람’, 아들도 ‘우리 아들’, 집 역시 ‘우리 집’이어야 하는 것이다. 몇몇 젊은이가 ‘내 아내’ ‘내 아들’ ‘내 집’이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이 역시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인의 ‘우리’ 표현에 숨겨진 속뜻

‘모두를 위해 내 것도 기꺼이 내놓다’는 뜻에서 ‘우리’가 사용된다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한국 인구 전체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자기 소유물을 내어 준다면 세상은 낙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대다수가 ‘네 것도 내 것’이란 뜻에서 ‘우리’를 사용한다.

사실 ‘네 것’ ‘내 것’을 가리는 일과 공동체 의식은 별개 문제다. 소유 구분을 분명히 한다고 해서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은 어릴 적부터 소유 개념을 철저하게 익힌다. 용돈도 일을 해서 벌어야 할 정도로 그들의 머릿속에 ‘공짜’란 없다. 하지만 유대인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부하는 민족도 없다. 부자든 아니든 그들은 어릴 때부터 공동체를 위해 기부하는 법을 배운다.

반면, 한국인은 ‘my’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기조차 불편해할 정도로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이 모호하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를 위해 자기 재산을 선뜻 기부하는 이도 찾기 어렵다. 한국인의 희미한 재산권 의식은 ‘남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의 다른 표현이다. 결코 ‘남을 위해 내 재산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44년째 방치 중인 ‘그린벨트 재산권’

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공공’이란 명분이 붙으면 더욱 희미해진다. 타인의 재산도 마구 잡이로 사용되기 일쑤다. 대표적 사례가 그린벨트다. 이 자리에서 그린벨트의 필요성 유무를 따질 생각은 없다. 지역에 따라 필요한 곳도,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다. 내가 안타까운 건 ‘재산권이 무시되는 현상’이다.

자연이 드넓게 펼쳐진 곳 입구에 사유재산이라는 뜻말이 붙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자기 소유 토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됐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대부분 박탈되는 셈이다. 반면, 새 도로를 놓으려면 국가는 그 도로가 위치할 토지를 공공 재산으로 수용하고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 그린벨트 정책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면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린벨트 지정 토지 소유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실제로 이 같은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에도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1971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그린벨트가 처음 지정된 후 보상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급기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나섰다. 1998년 헌재는 관련 헌법 조항에 근거해 “그린벨트 정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보상 조항이 없는 건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다. “보상 없이 규제만 하는 건 위헌이니 하루 빨리 보상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도 15년간 달라진 건 전혀 없다. 국회와 정부가 위헌 상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 목적’ 핑계로 폭정 휘둘러서야

국가가 헌재 판결조치 나 몰라라 하는 이유 중 가장 현실적인 논리는 “그린벨트 소유주 보상에 쓸 돈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돈이 없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로 포장이나 공무원 연봉 지급, 복지 시설 건립 등은 모두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국가 지출이다.

양복 입은 사람 손 위에 정부 예산 주머니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련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그린벨트 보상 따위에 돈을 쓰기 싫다”는 데 있다. 그저 그들의 땅을 공짜로 쓰고 싶은 것이다. 피해자들의 애타는 하소연에 국회가, 정부가, 심지어 대다수 국민이 귀를 막아버리는 건 그 때문이다. 이쯤 되면 ‘법치’가 아니라 ‘폭정(暴政)’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제아무리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란 명분이 있다 해도 시민의 재산을 쓰려면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한다. 도로 건설을 예로 들어보자. 도로가 놓일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하고 싶지 않다면 도로를 새로 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린벨트 정책도 마찬가지다.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싶지 않다면 그린벨트도 풀어주는 게 법 논리에 맞다.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당신의 생각은?

공공(公共)을 앞세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그린벨트 외에도 많다. 최근 정부에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립유치원 측이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건 이들 역시 공공의 목적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국가가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을 비롯한 무상보육 정책이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국공립유치원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먹이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정부 요구를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국가에서 주는 보육료를 제외하면 가벼운 경비 정도만 학부모에게서 걷을 수 있다.

문제는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해 국가가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하나같이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씩 개인 돈을 쏟아부어 지은 시설이지만 이런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물론 교육은 숭고한 일이다. 하지만 교육의 가치와는 별개로 그 비용의 부담 주체는 제대로 따져야 한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교육이라면 그 비용 역시 국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사립유치원 역시 공공 목적에 사용하고 싶다면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미국이었다면, 유럽 지역 국가였다면 당연히 그렇게 처리했을 것이다.

남의 것도 내 것처럼 귀히 여기는 세상

오늘날 한국 현실에서 재산권은 좀처럼 존중되지 않는다. 비단 유치원뿐 아니라 초·중·고교 등 사립교육기관도 대부분 국공립학교와 다름없이 공공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관해 국가적 보상이 이뤄졌다는 얘긴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사립유치원들이 요구하는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가 법적 당위성과는 별개로 대중에게 낯설고 부담스럽게 들린다는 사실은, 우리가 평소 사유재산권을 얼마나 가볍히 여기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재산권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는 바뀔 수 있을까? 타인의 재산은 있는 힘껏 존중하고 자기 재산은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말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16) 단설유치원 설립이 꼭 필요한가? 유아를 자녀로 둔 많은 학부모들이 무상인 단설유치원설립을 요구하는 것은 나만 못 받으면, 손해 본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립유치원은 비싸고, 국, 공립유치원은 싸다고 알고 있지만 2015년4월 1일자 교과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공립이 사립보다 비쌉니다.

저 출산으로 취원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에서도 교과부 평가에 단설유치원을 몇 개 더 세웠냐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달라지고, 장학사 및 공무원을 원장, 원감 자리 하나 더 만들려고 단설유치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는 현실을 어떻게 할까요?

위와 같은 질문 내용에 대하여 학교 정상화 모임의 유아 파트에서는 함께 고민하고 토의가 필요 할 것이며, 발전적인 방안도 제기 되어야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예산 2조 제대로 쓰려면 ...



비즈 칼럼

김 원 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는 유아교육을 위해 연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에 재정의 65%, 사립유치원에 35%가 지원되고 있다. 단순히 ‘무상보육’을 넘어서 ‘보육보장’의 관점과 부족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이러한 지출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2조원이 넘는 예산을 단순히 유아를 맡아 돌보는 것에 쓰기보다 유아들의 장래를 고려한 다양한 특성화 교육에 집중하여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국가적 관점에서 유아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이 청년기 교육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학문적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유아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셋째, 기존 사립유치원을 잘 활용하고 공

사립 간 재정지원을 균형있게 하여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해야 한다.

정부가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전환점이자 우리 교육 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부합하려면 무엇보다 공·사립 유치원 교육에 더욱 철저한 경쟁개념을 도입해서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교육재정의 지원내역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 누리과정은 선진화를 위한 사회서비스를 개선하고 바우처 제도를 시험하는 무대이니 만큼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과 의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립과 사립유치원 간 균형있는 재정 지원과 민간 투자가 적극적으로 유도되도록 해야 한다. 유아교육은 특성상 다양성 교육을 통하여 창의력을 개발하고 미래의 시민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가 유아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개성에 맞는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무분별한 공립유치원 신·증설, 유아수용계획 점검 및 재검토

○ 공.사립유치원은 학교이며, 다 같은 공적인 기관으로서 공공성의 기능을 살리려고 한다면, 공립만 공적인 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고, 공.사립유치원의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 져야 유아들이 차별대우 받지 않고 행복한 유아기를 보낼 수 있음.

○ 예산 부족으로 나라살림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의 원아를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립유치원 신증설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임.

○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의 문제점

- 대전의 경우 공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아동 중 저소득층은 30%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을 하려는 것은 70%의 부유한 가정에 혜택을 늘리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에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한다면 사립유치원의 남는 교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함
- 예산이 부족한데 무료로 교육받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을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여 무료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현실과 정책이 맞지 않음
- 공립유치원을 취재하여 유치원 입학 대란이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마치 유치원이 부족하여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잘못 보도되고 있음.
- 현재 사립유치원은 시설이 남아돌고 원아 충원도 미달인 유치원이 대부분임.
- 이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아야 하며, 선호도 조사가 아닌 유아수용계획에 의해서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추진해야 함.

○ 공.사립유치원은 학교이며, 다 같은 공적인 기관으로서 공공성의 기능을 살리려고 한다면, 공립만 공적인 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고, 공.사립유치원의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 져야 유아들이 차별대우 받지 않고 행복한 유아기를 보낼 수 있음.

○ 예산 부족으로 나라살림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의 원아를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립유치원 신증설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임.

○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의 문제점

- 대전의 경우 공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아동 중 저소득층은 30%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을 하려는 것은 70%의 부유한 가정에 혜택을 늘리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에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한다면 사립유치원의 남는 교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함
- 예산이 부족한데 무료로 교육받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을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여 무료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현실과 정책이 맞지 않음
- 공립유치원을 취재하여 유치원 입학 대란이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마치 유치원이

부족하여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잘못 보도되고 있음.

- 현재 사립유치원은 시설이 남아돌고 원아 총원도 미달인 유치원이 대부분임.
- 이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아야 하며, 선호도 조사가 아닌 유아수용계획에 의해서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추진해야 함.

○ 시·도교육청, 공립유치원 비율 점수제 폐지 요청

- 교육청평가 시 공립비율이 높으면 점수가 높다는 것은 단·병설 유치원을 늘리려는 의도임.

○ 유아 수용 계획 단계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음.

-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원을 고려한 후 인구유입지역에 증설
-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교육공무원 정원규정 내에서 학급 증설**
- 민자투자방식으로 사립유치원 흡수하여 공립유치원 확충
-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도 취원률에 포함시켜 계획 수립

○ 문을 닫는 사립유치원이 늘어나고 있고 신생아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국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 행정자치부 교육공무원 정원규정 내에서 학급 증설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15.3.1.] [대통령령 제26112호, 2015.2.26.,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940, 행정자치부(조직기획과) 02-2100-3490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2012.6.29.>

제2조(정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2.26., 2011.2.25., 2012.6.29.>

②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12.31., 2010.2.26., 2012.6.29., 2014.11.19.>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원(별표 2에 따른 정원만 해당한다)을 배정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별 학생밀도 및 읍·면 지역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2.26.,

2012.6.29.,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적정 기준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및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26., 2014.11.19.>

부칙 <제26112호, 2015.2.26.> - 이 영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940, 행정자치부(조직기획과) 02-2100-3484

제2조(정원 배치의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1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2 / 3.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3
4. 특수학교: 별표 4 / 5.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의료사 등: 별표 5

[별표 1] <개정 2013.3.23>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치 기준 (제2조제1호 관련)

구분	배정 기준
1. 원장 및 원감	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 나.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의 경우 총 정원이 증원(增員)된 범위 내에서 증원 배정하고, 단설유치원이 통폐합된 경우에는 감원(減員) 배정
2. 교사	가. ‘지역군별 교사 1인당 원아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가목의 배정 결과를 해당 시·도의 전년도 교사정원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할 정원의 10퍼센트만 증감(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다만,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배정한 후 남는 정원(이하 "잔여정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도의 전년도 유치원 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

비고

1. 제2호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교사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도별 배정 교사정원 = 시·도별 공립 유치원 원아수/지역군별 교사 1인당 원

아수(※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지역군별 교사 1인당 원아수 = 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원아수* + 해당 시·도가 속한 지역군**의 보정지수***

* 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원아수 = 공립 유치원 총 원아수(전년도 4월 1일 기준) / 공립 유치원 교사 총 정원

** 지역군: 지역별 교육여건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교사 1인당 원아수, 원아밀도 등이 유사한 시·도를 묶은 것

*** 보정지수: 매년 교육부장관이 교사 1인당 원아수, 원아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군별로 보정한 지수

2. 제2호다목에 따라 추가 배정하는 교사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도별 추가 배정 정원 = 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 (잔여정원/Σ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유치원 통폐합으로 감축한 교사수, 전년도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 시 특채한 교사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교과부의 원아 1인당 공·사립유치원 교육비 현황]

(2015.4.1일 기준)

(단위 : 원)

구분	국가지원금 (①)*						학부모 부담금(②)				합계 (①+②)	
	소계	교육과정	공립 : 교직원 인건비 사립 : 처우 개선비	방과후 과정	교육비 총액 대비 지원율 (%)		소계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교육비 총액 대비 부담률 (%)	교육비	'14.2월 대비 증감
'15. 2월	공립 (단설)	755,321	161,173	505,810	88,338	96%	29,329	15,491	13,838	4%	784,650	13,224
	사립*	324,342	220,000	34,342	70,000	60%	214,383	164,930	49,453	40%	538,725	5,914
	공립 (병설)	567,542	141,209	333,683	92,650	98%	12,451	6,126	6,325	2%	579,993	- 33,920

※ 국가지원금은 국가지원금과 기타지원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충청남도 인지인성교육안

발표자 : 성인제 (前성남초등학교 교장)

인성교육 인제 됐다!

성인제 (前 성 남 초 등 학 교 교 장)

송덕빈 (교 육 위 원 회 의 원)

정순평 (前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이재범 (천 안 가 온 초 운 영 위 원 장)



1. 인 성 교육의 정의

1.정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어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말하며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키우는 교육을 말한다.

2. 인 성 교 육의 문 제 점

- 1) 인성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
- 2) 인성회복은 본성을 깨우는 기술.
- 3) 인성교육자의 인성지수가 인성교육의 성공을 가늠.
- 4) 나만의 성향을 찾아 나를 가꾸는 것이 인성교육
- 5) “바른품성 5운동 “은 아쉬움이 1% 있는 인성 실천운동.

인성교육, 언제 왔나!!

3. 인 성 교 육의 개 선 방 향

- 1) 인성지도교사의 중요성
 - ① 교사들의 마음성향과 마음상태에 따라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마음 전이 현상, 복제되는 아바타현상.
 - ② 학생 인성교육 이전에 교사들의 인성교육이 우선.
 - ③ 교사들의 행복한 생활과 마음힐링이 행복한 학교.
 - ④ 전체 교사들의 약70%이상이 마음과 정신의 힐링이 필요

인성교육, 언제 왔나!!

3.인 성 교육의 개 선 방 향

2) 전문 인성지도교사 양성원칙

- ① 인성지수 평가서 개발 및 인성교육역량의 표준규격화 마련
- ② 인성교육지도자의 본마음의 인성지수를 평가하여 검증된 역량 있는 인성지도교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마련.
- ③ 인성교육 지도교사 또는 인성지도사의 전문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검증하고 인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제도마련

인성교육, 언제 왔더라!!

3.인 성 교육의 개 선 방 향

3) 전문 인성지도교사와 인성지도사 모집 및 육성

- ① 퇴직 교사를 활용한 전문인성지도사 양성 선발하고 인증된 전문교육단체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 하도록 하는 제도.
- ② 교원임용고시 합격자를 활용한 전문인성지도사 양성 인증된 전문인성교육 단체의 인성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선별하여 인증자격증을 부여하고 활용하는 제도.
- ③ 인성교육지도자 또는 단체를 인증하는 제도 마련 ~ 인성교육 전문지도 역량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인성지도사 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를 인증하고 인재교육을 위탁하는 제도
- ④ 옳고바른마음 인성지수가 높고 마음성향이 갖춰진 인성지도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인성교육, 언제 왔더라!!

3.인 성 교육의 개 선 방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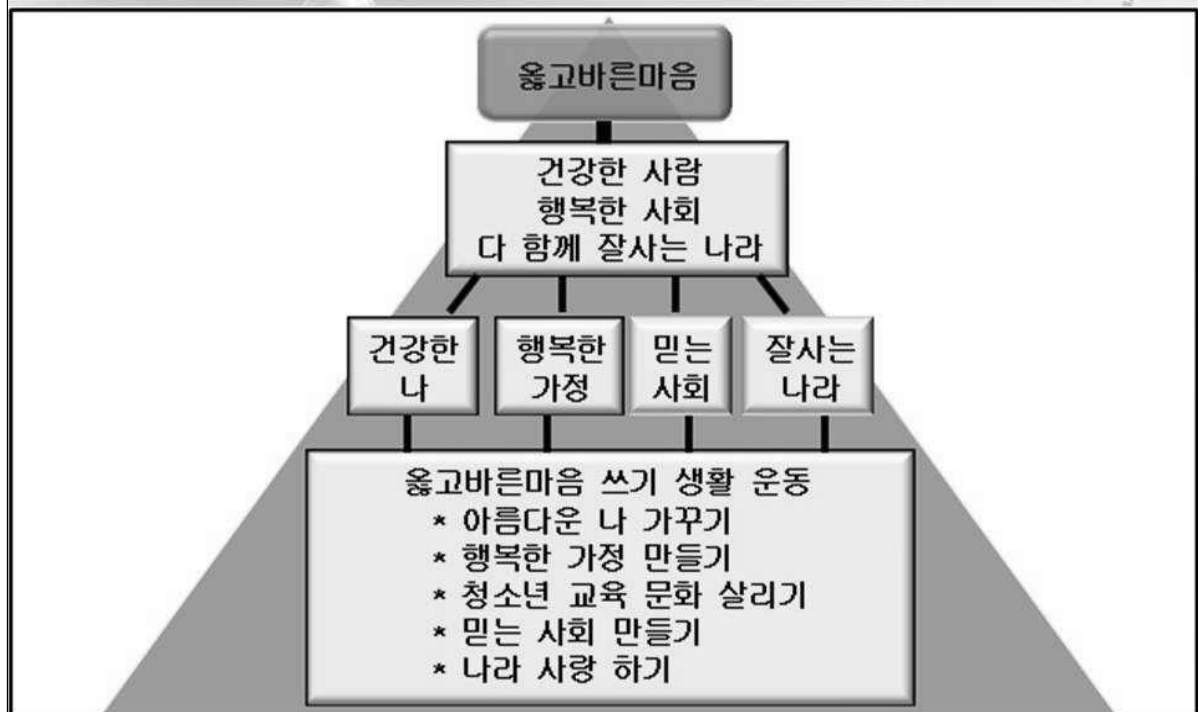
4) 학생신분 살리기.

5) 교육자의 가치관 높이기.

6) 부모님의 도리 갖추기.

인성교육, 언제 왔나!!

올 고 바른 마음



인성교육, 언제 왔나!!

4. 옳고 바른 마음 실천방법

- 1) 생각과 행동이 옳고바른마음이길 원하고 각오와 다짐하는 생활로 굳은 의지력을 살리는 방법.
- 2) 하루 일과에 세 번씩 “나○○○은 옳고바른마음입니다.” 를 외치고 인지하여 정신통일로 자신감을 살리는 방법.
- 3) 도보와 훈련시 “옳고” “바른” “마음” 구령을 붙여 모질고 강한 정신력을 깨우는 인지방법.
- 4) 지나친 생활습관으로 인한 행동에 “옳고바른마음이 맞나요?” 확인하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긍정으로 변화시키는 방법.
- 5) 생각에 갇가지 변화가 생길 때 옳고바른마음을 인지하여 정의와 논리로 이해력을키워 마음에 평정을 얻어 여유로운 생활과 건강을 누리는 방법.

인성교육, 언제 왔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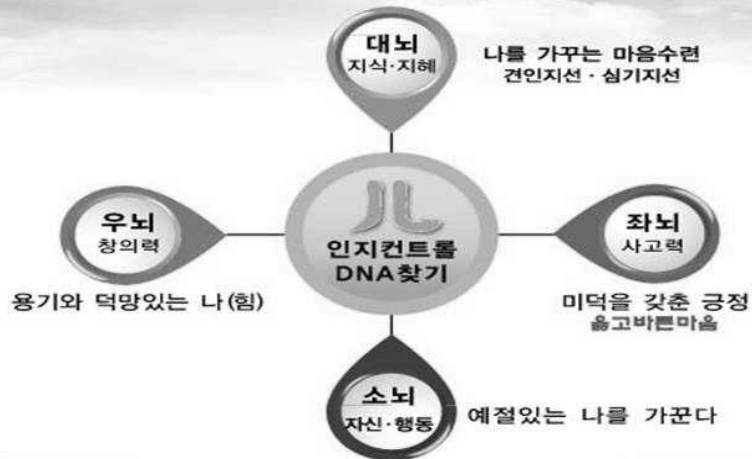
4. 옳고 바른 마음 실천방법

- 6) 나의 행동에 옳고바른마음정의를 세우고 스스로 검품하여 예절과 질서 윤리와 도덕성이 살아있는 인격을 높이는 방법.
- 7) 생각을 긍정으로 반전하고 감사함을 익혀 행복한 삶을 찾아 나를 지켜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되는 방법.
- 8) 나의 생활에서 허점, 오점, 빈틈없는 완전한 나를 가꾸어 만들어가는 방법.

인성교육, 언제 왔든!!

5. 기대효과

옳고 바른 마음 (과학적원리)



옳고바른마음 생활은 과학적이고 진리적이며 학문적으로
나를 가꾸어 나의 뜻을 찾아 꿈을 이루는 수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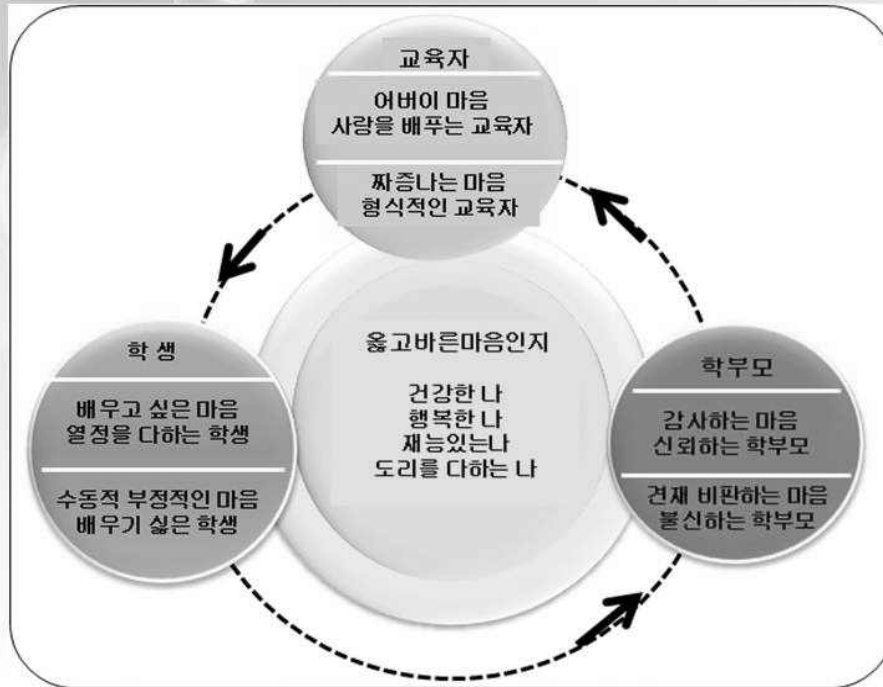
인성교육, 언제 왔든!!

5. 기대 효과

- 1) 인지과학의 원리
- 2) 파동의 원리
- 3) 유전자 접붙이기 원리

인성교육, 언제 왔든!!

5. 기 대 효 과 삼위일체형 삼합교육



인성교육, 언제 왔나!!

5. 기 대 효 과 *완전한 나 가꾸기

“나하나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원리”



인성교육, 언제 왔나!!

6. 활동 실적



옹고바른마음교원연수



옹고바른마음쓰기범국민운동발대식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옹고바른마음 청소년지도자대회



옹고바른마음쓰기 캠페인운동



옹고바른마음쓰기스피치대회)

인성교육, 언제 왔다!!

7. 성과 분석 자료

- 가족관계(부부간, 부모.자녀간, 형제.자매간) 회복에 도움. (96%)
-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 (92%)
- 대인관계 개선에 도움 (97%)
- 행복한 생활에 도움(96%)
- 감정조절에 도움(98%)
- 스트레스해소에 도움(95%)
- 집중력 향상에 도움(93%)
- 기억력 향상에 도움(94%)
- 잠재능력과 자기 개발에 도움(91%)
- 각종 중독성 개선에 도움(96%)
- 폭력성 상실에 도움(91%)
- 성격 개선에 도움(96%)
- 생활습관 바꾸기에 도움(95%)
- 건강(심신안정, 정신,마음,몸건강)에 도움(98%)

인성교육, 언제 왔다!!

8. 행동강령

- (1) 옳고바른마음을 가진자는 모든 사물을 옳고바른마음으로 상대한다.
- (2) 어질고 착한 마음은 모든 사물의 아름다움만 간직한다.
- (3) 늘 감사하는 마음은 늘 행복한 꿈을 꾸다.
- (4)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
- (5) 나를 아끼는 자는 상대를 소중히 생각한다.
- (6) 나를 존중하는 자는 상대를 존중한다.
- (7) 상대의 착한 모습을 보고 나의 착한 모습을 찾는다.
- (8) 밝은마음 밝은미소는 아름다운 생활을 만들어 낸다.
- (9) 행복한 언행은 행복한 삶을 충만하게 만든다.
- (10) 하나 된 마음은 모두가 하나로 만든다.

인성교육, 언제 왔대!!

9. 옳고바른마음' 행복 캠프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통한 자기 변화 프로그램-

프로그램영역	프로그램 내용
'옳고바른마음' 교육	-1단계: '옳고바른마음'이란 무엇인가 -2단계: '옳고바른마음' 갖추기 (감사하기, 배려하기, 용서하기) -3단계: '옳고바른마음' 실천하기 (목표세우기, 몰입하기)
예절과 소통	-가족간의 예절과 소통 대화법 -친구간의 예절과 소통 대화법
심신수련	-명상의 시간 -요가
체험활동	-숲 체험 -요리 체험 -다도 체험 -도예 체험 -동물 체험 -레크레이션
학부모 교육	-자녀 이해와 올바른 자녀교육(특강)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보람이 가득한 행복한 학교

10 . 옹고바른마음 인지 힐링 프로그램

- 형 태 : 옹고바른마음 힐링 캠프
- 기 간 : 1일 프로그램 / 1박2일 프로그램
- 대 상 : 국민 누구나(가족, 단체, 기업체, 교사, 학생 등)
- 장 소 : 사)옹고바른마음 교육시설
- 연수 프로그램 구성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보람이 가득한 행복할 학교

10 . 옹고바른마음 인지 힐링 프로그램

-마음 자가 치유를 통한 행복 찾기 프로그램-

프로그램영역	프로그램내용
'옹고바른마음' 교육	-1단계: '옹고바른마음' 만나기 -2단계: 내 마음 살피기(진단) -3단계: 내 마음 처방하기(처방) -4단계: 내 마음 다스리기(치유)
심신수련	-명상의 시간 -요가
상담기법	-학생과의 소통 대화법 -학생 유형별 상담 -분임토의
체험활동	-숲 체험 -다도 체험 -풍물 체험 -레크레이션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보람이 가득한 행복할 학교

10. 옹고바른마음 인지 힐링 프로그램

옹고바른마음 좋은 습관 기르기 프로그램

단 계	활동과정	활동내용	
1단계 준비 활동	옹고바른마음 이란?	1. 옹고바른마음 정의 2. 옹고바른마음인지 생활영향 3. 생각과 마음	이론 실습
2단계 중심 활동	마음 알기	1. 나는 누구인가? 2. 현재의 나의 상태 3. 나를 알아가는 또 다른 방법	실습
	마음 내기	1. 경험과 배려 2. 긍정의 발전	이론 실습
	마음 쓰기	1. 이해력 갖추기 2. 성격과 습관 알아차리기 3. 칭찬과 격려 4. 감정에 마음표 붙이기	이론 실습
	마음 다듬기	1. 나의 뜻 작성 2. 고마운 마음 갖기(감사하는 마음) 3. 지혜 덧대기	이론 실습
	생활 습관 (가꾸기)	1. 정신건강 2. 퍼펙트 트레이닝 3. 마음 힐링(토크 및 강좌)	이론 실습
	공감과 소통	1. 공감 2. 소통 3. 기타(덧대기토크, 관심갖기)	이론 실습
3단계 정리 활동	행복한 나	1. 너만의 나 2. 내만의 나 3. 나만의 나	실습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보람이 가득한 행복할 학교

11. 연 구 성 과

수십 년간 심신안정을 놓고 마음연구와 심리테스트를 해온 결과
“특정인(폭력, 사기, 자살, 다중인격, 마음장애, 행동장애 등)으로
바뀌는 과정은 본마음의 DNA가 생활환경과 본질로부터 변화되어
대물림으로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성격이상과 행동장애들
이었습니다.

옹고바른마음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생활습관을 기르면 마음
DNA알(씨)의 본성이 회복되어 자력으로 상호존중과 예절과 도덕성을
지켜내는 성능에 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 연구와 사례적 실험
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보람이 가득한 행복할 학교

12. 프로그램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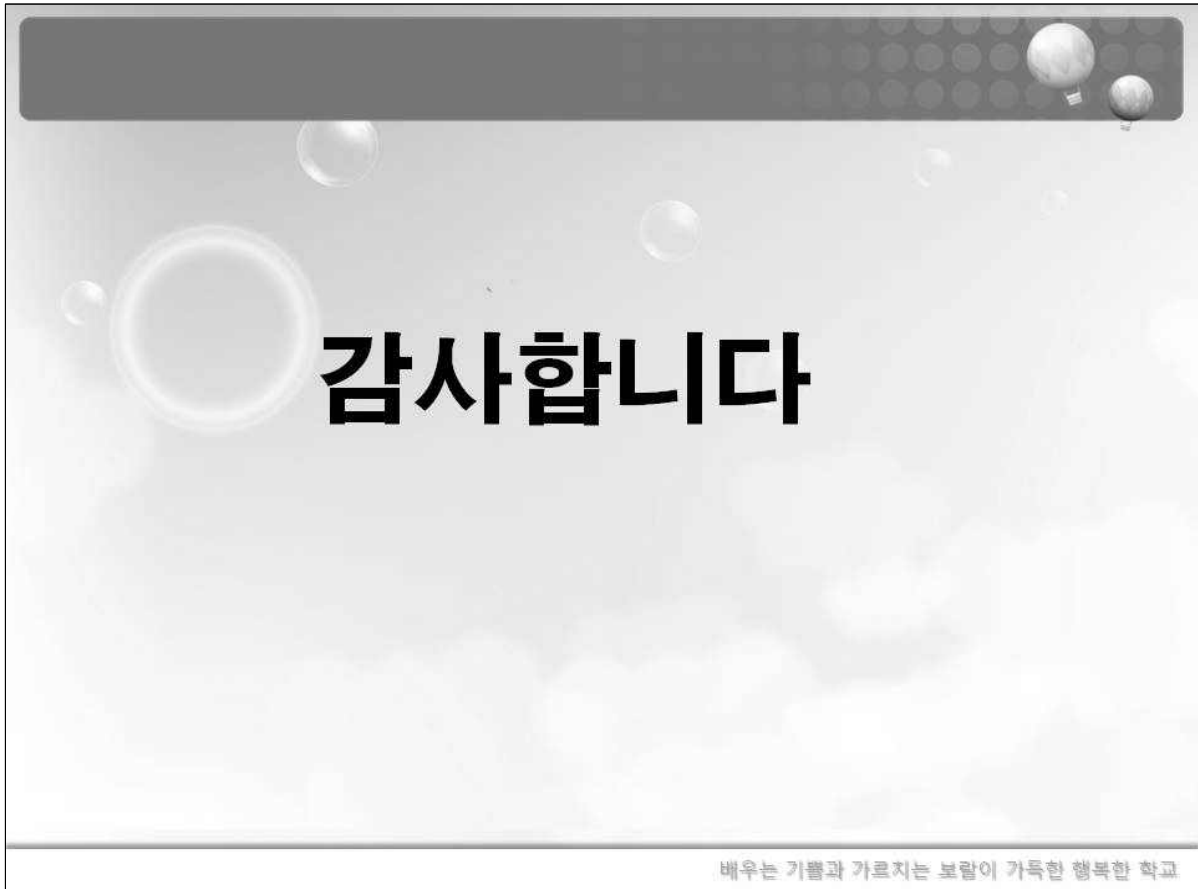
본 프로그램의 특징은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는 과학적 원리를 놓고 행동의 근원인 마음가짐을 해롭게 하는 장애원인을 찾아 스스로 개선하고 반전하는 행동을 통해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습득시간이 짧고 행동을 유발시키는 생활적용력이 뛰어나 다수의 인성을 동시에 깨우고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첨단인 방법입니다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보람이 가득한 행복한 학교

13. 옳고바른마음 인지 인성교육의 제안

수십 년을 한결같이 본성을 찾고, 인성을 회복하고, 양심을 살려 믿음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방법을 연구하던 중 마음에도 본성향의 DNA가 있고 그 성향의 유전자가 변질되면서 반인륜적 격한 행동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고 인지과학과 마음파동의 원리를 이용하여 옳고바른마음을 인지해 준 결과 특정인(폭력, 사기, 자살, 다중인격, 마음장애, 행동장애 등)의 행동이 자신도 모르게 바뀌어 행동하는 것을 여러 연구와 체험사례에서 확인 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옳고바른마음 인지력을 높여 있는 자리에서 다수의 사람에 인성을 깨워 믿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옳고바른마음인지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옳고바른마음쓰기 범국민운동”을 시작하고 보니 효과와 실효성이 뛰어나 이를 국민인성회복 차원에서 국민정신계몽운동으로 다루어 올바른 인성교육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문화의 상품성을 널리 알려 재도약하는 교육 강국이 되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보람이 가득한 행복한 학교



[부록2]

일 시 : 2015. 11. 25.(수) 17:00

장 소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강의실

학습부진(난독증) 개선 운영(훈련)경과
종 합 보 고 서

2015. 11.

(사) 대한난독증협회



훈련경과 종합보고서

2015. 11.

(사) 대한난독증협회

목 차

마스터 워크시트를 복사하여 활용합니다

- I. 훈련 목적
- II. 훈련 방법
- III. 훈련결과 (연무중학교, 선조중학교)
- IV. 결론 및 제언



1 in 5 have dyslexia

훈련 목적

대소리 텍스트 스터디를 권장합니다



- 학습 부진 대책인 난독증 개선사업의 효과분석
- 난독증 측정도구 및 훈련 프로그램의 적합성 분석
- 충남지역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부진 현상의 대안 모색

훈련 방법

대소리 텍스트 스터디를 권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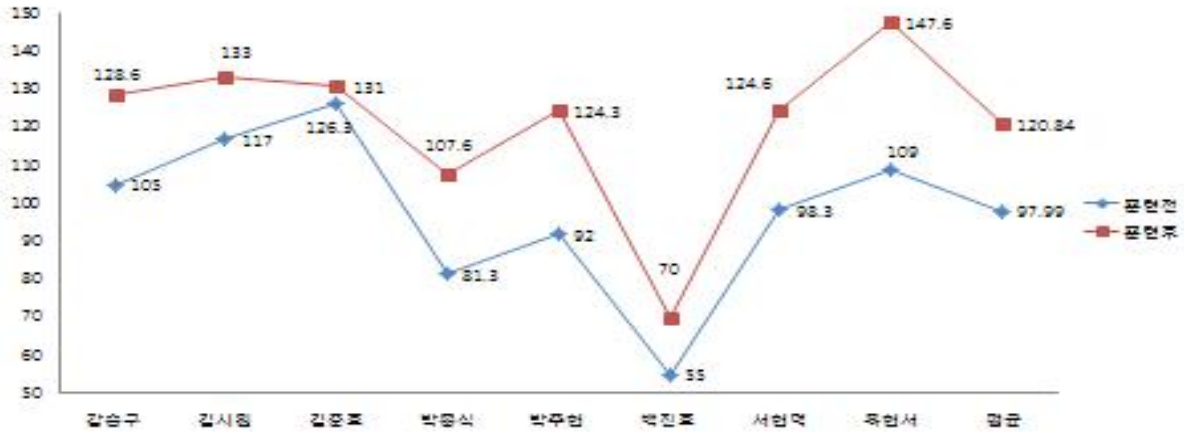


- 1차 학습부진 (난독증) 척도검사
- 2차 정밀검사 후 훈련 대상자 선정
- 뇌기능개선 훈련 (Tomatis Method, Forbrain & 읽기 유창성 훈련 약 20여 회 실시
- 훈련 후 효과분석 정밀검사 (어음청각검사, K-WCPM, TLTS 선택성 검사) 실시
- 결과보고서 발표

훈련결과 (K-WCPM) - 연무 중1

마스터 워크북 스타일을 편집합니다

단위 : 어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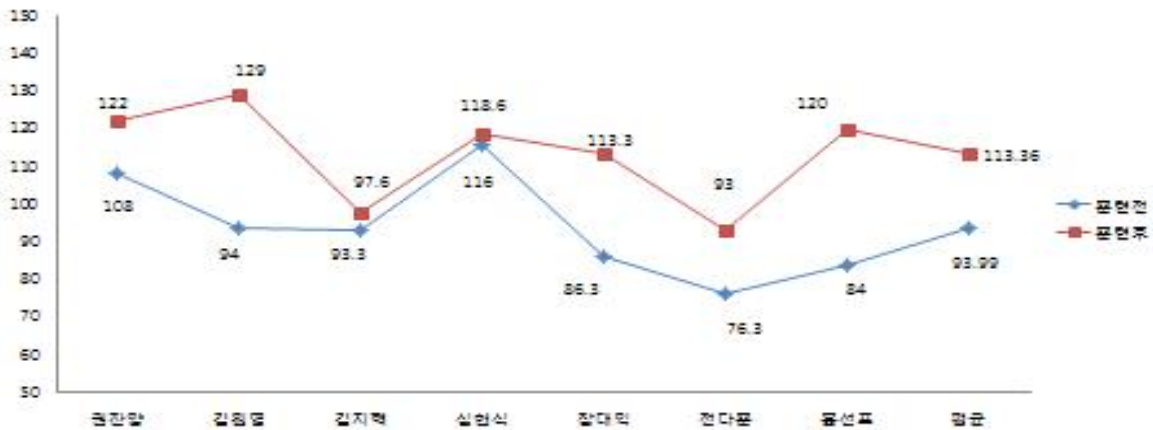


- K-WCPM : 1분당 정확히 소리 내어 읽은 어절 수
- 강승구 23.6, 김시원 16, 김준호 4.7, 박종식 26.3, 박주현 32.3, 박진호 15, 서현덕 26.3, 육현서 38.6 향상
- 전체적 평균이 97.99에서 120.84, 22.85향상으로 읽기 유창성이 매우 좋아졌음

훈련결과 (K-WCPM) - 연무 중2

마스터 워크북 스타일을 편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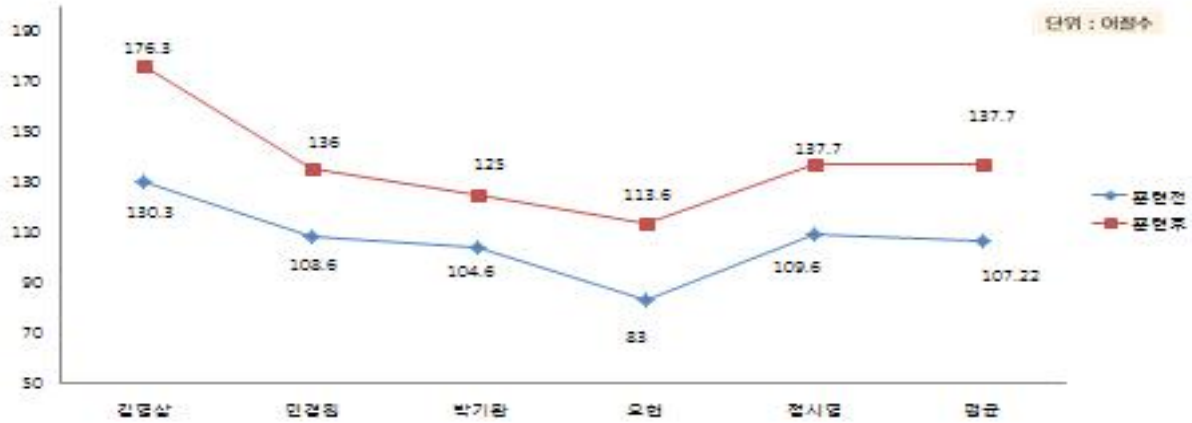
단위 : 어절수



- 권찬양 14, 김원영 35, 김지혁 4.3, 심현식 2.6, 장대익 27, 전다홍 16.7, 홍선표 36 향상
- 전체평균이 93.99에서 113.36, 19.37 향상되어 읽기 유창성이 좋아 졌음

훈련결과 (K-WCPM) - 연무중
[실적우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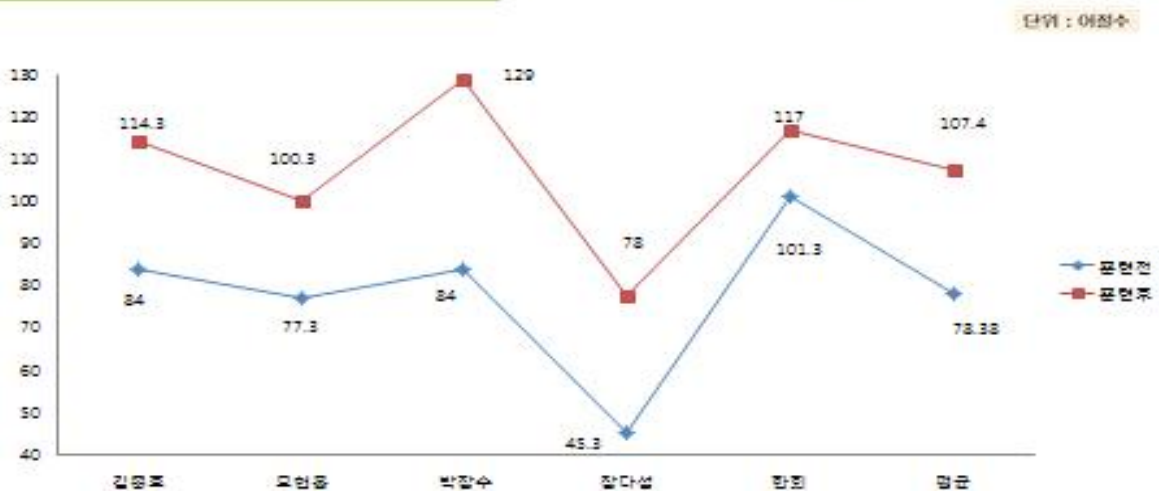
마스터 박스 스티알을 편집합니다



- 김영상 46, 민경원 27.4, 박기환 20.4, 오현 30.6, 정시영 28 향상
- 전체평균이 107.22에서 137.70, 30.48향상되어 읽기 유창성이 매우 좋아 졌음

훈련결과 (K-WCPM) - 선도 중1

마스터 박스 스티알을 편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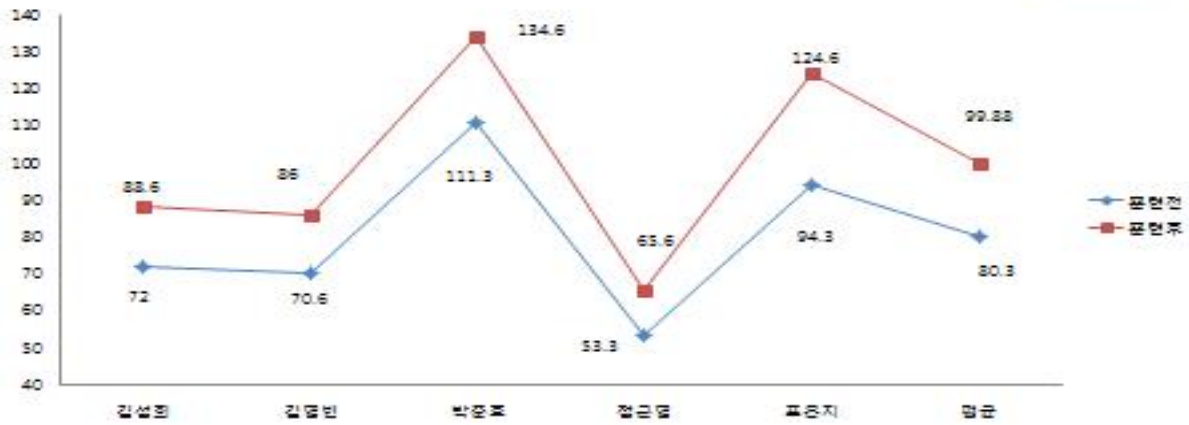


- 김종호 20.3, 모현웅 23.3, 박장수 45, 장다성 32.7, 한희 15.7 향상
- 전체평균이 78.38에서 107.78, 27.40 향상되어 읽기 유창성이 매우 좋아 졌음

훈련결과 (K-WCPM) - 선도 중2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을 편집합니다

단위 : 어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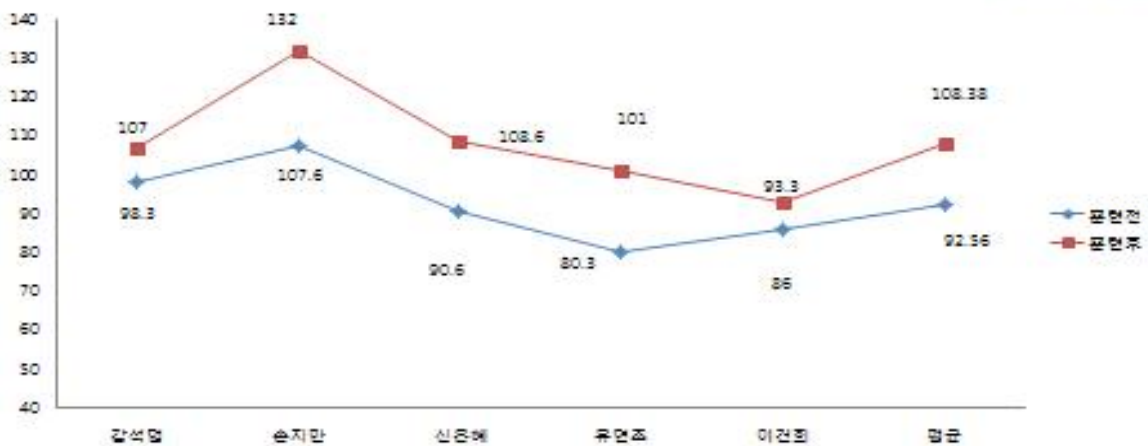


- 김성희 16.6, 김영빈 15.4, 박준호 23.3, 정근영 65.6, 표은지 30.3 향상
- 전체평균이 80.30에서 99.88, 19.58향상되어 읽기 유창성이 좋아 졌음

훈련결과 (K-WCPM) - 선도 중3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을 편집합니다

단위 : 어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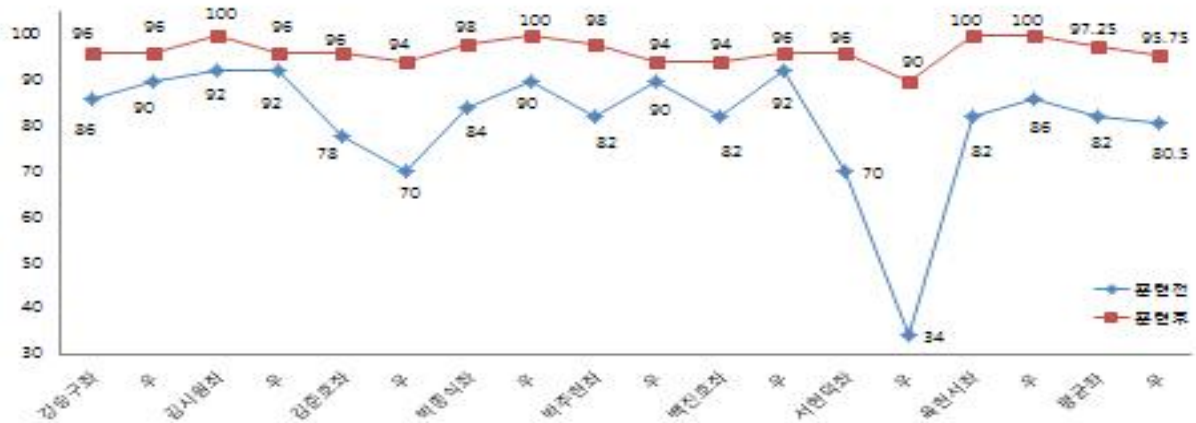


- 강석명 8.7, 손지만 24.4, 신은혜 18, 유연조 20.7, 이건희 7.3 향상
- 전체평균이 92.56에서 108.38, 15.82향상되어 읽기 유창성이 좋아 졌음

훈련결과 (청각어음검사:MLC) - 연무 중1

마스터 박스르 스피커를 연결합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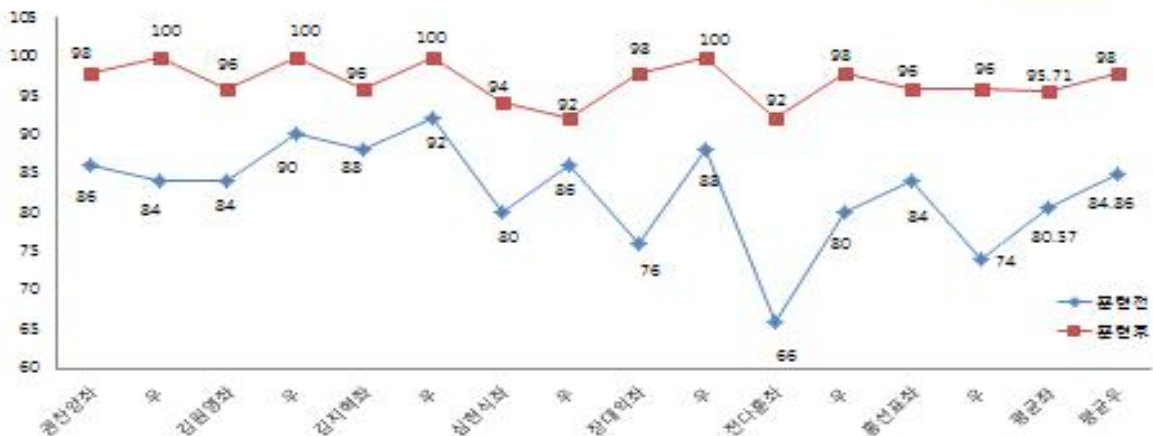


- 청각어음 검사(MCL)은 50dB크기로 50글자들을 한 글자씩 들려주었을 때 정확하게 인지한 글자수를 평가함
- 좌는 평균 82.00에서 97.25, 15.25증가했고, 우는 80.50에서 95.75, 15.50증가 하여 높은 언어 유희성의 효과를 나타냄

훈련결과 (청각어음검사:MLC) - 연무 중2

마스터 박스르 스피커를 연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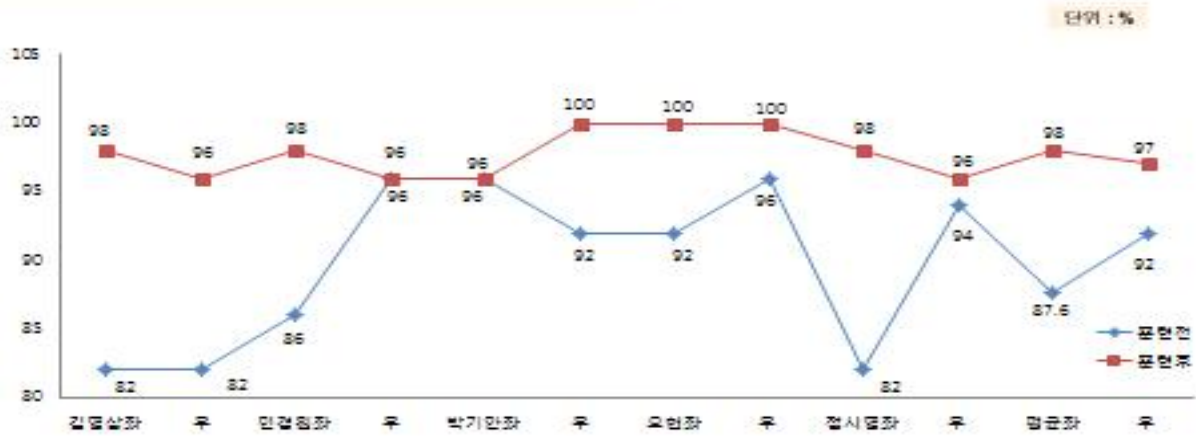
단위 : %



- 좌는 평균 80.57에서 95.71, 15.71증가했고, 우는 84.86에서 98, 14.00증가 하여 높은 언어 유희성의 효과를 나타냄

훈련결과 (청각어음검사:MLC) - 연무종 (실적우수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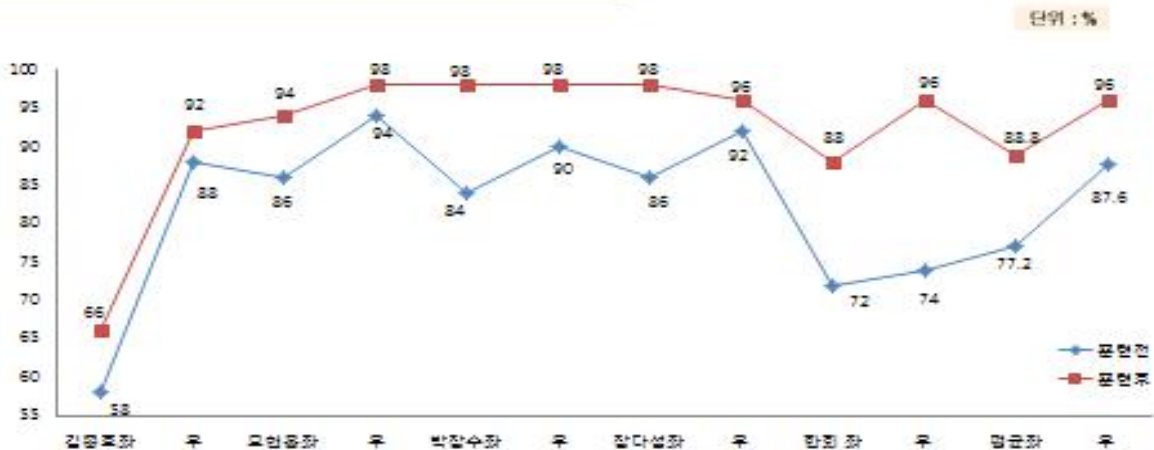
마스터 렉스르 스피킹을 권장합니다



- 좌는 평균 87.6에서 98, 10.4증가했고, 우는 92에서 97.6, 5.6 증가 하여 높은 언어 유창성의 효과를 나타냄

훈련결과 (청각어음검사:MLC) - 선도 중1

마스터 렉스르 스피킹을 권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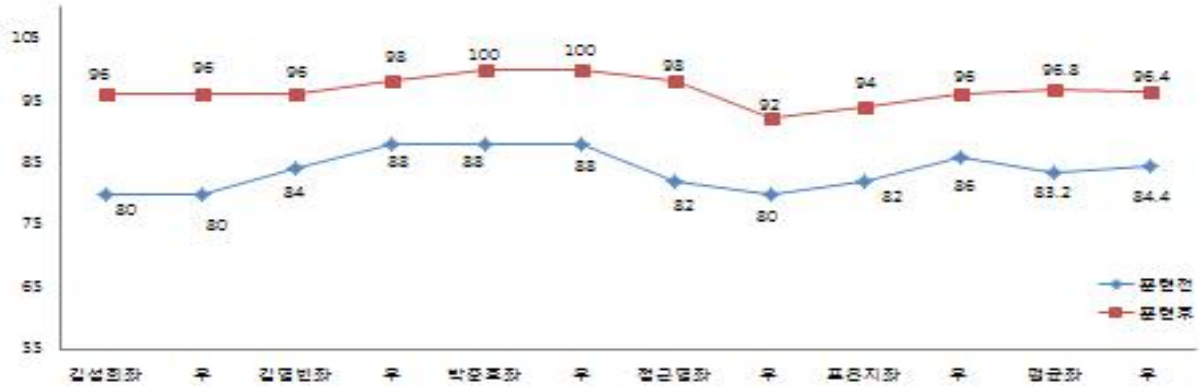


- 좌는 평균 77.20에서 98, 10.4증가했고, 우는 92에서 97.6, 5.6 증가 하여 높은 언어 유창성의 효과를 나타냄

훈련결과 (청각어음검사:MLC) - 선도 중2

마스터 렉스르 스타일을 편집합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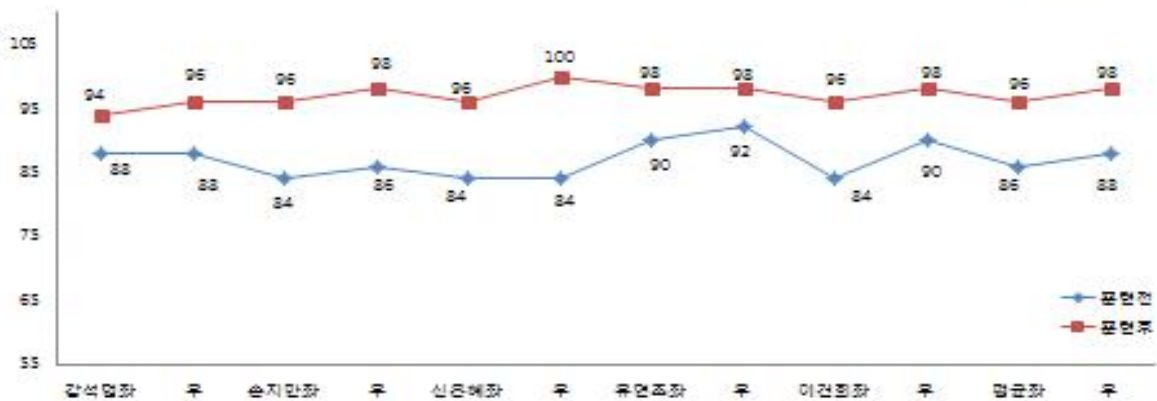


- 좌는 평균 83.2에서 96.8증가했고, 우는 84.4에서 96.4, 12.00증가 하여 높은 언어 유창성의 효과를 나타냄

훈련결과 (청각어음검사:MLC) - 선도 중3

마스터 렉스르 스타일을 편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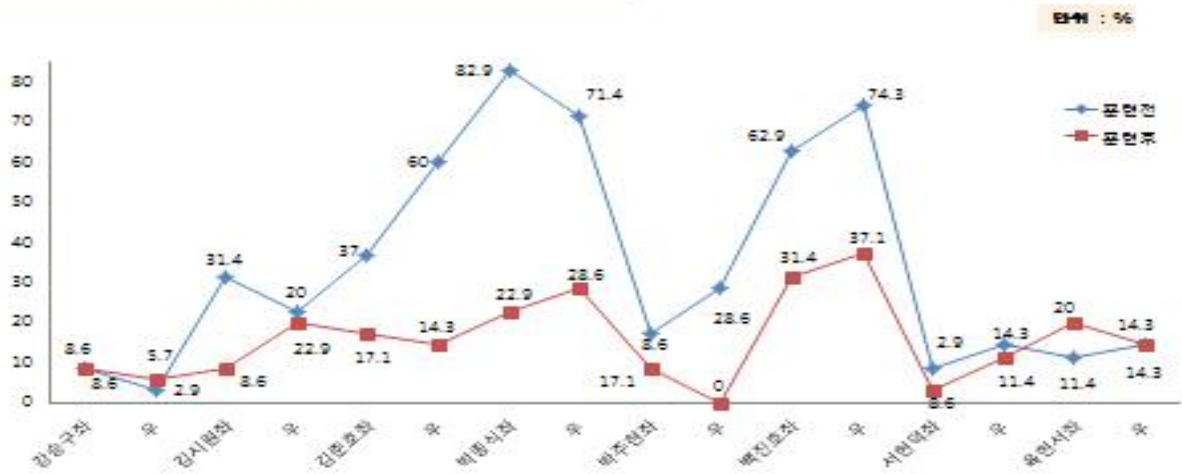
단위 : %



- 좌는 평균 86.00에서 96.00, 10.00증가했고, 우는 88.00에서 98.00, 9.60증가 하여 높은 언어 유창성의 효과를 나타냄

훈련결과 (선택성오류 TLTS 검사) - 연무 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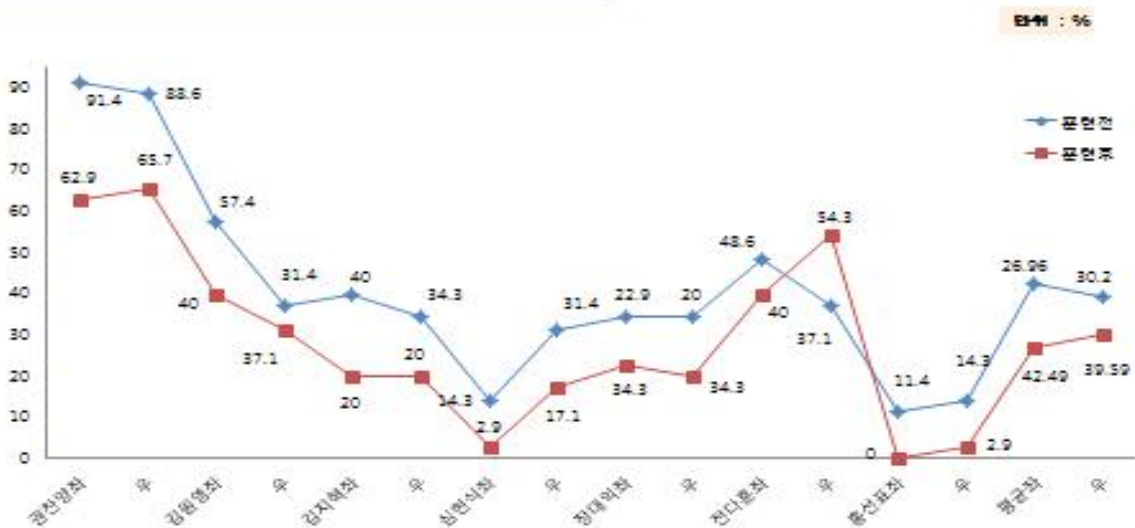
마스크 밖으로 소리만을 관찰합니다



- 위 검사는 주파수 변이를 인식할 수 있는 귀의 능력과 변이의 방향을 인식할 수 있는 귀의 능력변화를 평가 (25%이하 시 정상)
- 좌는 평균 32.49에서 15.01로 하락하여 높은 음운인식능력 개선을 보임

훈련결과 (선택성오류 TLTS 검사) - 연무 중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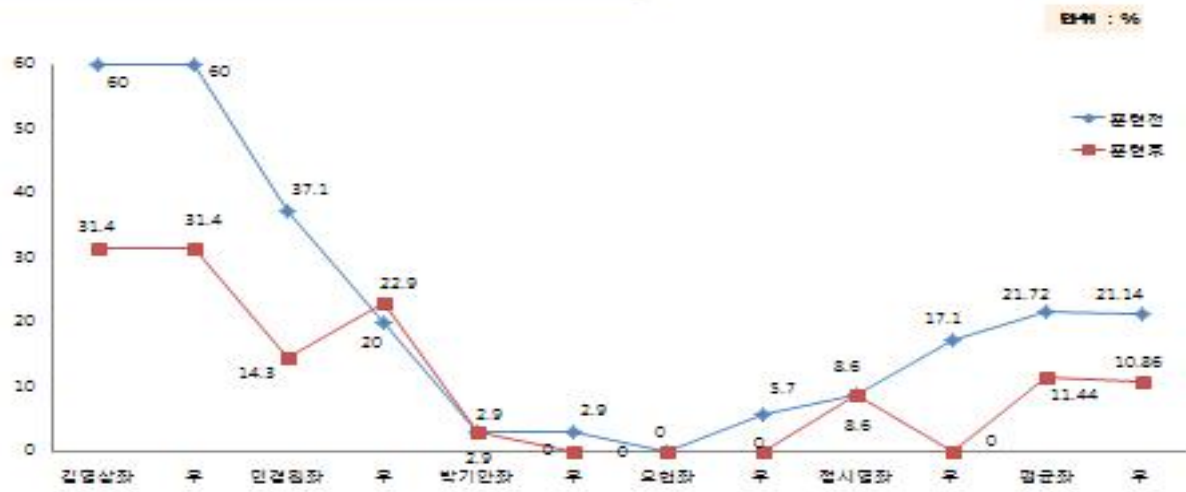
마스크 밖으로 소리만을 관찰합니다



- 좌는 평균 42.49에서 26.96로 하락했고, 우는 39.59에서 30.20으로 하락하여 높은 음운인식능력 개선을 보임

훈련결과 [선택성오류 TLTS 검사] - 연우종 [성적우수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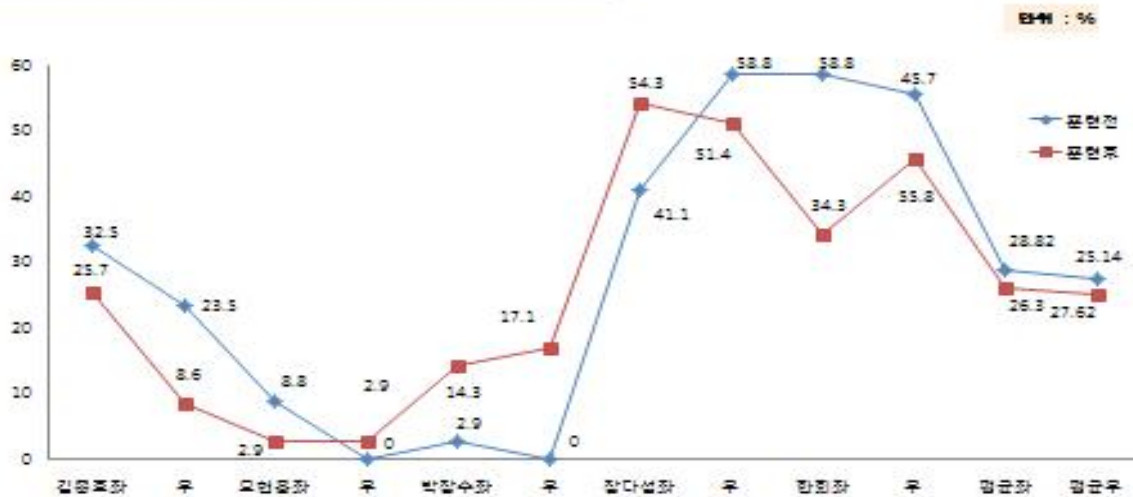
마스터 박스르 소리알을 관찰합니다



- 좌는 평균 21.72에서 11.44로 하락했고, 우는 21.14에서 10.86으로 하락하여 높은 음운 인식능력 개선을 보임

훈련결과 [선택성오류 TLTS 검사] - 선도 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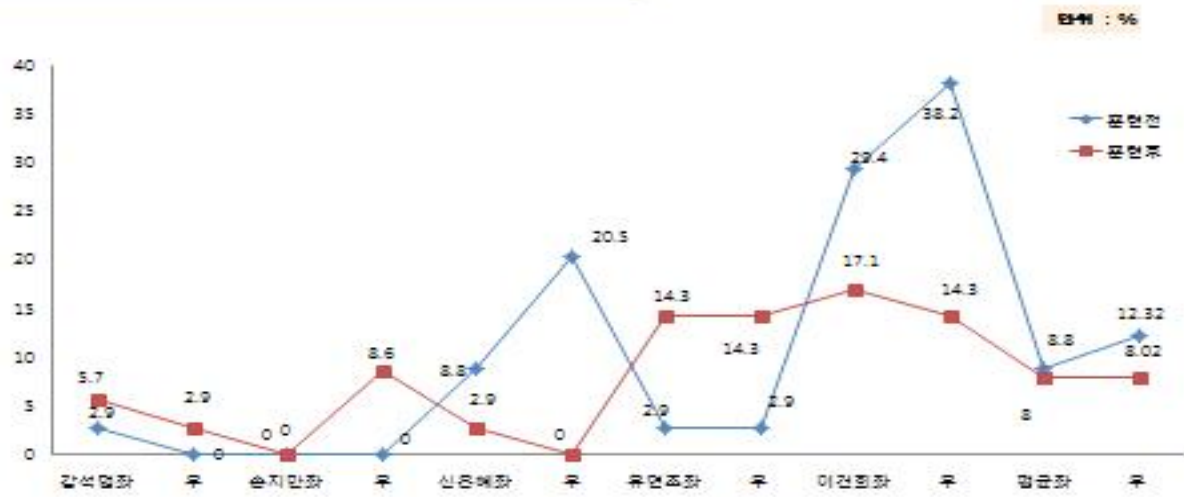
마스터 박스르 소리알을 관찰합니다



- 좌는 평균 28.82에서 26.30로 하락했고, 우는 27.62에서 25.14으로 하락하여 높은 음운 인식능력 개선을 보임

훈련결과 [선택성오류 TLTS 검사] - 선도 중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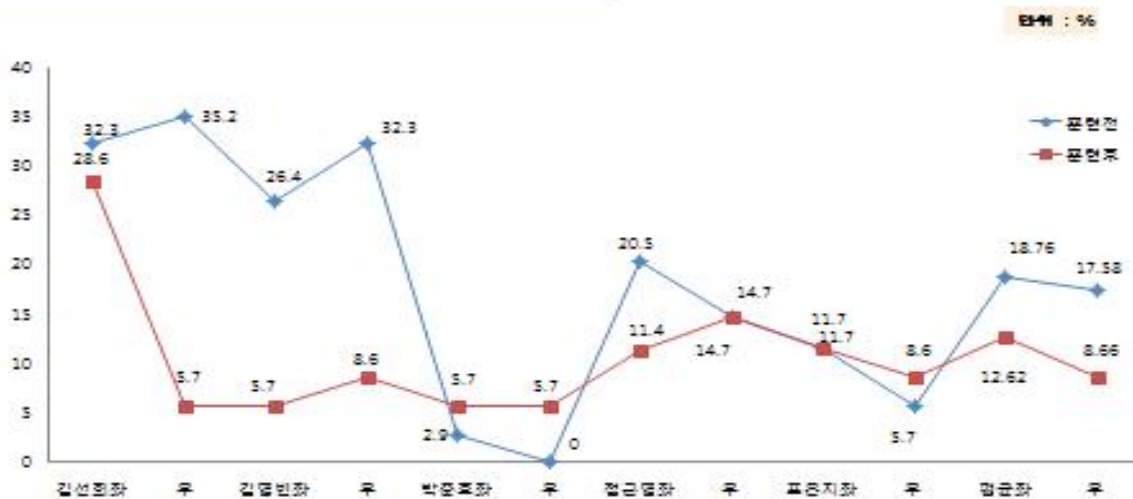
마스터 렉스르 스타일을 관찰합니다



- 좌는 평균 18.76에서 12.62로 하락했고, 우는 17.58에서 8.66으로 하락하여 높은 음운인식능력 개선을 보임

훈련결과 [선택성오류 TLTS 검사] - 선도 중3

마스터 렉스르 스타일을 관찰합니다



- 좌는 평균 8.80에서 8.00로 하락했고, 우는 12.32에서 8.02으로 하락하여 높은 음운인식능력 개선을 보임



- K-WCPM검사, 청각어음검사, TLTS선택검사 등을 통하여 훈련 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정확한 듣기능력과 읽기 유창성 부분에서 비약적 발전이 확인됐다.
- 20여 시간의 짧은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나타났던 것은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협조와 이로 인한 학생들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 졌기에 가능했다.
- 앞으로 본 훈련이 또다시 진행되면 학교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본 훈련을 통해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부진의 원인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처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